

사학연구 제32집

공·사립고교 교육재정 비교 연구

2016. 03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사학연구 제32집

공사립고교 교육재정 비교 연구

연구자 : 김 용 호
이 성 은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부설 한국사학교육연구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II. 이론적 배경	4
1.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및 형평성	4
2. 고등학교 교육의 책무성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5
3. 사립학교 교육재정의 현안 및 쟁점 탐색	5
III. 연구방법	8
1. 연구대상	8
2. 연구변인	11
3. 분석방법	12
IV. 연구결과	12
1.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13
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57
3. 자율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97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119
V. 요약 및 결론	140
참고문헌	14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입시제도의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새로운 입시제도 개혁으로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유선발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학군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이 배정됨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없어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서,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시설 정비, 교원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사립학교 육성 및 지원, 도심지 학교 외곽 이전 및 학군 세분화, 학교 및 교사의 과외금지, 농·어촌지역 학교 육성정책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¹⁾

고교 평준화 정책은中等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교육여건에서 평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실상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록금 책정 등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제약을 받으며 정부의 공적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평준화 이후 공립과 사립 구분이 없이 학교의 여건과 환경으로 인한 교육 내용, 질, 서비스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 교육재정 또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조성 정책에 의해 시작된 재정결함보조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학교의 경우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된 후 1971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 평준화 실시 이후 1979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학 법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이러한 재정지원 없이는 학교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부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립학교의 재정문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이 국·공립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인 열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재정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사립학교들이 평준화 이후 등록금 규제로 인하여 학교재정 충당비율이 감소하게 되었으며(김병주, 1999; 신현석, 2001; 주철안, 1997), 둘째, 학교법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1)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64>(국가기록원>주제별 검색>주제유형별검색>정책/제도>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 비율이 낮고(김병주, 1999; 김정란, 2006; 신현석, 2001; 주철안, 1997), 셋째,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자체수입이 미미하고(김병주, 1999, 2010; 신현석, 2001; 주철안, 1997), 넷째, 인건비 위주의 지출구조로 인한 시설비 투자 위축은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김병주, 1999)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사립학교의 정부 재정지원 의존률을 높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국·공립과 비교하였을 때 국고보조금과 전입금 비율이 낮다는 것(김병주, 1999)이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중학교는 20.1%, 고등학교는 40.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중등교육 단계에서 사립학교의 기여도는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 중등학교의 교육재정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최준렬(2013)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은 곧 누구나 동등한 여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수요에 따라 학생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 고등학교의 현 시점에서의 교육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교육재정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은 주로 교육재정정책의 거시적인 일반론적 수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반상진, 2010; 송기창, 2006)와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연구(남수경, 2007; 차양은, 2001; 최준렬, 2013) 등이 이루어져왔고,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국·공립 초·중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엄문영, 오범호, 윤홍주, 2013; 윤홍주, 2004; 홍지영, 정동욱, 2012)와 단위학교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관련한 연구(김영출, 1995; 우명숙, 2007, 2013; 윤홍주, 2005; 이혜진, 한유경, 2006; 정동욱, 홍지영, 지윤경, 이호준, 2011)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재정문제를 진단한 선행연구들은 그 수에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의 사학의 교육재정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설립유형으로는 국·공립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구분에 따른 비교가 불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내용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 고등학교의 현 시점에서의 교육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개념 및 논리
- 고등학교 교육의 책무성과 교육재정과 의 관계
- 사립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의 학교회계 구조
-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논리
- 사립학교 교육재정의 현안 및 쟁점 탐색
-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의 교육비 분석
 - 최근 5년간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교육재정의 변화의 관계 탐색
 - 설립구분별 세입·세출 결산항목별 변화 추이와 교육비 차이 분석
 -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변화와 차이 등을 분석
 - 학교회계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내의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고등학교들을 설립구분별로 세입·세출 결산항목별 교육비 차이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분석

나. 연구범위 및 한계

이 연구의 범위는 첫째, 연구대상으로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 활용자료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자료와 학교회계 자료인 에듀파인 자료를 에듀데이터서비스시스템(EDSS)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할 것이다. 셋째, 자료의 범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자료와 학교특성 정보에 한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각 학교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모두 수집하지 않고, EDSS에서 제공하는 에듀파인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의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세입·세출 결산항목에 한하여 고등학교의 설립구분별 교육비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전수조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EDSS에서 총화표집에 의해 제공해 주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전수자료 분석이 아닌 표집자료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2010년부터 학교회계 처리방식이 복식부기로 전환되면서 세출결산항목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처리됨에 따라 교육비의 재원별

분류에 한계를 갖는다. 넷째, 설립구분별 세입·세출 결산항목의 비교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즉,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놓고 국·공립과 사립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

II. 이론적 배경

1.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투입변인의 하나인 교육재정의 공평한 확보와 배분 문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항상 중요하게 연구되어졌다(반상진, 2001; 김영출, 1995, 김남순, 1989). 김영출(1995)은 교육재정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배분을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모든 학생은 균등하다는 전제 아래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일정 지역 내의 개인이나 집단이 평등할 때 모두를 균등하고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대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학생이라면 구분된 학교급 안에서 균등하게 교육재정이 배분되어야 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같게 교육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해 교육받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규모의 교육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모든 학생은 각각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차등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학생은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

2) 공·사립학교간 회계 시스템의 차이로 사립학교에서는 교직원의 인건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수입이 교비회계에 포함되는 반면 공립에서는 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학교회계를 통해서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 즉, 세입의 자체수입 중 학부모 부담 항목에는 사립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립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교육비특별회계 항목 역시 공·사립학교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공립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가 제외된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성되고 사립은 교직원인건비가 포함된 재정결함보조금과 목적사업비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목적사업비의 경우도 공립은 대수선, 건축시설지원비 등 교육청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립은 단위학교로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립의 목적사업비 세입규모가 실제보다 매우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관련 세출도 공립은 상당 부분을 교육청이, 사립은 학교가 집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세입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정규교직원의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제외시킨 세입결산을 총액 수준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나, 그 외에도 학교회계 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시설비와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세출금액은 제외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놓고 그대로 공·사립간 세입결산의 평면적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세출결산의 사업별, 성질별 비교 역시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인적자원 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별 항목과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성질별 항목에서 연구결과를 그대로 공·사립학교간 실질적 차이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공교육비도 그들에게 차등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 간의 차이의 규명은 학생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 또는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차이와 학교의 교육 여건의 차이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2. 고등학교 교육의 책무성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이혜진, 한유경(2006)은 단위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재정의 차이가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은 중요한 교육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교육재정의 공평성은 학교교육에서의 가장 중요한 투입변인의 하나인 교육재정의 평등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 교육재정의 평등한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언급하고, 이러한 교육재정의 평등한 분배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거둠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동욱, 이호준, 조성경, 이현국, 정승환(2013)은 학교 책무성 정책과 교육재정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극가는 단위학교에 대한 책무이행 요구 이전에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바대로 단위학교가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책무성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지원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재정의 충분성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책무성과 교육재정의 충분성 논의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사립학교 교육재정의 현안 및 쟁점 탐색

주철안(1997)은 부산의 중등 사학을 대상으로 재정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립학교의 세입세출구조에서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비율은 32%인데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0%이상으로 나타나 학생의 수업료 수입에 의존률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사립중등학교의 전체 세출 중 인건비의 비중이 92%이고 운영비는 4-5%, 재산조성비는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자될 수 있는 학교운영비의 여지가 매우 적고, 시설비 비중은 더욱 미미하여 사립학교의 시설 및 설비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도 매년 감소하는데, 이는 사학법인의 기본재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고, 수익성이 적은 저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성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단의 전입금이 저조한데서 기인된다

고 지적하였다.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시설투자에서도 공사립 간 격차가 발생하는데, 중등사학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이 공립보다 낮게 나타났고, 시설과 설비는 국·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화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주철안(1997)은 그의 연구에서 사립학교 재정 악화의 원인과 배경을 첫째, 평준화정책 이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생 납입금은 규제되는 반면, 세출은 증가되었고, 기준재정운영수요액에 부족한 경비로 지원되는 재정결함지원액이 학교법인 전입금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부산시의 경우 중등사학의 전입금 및 보조금 세입액 중 법인전입금은 불과 4%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목적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공립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의 기부금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김병주(1999)는 사립 중등학교의 학교재정 평가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사립 중등학교의 재정 문제로 첫째, 사립학교 공교육비 총액의 영세성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립 중학교의 공교육비 총액은 중학교 전체 공교육비 총액의 20.6%로 사립 중학교 학생 비율 2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사립 고등학교의 공교육비 총액은 고등학교 전체 공교육비 총액의 45.9%로 사립 고등학교 학생 비율인 5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준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사립이 공립의 7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학에 대한 공공지원 부족 및 납입금 의존도의 과중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사립 간의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 고등학교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73.3%인데 비하여, 사립 고등학교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건비 위주의 지출구조이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인건비 비율이 훨씬 높다. 중학교의 경우 공립은 인건비 비중이 83.9%인 반면, 사립은 89%에 이르고, 고등학교는 공립의 인건비 비중이 68.8%인데 비하여 사립은 87.4%로 20%p 높다.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의 높은 비중은 시설비의 위축을 가져와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등 사학법인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출이 미미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저수익성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보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신현석(2001)은 한국 사학정책의 쟁점을 분석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등 사학재정이 빈약하게 된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중등학교 평준화 시책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공납금에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책정됨으로 인해 공납금 수입을 통한 학교재정의 충당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게 되었다. 공납금의 인상률이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낮게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반복되어 항상 그 결손액이 누적되어 왔다. 둘째, 학교법인의 영세한 재정규모로 인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 규모가 매우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중등사학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재산은 대부분 대지 임야 전답 등 저수익성 또는 비수익성 토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법인재정자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학이 차지하는 교육 비중에 비해 정부 당국의 사학재정 보완과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학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원확보를 통해 발전적인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체 교육예산 속에 별도의 계획 수립을 통해 사학지원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중등 사학의 교육비 재원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김병주(2010)는 A광역시외의 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쉽지가 않다고 제시하였다. 그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개별 고등학교 재단에 맡기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하며, 둘째, 교육청이 사학재단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노력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셋째, 사학에 대한 세계당국의 접근방식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증대를 통한 전입금의 확대와 함께 정부예산의 지원확대, 각종 민간기금의 확대, 등록금의 적정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재정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평준화 이후 등록금 규제로 인하여 학교재정 충당비율 감소, 둘째,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의 낮은 비율, 셋째,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자체수입 미미, 넷째, 인건비 위주의 지출구조로 인한 시설비 투자 위축, 다섯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사립학교의 정부 재정지원의 높은 의존률로 정리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분석하기 위해 에듀데이터 서비스시스템(EDSS: Edu-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 자료와 에듀과인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DSS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연구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에듀과인자료를 2009년 자료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과인은 2009년에는 시범운영되었고, 2010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2009년도 에듀과인자료는 연구에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학교정보공시와 에듀과인의 학교회계와 관련한 결산자료는 공시년도의 전년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보공시연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나 결산자료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4년간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표 3> 분석 자료의 구조 및 연도

자료 출처	지표항목	제공자료 범위
학교정보공시	학교현황자료	2010년 - 2013년
	예·결산자료	
에듀과인	세입·세출결산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표본은 시도교육청, 지역규모, 설립유형에 따라 전체에서 70% 비율로 층화추출되어 제공되었다. <표 2>와 같이 표집학교들 중 학교정보공시 및 에듀과인의 항목들의 자료가 입력되어있지 않은 학교들을 제외하였고, 4개년도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동일학교들만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된 분석대상은 1,303개교이다.

<표 4> 연구대상 선정

구분	자료연도	표집자료(제공)	연구대상(활용)
고등학교	2010~2013	1,374개교	1,303개교

▪ 학교정보공시 및 에듀과인 항목 미입력 자료 제외
 →

1,30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립유형, 학교유형, 지역규모, 학교규모 등 학교특성에 따른 표집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립유형별로 국·공립학교는 전체 1,303개교 중 742개교로 56.9%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는 561개교로 43.1%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고등학교가 전체 716개교로 55%에 해당하며, 특성화고등학교가 280개교로 21.5%이며, 자율고등학교는 48개교 3.7%, 특수목적고등학교가 63개교로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고등학교를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4개연도 학교정보공시의 학교공통정보에서 일반계열인지 전문계열인지 계열구분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계열에 해당하는 학급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학교 소재지의 지역규모에 따른 비율을 보면, 국·공립학교 전체 중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35%,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24.5%에 해당하였다. 사립학교는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가 4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32.3%, 읍면지역이 22.2%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학교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학교성별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이 7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남학교가 13.8%, 여학교가 1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도 남녀공학의 비율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학교가 30.7%, 남학교가 25.5%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는 총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이면 소규모,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중규모, 1,000명 이상인 학교를 대규모로 구분하였다. 국·공립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3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규모가 32.2%, 중규모가 29.5%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중규모가 4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규모가 35.5%, 소규모가 2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국·공립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 수가 18.3%에 해당하는 136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68개교로 9.2%, 경북교육청이 67개교 9%에 해당하며, 반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가 1개교로 사례수가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3개교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5개교 2% 순으로 적은 사례수로 나타났다. 사립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학교가 120개교로 21.4%에 해당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가 71개교 12.7%이고, 경상북도교육청이 62개교로 11.1%에 해당하는 사례수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대상 선정과정에서 학교회계의 예·결산 항목이 입력되지 않은 결측 학교들 71개교를 제거하고 4개연도 자료가 모두 있는 학교 1,303개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국·공립 고등학교는 1개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사립 고등학교는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고,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사립 고등학교도 1개교만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5> 연구대상의 특성별 분포('13년 기준)

(단위 : 개교, %)

구분	국·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전체	742	(100.00)	561	(100.00)		
학교유형	일반고등학교	389	(52.43)	327	(58.29)	
	특성화고등학교	165	(22.24)	115	(20.50)	
	자율고등학교	20	(2.70)	28	(4.99)	
	특수목적고등학교	43	(5.80)	20	(3.57)	
	기타(종합고등학교)	125	(16.85)	71	(12.66)	
지역교육청	서울	51	(6.87)	120	(21.39)	
	부산	34	(4.58)	36	(6.42)	
	대구	22	(2.96)	30	(5.35)	
	인천	43	(5.80)	12	(2.14)	
	광주	13	(1.75)	21	(3.74)	
	대전	28	(3.77)	24	(4.28)	
	울산	1	(0.13)	-	-	
	강원	65	(8.76)	1	(0.18)	
	경기	136	(18.33)	71	(12.66)	
	충북	44	(5.93)	19	(3.39)	
	충남	55	(7.41)	29	(5.17)	
	전북	45	(6.06)	46	(8.20)	
	전남	68	(9.16)	33	(5.88)	
	경북	67	(9.03)	62	(11.05)	
	경남	55	(7.41)	49	(8.73)	
제주	15	(2.02)	8	(1.43)		
지역규모	대도시	특별광역시	182	(24.53)	239	(42.60)
	중소도시	시	260	(35.04)	181	(32.26)
	읍면지역	읍지역	129	(17.39)	77	(13.73)
		면지역	127	(17.12)	61	(10.87)
		특수지역	44	(5.93)	3	(0.53)
		소계	300	(40.43)	141	(25.13)
학교성별	남학교	102	(13.75)	143	(25.49)	
	여학교	96	(12.94)	172	(30.66)	
	남여공학	544	(73.32)	246	(43.85)	
'13년 기준 학교규모 ('10/'11/'12)	소규모 : 500명 미만	284 (286/281/278)	(38.27)	126 (121/123/123)	(22.46)	
	중규모 :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19 (180/189/201)	(29.51)	236 (199/208/221)	(42.07)	
	대규모 : 1,000명 이상	239 (276/272/263)	(32.21)	199 (241/230/217)	(35.47)	

2. 연구변인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 항목별 금액을 비교·분석하였다. 세입·세출항목별 금액은 학교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학교회계의 세입의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의 네 개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급식, 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운영, 개발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보조금 등의 목적으로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지원하는 경비이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전입금으로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전입금에 해당하며,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보조금수입으로는 재정결함보조금과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직원인건비에 해당된다. 기타이전수입은 같은학교이전수입과 다른학교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이 포함된다.

자체수입은 학부모부담수입과 행정활동수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부담수입에는 등록금수입과 수익자부담수입이 포함된다. 등록금 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해당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회계에서 제외된다. 수익자부담수입에는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대금, 교과서 대금, 기숙사비, 우유대금 등 기타수익자부담수입이 포함된다.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보증금 회수, 기타행정활동수입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입에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불용액으로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계속비이월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이 포함된다.

세출결산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정책사업에 따른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여주는 사업별 세출결산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단식부기 방식에 따라 예산 집행이 인건비성 경비인지 운영비성 경비인지 등 성질별 세출결산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규모를 분석하였다.

<표 6> 세입·세출결산 항목

구분	결산 항목	
	중액	
세입 결산	이전수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자체수입	학부모부담, 행정활동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구분		결산 항목	
세출 결산	사업별	총액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보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 기타 보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급식 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 장학 지원,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기본적 교육활동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교육, 교지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교무업무 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 일반운영	부서 기본운영, 시설장비 유지, 일반행정 관리, 학교운영협력, 학부모 지원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 재무활동	반환금
		이월금	계속비이월금액, 명시이월금액, 사고이월금액
		불용금액	불용금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		
세출 결산	성질별	총액	
		인건비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타직 보수, 학교운영지원비수당
		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운영비(교육운영비, 법정부담금,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비품구입비, 적립금, 기타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진출금
		이월금	계속비이월금액, 명시이월금액, 사고이월금액
		불용액	불용금액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정규교직원의 보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액 비교에서는 사립학교의 세입·세출결산자료에서 교직원의 보수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총액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학교유형별로 설립유형에 따라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였다. 또한 설립유형별로 시도 간 평균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해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교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액과 각 세입·세출항목을 학생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연구는 국·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크게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네 개의 학교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학교유형별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출결산은 사업별 세출결산 항목 비교와 성질별 세출결산 항목 비교로 보다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국·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교육재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학교규모에 따른 재정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 재정항목별 금액을 학생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1.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이 절에서는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 간,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학교 교육재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고등학교의 전체 사례 수는 716개교이고, 그 중 국·공립학교는 389개교로 54.3%, 사립학교는 327개교로 45.7%이다. 설립유형별로 시·도교육청별 소속 학교 수를 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경기도가 92개교로 23.7%로 가장 많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5개교, 6개교로 10개교 미만의 적은 사례 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로 볼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61개교로 18.7%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각각 11.6%(38개교), 11.3%(37개교)로 상대적으로 사례 수가 많은 편이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6개교, 7개교로 10개교 미만의 적은 사례 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로 볼 수 있다.

<표 7> 시·도교육청별 일반고등학교 사례 수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716	(100.00)	389	(100.00)	327	(100.00)
서울	91	(12.71)	30	(7.71)	61	(18.65)
부산	41	(5.73)	20	(5.14)	21	(6.42)
대구	28	(3.91)	10	(2.57)	18	(5.50)
인천	37	(5.17)	30	(7.71)	7	(2.14)
광주	22	(3.07)	6	(1.54)	16	(4.89)
대전	28	(3.91)	14	(3.60)	14	(4.28)
경기	129	(18.02)	92	(23.65)	37	(11.31)
강원	34	(4.75)	34	(8.74)	-	-
충북	29	(4.05)	18	(4.63)	11	(3.36)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빈도	(%)
충남	47	(6.56)	27	(6.94)	20	(6.12)
전북	47	(6.56)	19	(4.88)	28	(8.56)
전남	51	(7.12)	29	(7.46)	22	(6.73)
경북	65	(9.08)	27	(6.94)	38	(11.62)
경남	56	(7.82)	28	(7.20)	28	(8.56)
제주	11	(1.54)	5	(1.29)	6	(1.83)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액 비교

설립유형별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공립 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27억4,719만원 수준이며, 사립학교는 75억5,96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총액으로, 사립학교의 정규교직원 보수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38억24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였을 때,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는 455만원, 사립학교는 460만원 수준으로 약 5만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그림 1]을 통해 나타난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2011년 이후 감소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여 2013년도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학교 간 편차를 보면, 학생 1인당 세출총액이 작게는 170만원에서 많게는 5,072만원까지 나타나 편차가 최대 4,901만원까지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사립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적게는 156만원에서 많게는 2,159만원으로 편차가 최대 2,003만원으로, 사립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가 사립학교는 204만원이고, 국·공립학교는 456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학교들 간 분산이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더 크고 학교들 간 세입총액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세입결산 총액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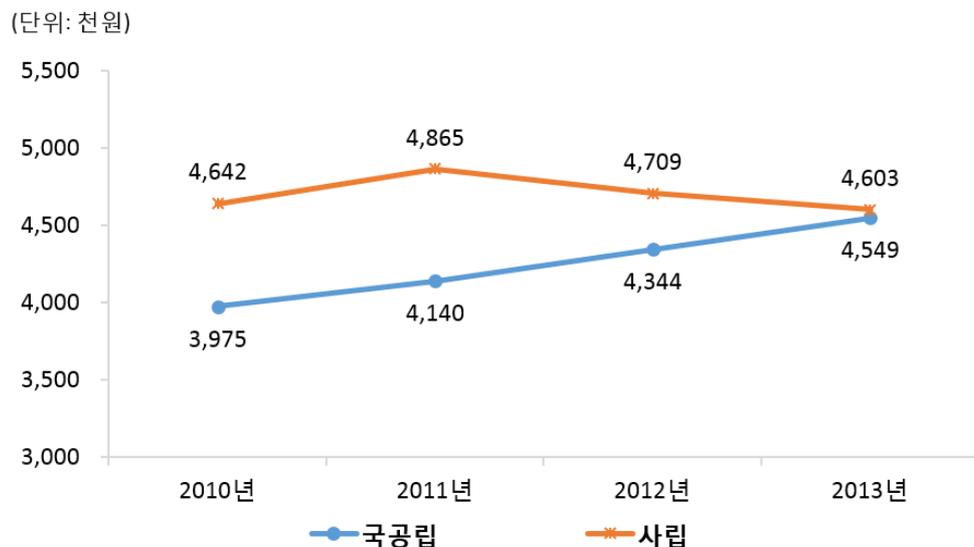
2013년 기준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세입결산 총액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에 비하여 1.4배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으로 산출하여 보았을 때,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차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뿐만 아니라, 학교 간 편차에서 사립 일반고등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학교들 간 비교적 고른 세입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8>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				사립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단위 학교	2010	2,608,486	1,182,840	238,264	6,572,528	7,058,653	2,366,425	1,187,875	20,839,073	-
		2011	2,693,409	1,160,476	260,300	6,291,590	7,309,062	2,358,105	1,237,978	13,017,933	-
		2012	2,743,027	1,151,109	257,852	6,137,233	7,588,342	2,362,506	1,187,545	13,889,144	-
		2013	2,747,192	1,154,802	241,642	6,249,188	7,559,606	2,381,382	1,292,716	15,321,397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단위 학교	2010	2,600,128	1,179,385	219,180	6,572,528	3,930,792	1,655,498	331,814	16,499,287	-
		2011	2,690,332	1,158,852	260,300	6,291,590	4,123,814	1,706,976	404,443	9,835,389	-
		2012	2,743,027	1,151,109	257,852	6,137,233	3,920,840	1,369,438	390,572	10,378,315	-
		2013	2,747,192	1,154,802	241,642	6,249,188	3,802,476	1,327,486	432,995	9,978,282	-
제외 총액	학생 1인당	2010	3,975.50	4,029.30	1,578.93	44,620.37	4,642.37	2,603.35	820.55	20,226.58	-2.57*
		2011	4,139.82	3,898.04	1,218.71	36,782.12	4,865.18	2,481.32	1,870.40	19,847.92	-2.91**
		2012	4,343.88	4,161.98	1,527.80	43,824.25	4,709.29	2,190.96	1,733.43	20,890.86	-1.50
		2013	4,548.79	4,560.79	1,700.60	50,717.02	4,603.33	2,041.33	1,561.70	21,594.39	-0.21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2) 세입항목별 비교

<표 9>는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을 세입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며, 사립 학교는 정규직 교원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이전수입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서 사립학교의 금액이 국·공립학교보다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자체수입에서도 국·공립학교는 학부모 부담의 등록금 및 입학금이 누락되어 있어 사립학교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모두 세입 총액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항목별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수입과 학부모부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다른 항목들은 증감의 일관적 경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교부금 수입과 학부모부담 수입으로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재원이 안정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수입과 기타이전수입과 같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재원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학교회계에서의 세입규모가 일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면에서는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대체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표 9>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세입결산총액		3,990.57	4,043.41	4,142.88	3,897.31	4,343.88	4,161.98	4,548.79	4,560.79	
	이전수입	중앙정부	0.20	3.79	0.85	10.06	0.10	0.86	0.89	15.62	
		지방자치단체	202.71	449.35	176.54	311.11	203.43	511.77	236.72	535.83	
		교육비특별회계	1,901.57	3,208.14	1,974.14	2,953.52	2,100.72	3,122.13	2,200.35	3,433.61	
		기타	66.24	210.42	80.64	243.48	84.32	253.95	86.16	291.92	
		자체수입	1,519.29	406.98	1,531.86	409.27	1,608.90	413.93	1,645.59	465.94	
	학부모부담	행정활동	40.70	34.29	47.43	44.76	46.94	40.59	44.30	40.68	
		기타수입	300.56	901.27	378.86	989.44	346.42	796.84	379.08	1,102.13	
	전년도이월금	300.56	901.27	378.86	989.44	346.42	796.84	379.08	1,102.13		
	사립	세입결산총액		8,145.64	3,479.34	8,419.77	3,117.84	8,923.07	3,325.35	9,007.67	3,272.65
		이전수입	중앙정부	0.09	1.40	0.14	2.12	0.11	1.63	0.09	1.52
			지방자치단체	196.50	321.92	178.00	253.45	169.43	307.58	177.75	277.36
교육비특별회계			4,543.50	2,717.86	4,698.20	2,436.73	5,164.88	2,564.56	5,181.37	2,443.84	
기타			190.11	306.48	225.20	346.25	297.38	555.14	255.83	386.02	
자체수입			2,908.69	1,094.05	2,985.34	980.90	3,054.82	1,019.64	3,096.95	1,006.60	
학부모부담		행정활동	41.28	74.25	51.05	117.98	50.58	107.55	45.05	75.74	
		기타수입	306.75	833.78	332.89	626.62	236.45	382.36	295.67	706.72	
전년도이월금		306.75	833.78	332.89	626.62	236.45	382.36	295.67	706.72		

<표 8>은 2013년 기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이 864만원으로 가장 크고, 서울특별시가 256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607만원이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전라남도가 1,218만원으로 가장 크고, 서울특별시가 706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513만원인데, 이와 같은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의 차이는 주된 원인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규모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은 강원도가 514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422만원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 342만원, 전라남도 333만원, 충청북도 303만원으로 5개 지역이 3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이 89만원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경기도도 89만원 수준이며, 대전광역시가 94만원, 광주광역시가 97만원으로 4개 지역이

100만원 미만의 낮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립 일반고등학교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라북도가 772만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740만원으로 크며, 서울특별시가 349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가 이전수입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도 단위의 이전수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세출결산

학교회계제도는 2008년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편성과 품의, 지출 등 학교의 재정처리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0학년도부터 공·사립학교에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운영되었다. 이에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은 세부항목으로 구분되며, 원가통계비목을 통한 복식부기 자동분개를 통해 경비의 성질별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고등학교 재정 현황을 에듀파인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의 세출결산금액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라 어떠한지를 분석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간 차이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성질별 세출결산 항목의 지출 규모가 설립유형에 따라 어떠한지, 2013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간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표 10>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세입결산총액	4,548.79	2,563.99	3,388.72	3,105.99	5,368.68	2,985.26	2,956.11	8,636.52	3,067.06	5,611.16	3,911.16	6,255.91	6,293.34	6,040.86	3,881.62	3,559.24	4.94***
	이전수입	2,524.12	1,061.28	1,284.36	1,235.16	3,365.45	972.57	1,051.85	5,812.67	1,147.15	3,369.92	1,910.11	4,469.49	3,887.79	3,921.46	2,211.79	1,921.07	5.26***
	중앙정부	0.89	0.15	0.00	0.00	0.04	0.00	0.34	0.07	0.26	0.00	0.04	0.00	10.61	0.00	0.00	0.00	0.86
	지방자치단체	236.72	159.12	64.75	48.79	325.48	2.86	104.79	412.09	221.73	134.85	231.98	181.99	445.61	396.74	110.76	196.86	1.43
	교육비특별회계	2,200.35	885.29	1,210.91	1,172.36	2,940.26	967.10	935.31	5,140.44	888.89	3,031.99	1,639.27	4,215.68	3,327.36	3,422.91	1,908.94	1,696.36	5.33***
	기타	86.16	16.71	8.70	14.02	99.68	2.61	11.41	260.07	36.26	203.09	38.83	71.81	104.20	101.80	192.08	27.85	2.05*
	자체수입	1,645.59	1,377.66	1,880.39	1,799.49	1,602.88	1,896.02	1,836.74	1,602.39	1,555.27	1,835.51	1,863.28	1,409.70	1,898.80	1,603.17	1,585.64	1,515.93	3.73***
	학부모부담	1,601.29	1,312.03	1,840.97	1,740.76	1,553.33	1,856.64	1,795.45	1,553.05	1,520.05	1,796.29	1,839.06	1,375.72	1,852.50	1,565.02	1,506.92	1,498.21	4.13***
	행정활동	44.30	65.62	39.42	58.73	49.54	39.37	41.29	49.34	35.22	39.22	24.22	33.98	46.29	38.15	78.71	17.72	3.64***
	기타수입	379.08	125.05	223.97	71.34	400.34	116.68	67.52	1,221.45	364.65	405.74	137.77	376.72	506.76	516.23	84.20	122.24	2.12*
전년도이월금	379.08	125.05	223.97	71.34	400.34	116.68	67.52	1,221.45	364.65	405.74	137.77	376.72	506.76	516.23	84.20	122.24	2.12*	
사립	세입결산총액	9,007.67	7,055.83	8,143.46	7,806.67	8,570.48	8,135.02	8,395.74	-	7,745.30	8,326.13	10,556.42	11,520.00	12,183.47	10,566.26	9,563.58	7,781.47	8.53***
	이전수입	5,615.04	3,890.34	4,854.00	4,563.93	4,581.57	4,518.72	4,955.66	-	4,368.04	5,057.17	7,018.73	7,959.41	8,008.54	7,037.15	6,683.93	4,956.58	11.27***
	중앙정부	0.09	0.48	0.00	0.08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7
	지방자치단체	177.75	101.44	66.45	83.97	35.37	43.46	93.56	-	232.36	103.90	299.74	70.17	258.01	317.67	303.75	470.91	4.49***
	교육비특별회계	5,181.37	3,493.16	4,652.25	4,391.63	4,214.32	4,253.55	4,675.97	-	3,926.46	4,821.34	6,455.71	7,717.07	7,402.20	6,328.44	6,005.48	4,411.61	12.58***
	기타	255.83	295.27	135.30	88.25	331.89	221.71	186.13	-	209.22	131.93	263.27	172.18	348.33	391.03	374.71	74.06	1.56
	자체수입	3,096.95	3,060.10	3,149.87	3,089.14	2,861.38	3,519.12	3,380.35	-	3,054.40	2,990.64	3,275.24	3,207.66	3,305.68	2,973.75	2,762.12	2,721.67	0.84
	학부모부담	3,051.90	3,015.97	3,111.49	3,018.86	2,799.57	3,480.38	3,345.42	-	2,977.99	2,951.45	3,241.17	3,177.82	3,276.93	2,918.43	2,736.52	2,688.07	0.90
	행정활동	45.05	44.12	38.38	70.27	61.82	38.74	34.93	-	76.40	39.20	34.07	29.84	28.76	55.32	25.60	33.60	1.12
	기타수입	295.67	105.39	139.59	153.60	1,127.52	97.18	59.74	-	322.87	278.32	262.46	352.92	869.25	555.36	117.52	103.22	3.45***
전년도이월금	295.67	105.39	139.59	153.60	1,127.52	97.18	59.74	-	322.87	278.32	262.46	352.92	869.25	555.36	117.52	103.22	3.45***	

*** $p < .001$, ** $p < .01$, * $p < .05$

1) 세출결산 총액 비교

<표 9>는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과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단위학교 세출결산 총액은 27억6,021만원 수준이며,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76억157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총액으로, 사립학교의 정규직 교직원 보수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38억3,0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으로 산출하였을 때, 2013년 기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457만원,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464만원 수준으로 약 7만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세출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림 2]의 설립유형별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이후 감소해왔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였는데, 2012년까지는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가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의 학교 간 편차를 보면, 가장 적게는 175만원이며 가장 많게는 5,072만원까지 나타나 국·공립학교들 간 평균 편차가 최고 4,8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의 학교 간 편차는 가장 적게는 160만원이고 가장 많게는 2,167만원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들 간 평균 편차는 최고 2,007만원이다. 또한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표준편차가 457만원이고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표준편차는 205만원으로 국·공립학교들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의 학교들 간 편차가 사립학교들보다 더 크고 분산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2013년 기준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1.4배가량으로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으로 산출하면,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세출결산 총액과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세출결산 총액의 차이가 근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 < .05$). 또한, 학교 간 편차에서 사립 일반고등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학교들 간 비교적 고른 세출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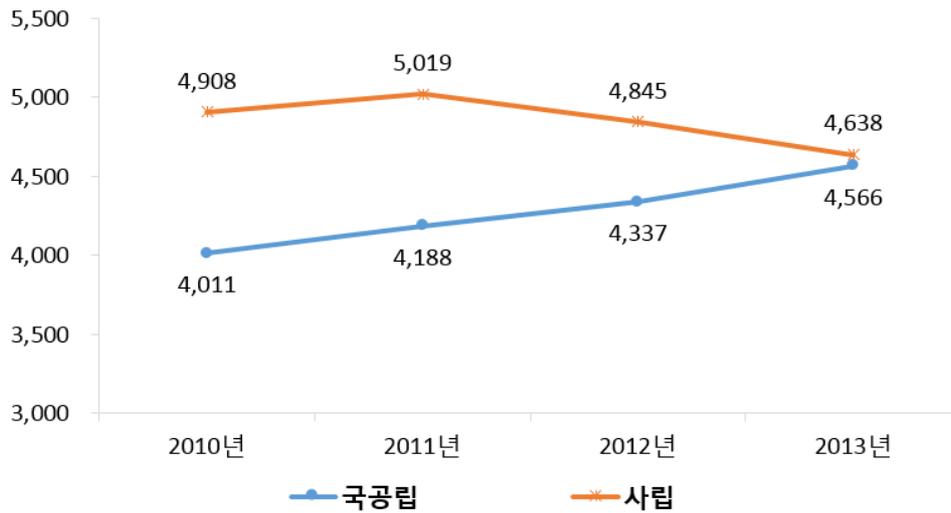
<표 11>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출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n=354)				사립(n=324)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2010	2,636,037	1,196,093	238,269	6,585,341	7,273,434	2,415,167	1,280,469	20,817,634	-
	2011	2,728,950	1,181,697	260,158	6,309,608	7,459,736	2,406,410	1,252,359	13,160,987	-
	2012	2,754,328	1,164,647	257,997	6,144,944	7,721,717	2,413,759	1,167,170	14,346,325	-
	2013	2,760,212	1,159,885	241,726	6,282,596	7,601,566	2,383,065	1,311,911	15,363,483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2010	2,626,706	1,194,052	219,185	6,585,341	4,135,433	1,790,468	424,409	16,477,848	-
	2011	2,726,476	1,181,521	260,158	6,309,608	4,258,148	1,761,502	418,824	10,267,690	-
	2012	2,753,703	1,166,081	257,997	6,144,944	4,039,519	1,440,725	370,197	11,328,468	-
	2013	2,758,595	1,160,939	241,726	6,282,596	3,830,351	1,333,008	452,190	10,020,368	-
제외 총액 1인당	2010	4,011.38	4,054.43	1,613.28	44,620.55	4,907.74	2,956.24	1,624.05	22,712.05	-3.32***
	2011	4,188.26	3,935.69	1,227.07	36,804.27	5,019.06	2,558.88	1,788.14	19,848.03	-3.28**
	2012	4,336.87	4,195.14	1,548.68	44,010.57	4,844.69	2,256.01	1,874.58	21,379.54	-2.06*
	2013	4,566.46	4,570.09	1,754.50	50,721.81	4,637.80	2,049.95	1,604.42	21,672.17	-0.28

*** $p < .001$, ** $p < .01$, * $p < .05$

(단위: 천원)



[그림 2]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2) 사업별 세출결산 비교

사업별 세출결산은 1) 인적자원 운용(교직원 보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 학생 복지/교육격차 해소, 3) 기본적 교육활동(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4) 선택적 교육활동, 5) 교육활동 지원, 6) 학교 일반운영, 7) 학교시설 확충, 8) 학교 재무활동(반환금, 예비비)의 8개의 정책사업으로 나뉜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 제 사업 비로 교직원 보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기타보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학생복

지/교육격차 해소는 급식 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생 장학지원 및 기타 학생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제 사업비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은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며, 선택적 교육활동은 표준교육활동인 아닌 방과후학교운영을 비롯한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교육활동 지원은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무업무 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에 해당하는 사업비이고, 학교 일반운영은 학교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이다.

<표 10>은 정책사업 단위에서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서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의 비율은 48.3%에서 5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표 10>에서는 인적자원 운용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정책사업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441만원이고,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4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간제나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의 인건비를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정책사업의 학생당 교육비 규모는 국·공립 일반고등학교가 사립 일반고등학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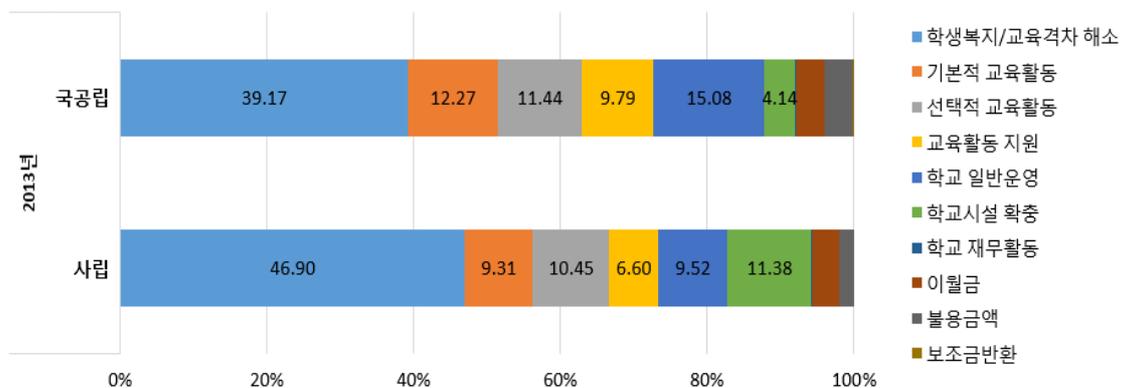
설립유형별로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7개의 정책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일반운영 비용이 15.1%를 차지하고, 이어 기본적 교육활동 12.3%, 선택적 교육활동 11.4%, 교육활동 지원 9.8%, 학교시설 확충 4.1%, 학교 재무활동 0.2%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 또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4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시설 확충이 11.4%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선택적 교육활동 10.5%, 학교 일반운영 9.5%, 기본적 교육활동 9.3%, 교육활동 지원 6.6%, 학교 재무활동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는 지속적으로 세출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적 교육활동은 비율의 증감 변화가 있지만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선택적 교육활동과 학교 일반운영은 세출금액과 비율에 있어 증감 변화가 있지만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증가하였고, 교육활동 지원의 세출금액 및 비율만 지속적으로 감소

<표 12>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사업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세출총액	4,022.95	(100.00)	4,186.38	(100.00)	4,332.75	(100.00)	4,562.70	(100.00)	
인적자원 운용	135.33	(3.36)	134.54	(3.21)	137.40	(3.17)	150.84	(3.31)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3,887.62	(100.00)	4,051.84	(100.00)	4,195.35	(100.00)	4,411.86	(100.00)	
국공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353.57	(34.82)	1,482.24	(36.58)	1,626.20	(38.76)	1,728.28	(39.17)
	기본적 교육활동	427.84	(11.01)	508.64	(12.55)	527.18	(12.57)	541.19	(12.27)
	선택적 교육활동	462.88	(11.91)	450.24	(11.11)	470.11	(11.21)	504.74	(11.44)
	교육활동 지원	445.39	(11.46)	443.24	(10.94)	436.42	(10.40)	432.07	(9.79)
	학교 일반운영	578.19	(14.87)	621.19	(15.33)	615.67	(14.68)	665.44	(15.08)
	학교시설 확충	183.13	(4.71)	147.68	(3.64)	126.09	(3.01)	182.71	(4.14)
	학교 재무활동	7.35	(0.19)	2.06	(0.05)	4.25	(0.10)	8.22	(0.19)
	이월금	145.23	(3.74)	130.85	(3.23)	142.23	(3.39)	168.68	(3.82)
	불용금액	282.88	(7.28)	261.10	(6.44)	242.33	(5.78)	172.31	(3.91)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16	(0.03)	4.59	(0.11)	4.88	(0.12)	8.23	(0.19)
세출총액	8,387.60	(100.00)	8,555.84	(100.00)	9,037.83	(100.00)	9,019.43	(100.00)	
인적자원 운용	4,047.39	(48.25)	4,282.67	(50.06)	4,572.06	(50.59)	4,821.98	(53.46)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4,340.21	(100.00)	4,273.16	(100.00)	4,465.77	(100.00)	4,197.44	(100.00)	
사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460.98	(33.66)	1,672.70	(39.14)	1,899.37	(42.53)	1,968.43	(46.90)
	기본적 교육활동	325.48	(7.50)	368.07	(8.61)	387.98	(8.69)	390.77	(9.31)
	선택적 교육활동	428.15	(9.86)	431.06	(10.09)	437.91	(9.81)	438.42	(10.45)
	교육활동 지원	226.53	(5.22)	256.08	(5.99)	267.48	(5.99)	277.17	(6.60)
	학교 일반운영	352.67	(8.13)	355.04	(8.31)	377.28	(8.45)	399.80	(9.52)
	학교시설 확충	909.11	(20.95)	787.55	(18.43)	665.54	(14.90)	477.56	(11.38)
	학교 재무활동	31.97	(0.74)	2.80	(0.07)	3.40	(0.08)	6.24	(0.15)
	이월금	205.54	(4.74)	159.41	(3.73)	202.72	(4.54)	157.17	(3.74)
	불용금액	397.95	(9.17)	238.58	(5.58)	220.18	(4.93)	79.19	(1.89)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81	(0.04)	1.88	(0.04)	3.91	(0.09)	2.68	(0.06)



[그림 3]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인적자원 운용 제외한 사업별 세출금액 비율

해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과 기본적 교육활동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교 일반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비율에 있어 증감변화가 있지만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학교시설 확충의 세출금액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재무활동은 201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비용을 설립유형 간 비교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은 국·공립학교가 173만원이고 사립학교가 197만원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24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시설 확충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30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 중 상당 부분과 학교시설 확충비용은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그 학생당 세출비용이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국·공립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15만원 더 많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7만원 가량, 교육활동 지원비는 3만원, 학교 일반운영비는 27만원 가량 국·공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인적자원 운용

<표 11>은 인적자원 운용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원기타보수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에 교직원기타보수 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연도별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적자원 운용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연수 및 맞춤형복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및 각종 행사지원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세출금액도 국·공립과 사립 모두 증가하였다.

<표 13>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인적자원 운용		135.33	182.26	134.54	186.75	137.40	209.68	150.84	236.08
	교직원 보수	105.46	132.46	106.35	146.51	13.88	69.12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9.88	70.43	28.20	58.59	34.16	92.39	34.39	65.41	
	교직원 기타보수	-	-	-	-	89.36	141.54	116.45	194.96	
사립	인적자원 운용		4,047.39	1,627.05	4,282.67	1,546.07	4,572.06	1,649.55	4,821.98	1,756.35
	교직원 보수	4,010.60	1,612.69	4,247.41	1,537.08	3,583.27	2,126.00	3,995.37	2,028.94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6.79	44.19	35.26	33.81	36.63	31.85	38.12	36.56	
	교직원 기타보수	-	-	-	-	952.16	1,490.16	788.50	1,262.64	

<표 14>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인적자원 운용		150.84	151.87	103.17	62.93	194.57	59.84	76.29	288.42	96.00	126.60	81.58	355.64	226.68	146.54	114.99	114.92	3.30***
국공립	교직원 보수	-	-	-	-	-	-	-	-	-	-	-	-	-	-	-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4.39	19.03	12.73	9.65	42.04	11.13	24.26	86.04	44.22	41.74	18.07	29.41	28.23	23.35	17.48	14.97	2.69***
	교직원 기타보수	116.45	132.84	90.44	53.28	152.53	48.71	52.03	202.37	51.78	84.86	63.51	326.23	198.44	123.19	97.51	99.95	4.09***
인적자원 운용		4,821.98	4,168.31	4,957.44	4,357.93	4,346.25	4,195.24	4,569.80	-	4,187.26	4,142.41	5,574.37	6,408.16	6,194.08	4,914.35	5,128.32	3,698.84	5.74***
사립	교직원 보수	3,995.37	3,035.84	4,810.58	3,091.32	3,946.45	3,756.26	4,143.95	-	3,489.05	2,801.33	5,069.87	5,357.88	4,949.76	4,090.21	4,450.71	3,356.22	4.62***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8.12	56.47	11.50	12.46	8.95	16.10	20.96	-	38.09	9.97	22.73	62.85	13.64	89.12	15.31	17.23	25.72***
	교직원 기타보수	788.50	1,076.01	135.35	1,254.15	390.85	422.88	404.90	-	660.12	1,331.11	481.77	987.44	1,230.69	735.01	662.30	325.39	1.82*

*** $p < .001$, ** $p < .01$, * $p < .05$

<표 12>는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로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사업의 세출금액의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적자원 운용 총액 및 단위사업의 세출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대한 시·도 간 차이를 보면 전라북도가 53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507만원으로 높고, 전라남도 495만원, 부산광역시 481만원, 경상남도 445만원 순이며, 충청북도가 28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간 격차가 256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비용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9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광역시가 1만원 미만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경상북도가 9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가 1만원 미만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간제 및 계약직 교직원과 행정 대체인력의 보수에 해당하는 교직원 기타보수는 국·공립의 경우 전라북도가 33만원 가량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5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다. 사립의 경우 충청북도가 133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14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기타보수의 전체 세출총액에서 국·공립은 12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사립은 79만원 수준으로 사립 일반고등학교가 기간제 또는 계약직 교직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표 13>은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급식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 관리, 교육격차 해소의 네 개의 단위사업의 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장학지원과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의 두 단위사업 비용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급식관리와 기숙사 관리,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의 세 단위사업의 지출비용은 증가하였지만, 보건 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생 장학지원의 단위사업 지출비용은 증가하다가 2012년과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총액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세출총액이 더 크며, 평균차이 검증결과 2010년에는 국·공립과 사립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4]는 2013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급식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9.5%, 67.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격차 해소 비용의 비율이 각각 17.3%, 18.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학교는 기숙사 관리 비용의 비율이 5.5%로 세 번째로 높으며,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4.8%, 보건관리 2.3%, 학생 장학 지원 0.7%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비용의 비율이 6.6%로 세 번째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숙사 관리 4.7%, 보건관리 1.4%, 학생 장학 지원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353.57	765.14	1,482.24	820.51	1,626.20	912.51	1,728.28	1,125.67	
국공립	급식 관리	967.37	492.56	1,016.52	539.03	1,086.79	633.21	1,201.54	881.29
	기숙사 관리	69.48	190.31	88.79	219.95	91.80	242.29	94.14	214.29
	보건 관리	31.72	70.95	36.85	64.39	39.78	82.73	39.21	98.00
	교육격차 해소	201.39	308.91	237.60	283.85	282.97	284.68	298.71	269.06
	학생 장학 지원	12.63	39.39	12.92	37.75	15.29	53.01	12.45	40.10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70.97	46.98	89.57	61.50	109.58	112.06	82.23	87.1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460.98	757.09	1,672.70	778.17	1,899.37	845.81	1,968.43	913.79	
사립	급식 관리	1,017.18	500.85	1,121.06	496.30	1,249.52	560.07	1,332.44	624.12
	기숙사 관리	60.70	136.13	74.61	160.62	84.82	185.00	91.75	195.65
	보건 관리	20.07	10.95	26.17	20.71	25.78	14.41	26.60	11.93
	교육격차 해소	244.76	189.61	308.11	226.35	392.81	356.75	370.36	325.44
	학생 장학 지원	32.49	218.15	33.32	222.14	17.66	42.38	17.05	43.47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85.79	85.62	109.43	103.79	128.78	111.62	130.22	116.13
t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89	-3.18**	-4.14***	-3.16**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4]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단위사업비 비율

<표 14>는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 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총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단위사업들 중 국·공립의 보건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는 두 설립유형의 모든 단위사업 비용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총액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강원도가 297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0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188만원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단위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 관리 비용도 강원도가 187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7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인 교육격차 해소 비용은 전라남도가 71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55만원으로 높으며, 충청남도가 17만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18만원, 대전광역시가 20만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총액은 전라북도가 24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천광역시가 13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지역 간 편차는 108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이나 국·공립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단위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급식 관리 비용은 충청남도가 174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0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격차 해소 비용은 사립의 경우 전라북도가 57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1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과 단위사업의 세출금액이 도 단위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 기본적 교육활동/선택적 교육활동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하기 위한 교과활동비와 창의적 체험활동비로 구성된다. 선택적 교육활동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운영비, 선택적 직업교육에 소용되는 비용,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관련 국제교육비,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활동비, 전문적인 운동부나 기악부 운영 및 육성을 위한 교육육성비, 기타 영재교육 운영 또는 위탁교육비에 속하는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비가 포함된다.

<표 15>는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

<표 16>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728.28	1,086.08	1,520.31	1,470.12	1,793.76	1,504.39	1,249.65	2,971.09	1,148.91	2,119.94	1,803.59	1,966.03	2,424.08	1,877.69	1,961.06	1,442.08	8.77***
국공립	급식 관리	1,201.54	695.79	1,107.61	1,012.54	1,442.30	1,138.53	987.69	1,870.31	865.55	1,531.05	1,325.89	1,305.57	1,466.19	1,211.77	1,380.90	970.97	4.33***
	기숙사 관리	94.14	0.00	69.18	90.75	0.00	27.08	0.00	345.20	23.91	158.08	169.10	154.78	123.39	177.63	38.52	95.97	7.46***
	보건 관리	39.21	24.22	31.13	26.63	91.93	52.17	23.57	66.80	26.96	36.53	27.55	44.69	29.61	46.23	35.33	27.97	1.09
	교육격차 해소	298.71	258.12	208.21	257.76	180.56	208.74	197.45	547.72	201.69	291.43	174.26	326.82	713.41	247.10	363.23	268.86	13.49***
	학생 장학 지원	12.45	43.76	3.08	1.45	0.28	0.02	1.40	18.45	3.33	0.67	10.31	27.09	13.86	44.63	2.41	4.88	4.28***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82.23	64.19	101.10	80.98	78.71	77.85	39.55	122.62	27.46	102.18	96.48	107.08	77.61	150.33	140.66	73.43	7.18***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968.43	1,574.05	1,480.18	1,620.23	1,383.93	2,133.24	1,882.49	-	1,733.44	1,802.89	2,367.17	2,461.81	2,441.63	2,345.48	2,338.82	1,646.01	5.05***
사립	급식 관리	1,332.44	1,028.66	1,101.91	1,081.28	1,063.33	1,438.95	1,259.39	-	1,068.54	1,258.48	1,741.76	1,555.55	1,622.23	1,661.56	1,660.57	1,000.06	6.16***
	기숙사 관리	91.75	14.66	2.23	74.39	32.90	66.66	0.00	-	81.74	85.62	270.24	123.67	149.40	125.40	183.87	89.56	3.85***
	보건 관리	26.60	21.78	25.59	25.58	26.84	24.63	22.28	-	23.89	23.56	27.39	34.42	19.33	36.20	32.21	21.37	6.29***
	교육격차 해소	370.36	380.53	262.50	282.80	191.98	364.84	524.93	-	419.62	330.63	221.40	573.66	506.03	276.03	322.04	431.85	2.73**
	학생 장학 지원	17.05	34.00	1.88	11.43	0.64	0.21	2.47	-	18.17	2.28	6.20	1.64	19.34	44.36	6.91	6.98	3.4***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130.22	94.43	86.07	144.74	68.24	237.95	73.43	-	121.49	102.32	100.19	172.88	125.29	201.94	133.21	96.18	4.32***

*** $p < .001$, ** $p < .01$, * $p < .05$

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사업으로 교과활동은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2012년까지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1년에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가 더 높았으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으로 가장 비중이 큰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증감 변화가 교차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2013년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은 교기육성이며, 교기육성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1년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해왔으나 2013년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감소되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가 더 높았으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2013년도만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대부분 교과강좌 중심으로 개설되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보충 및 연속적 개념이 커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최근 교과 중심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재정투입은 감소하는 반면, 독서활동과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과 같은 다양한 학생활동에 지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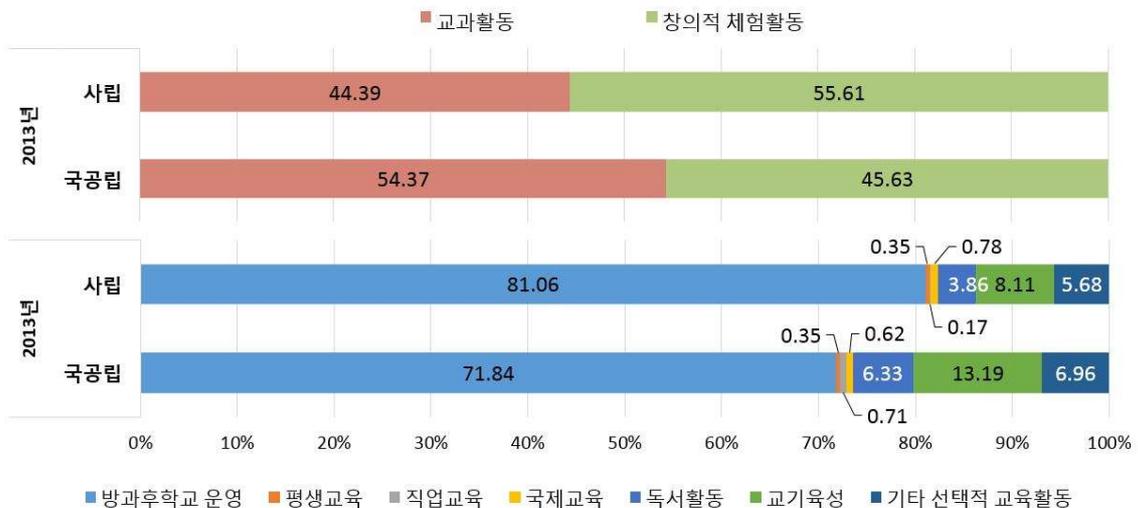
[그림 5]는 2013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각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인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은 국·공립과 사립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총액에서 교과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4.4%로 창의적 체험활동보다 더 높는데 반하여,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이 55.6%로 교과활동보다 더 높다.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이 71.8%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교기육성이 13.2%,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7%, 독서활동 6.3%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방과후학교 운영이 8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기육성 8.1%,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7%, 독서활동 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기본적 교육활동		427.84	497.41	508.64	595.28	527.18	618.29	541.19	551.06
	교과 활동		210.52	336.01	291.73	475.76	305.26	500.41	294.25	391.92
	창의적 체험활동		217.32	209.69	216.92	176.04	221.92	191.85	246.94	267.79
사립	기본적 교육활동		325.48	198.65	368.07	196.77	387.98	214.93	390.77	202.97
	교과 활동		115.03	147.95	167.51	160.65	176.02	167.61	173.46	149.27
	창의적 체험활동		210.45	123.26	200.56	85.50	211.96	97.01	217.31	96.84
<i>t</i>	기본적 교육활동		3.73***		4.39***		4.16***		5.00***	
국공립	선택적 교육활동		462.88	361.44	450.24	421.76	470.11	437.29	504.74	564.96
	방과후학교 운영		374.29	303.71	354.41	339.89	344.25	354.60	362.61	474.82
	평생교육		3.01	12.68	4.43	35.59	3.85	34.88	1.75	10.60
	직업교육		2.27	7.95	1.76	6.86	2.59	17.68	3.56	19.10
	국제교육		2.95	12.20	2.01	8.06	2.39	8.22	3.15	19.89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24.31	33.64	31.96	48.93
	교기육성		42.90	93.67	56.50	219.05	59.32	200.27	66.59	232.55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37.44	138.40	31.13	98.42	33.40	114.59	35.13	121.22
사립	선택적 교육활동		428.15	212.05	431.06	200.08	437.91	215.95	438.42	224.15
	방과후학교 운영		369.69	182.26	372.31	183.24	355.35	180.50	355.40	181.93
	평생교육		2.05	15.74	1.29	13.22	1.52	12.84	1.52	18.15
	직업교육		1.58	4.93	1.07	4.46	0.81	5.52	0.75	2.57
	국제교육		2.78	11.87	2.65	10.75	3.18	11.87	3.40	11.99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15.93	21.58	16.90	21.74
	교기육성		24.03	55.05	26.80	52.95	34.18	67.37	35.56	64.87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28.01	78.70	26.95	67.43	26.94	86.11	24.89	85.63
<i>t</i>	선택적 교육활동		1.6		0.8		1.28		2.13*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5]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단위사업비 비율

<표 16>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총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든 단위사업 비용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 또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전라북도가 106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29만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편차는 77만원이다. 단위사업으로 교과활동도 전라북도가 7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특별시가 1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강원도가 4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광주광역시가 1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은 경상북도가 57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32만원이다. 단위사업으로 교과활동은 경상북도가 57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8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라남도가 28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일반고등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과 단위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국·공립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설립유형별로 학생 1인당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는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위사업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독서교육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직업교육과 교기육성의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의 시도 간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국제교육,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95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9만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편차는 76만원이다. 단위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강원도가 7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특별시가 13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에서 전라남도가 6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울특별시가 26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단위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비용 또한 전라남도가 51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21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과 단위사업의 세출금액이 도 단위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8>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기본적 교육활동	541.19	306.04	371.32	438.79	735.66	289.57	407.51	857.52	311.77	748.34	501.17	1,057.01	787.08	653.51	423.74	574.65	5.7***
	교과 활동	294.25	124.33	193.35	242.01	417.64	128.23	215.45	442.95	139.58	382.34	275.00	716.92	495.57	396.13	220.22	228.46	5.34***
	창의적 체험활동	246.94	181.70	177.96	196.78	318.02	161.34	192.06	414.58	172.19	366.00	226.16	340.09	291.51	257.38	203.52	346.19	2.7***
사립	기본적 교육활동	390.77	274.26	342.79	351.65	364.32	262.05	444.66	-	245.11	404.65	456.72	525.46	521.94	566.33	407.34	511.05	11.21***
	교과 활동	173.46	85.55	120.95	118.96	160.62	107.84	229.22	-	75.48	182.28	180.49	274.86	238.95	327.91	196.08	274.83	12.09***
	창의적 체험활동	217.31	188.71	221.84	232.69	203.71	154.20	215.44	-	169.63	222.38	276.23	250.61	283.00	238.42	211.26	236.22	3.86***
선택적 교육활동		504.74	194.14	477.84	496.52	610.53	448.30	521.67	945.04	304.27	624.38	499.23	856.91	598.38	631.76	367.13	402.48	4.38***
국·공립	방과후학교 운영	362.61	133.10	364.92	369.02	518.21	374.88	434.97	731.17	159.90	484.01	349.72	625.62	406.80	444.56	268.45	270.35	4.62***
	평생교육	1.75	0.61	4.65	2.15	0.86	0.64	0.62	1.28	2.05	0.37	0.61	0.00	8.12	0.00	0.30	2.28	1.1
	직업교육	3.56	5.15	0.06	0.20	2.55	3.84	5.84	5.49	2.37	1.67	18.50	0.20	0.18	3.94	0.00	0.00	1.57
	국제교육	3.15	2.75	1.16	0.00	2.20	0.00	0.00	0.56	3.45	9.18	2.59	0.70	13.50	1.43	0.27	6.42	0.88
	독서교육	31.96	11.61	13.35	24.38	30.17	16.37	15.11	44.49	27.08	29.41	21.50	55.03	52.70	53.62	38.29	28.80	2.26**
	교기육성	66.59	4.05	24.23	90.54	44.62	51.27	42.72	130.62	91.46	61.65	87.30	52.28	60.75	68.85	35.42	49.98	0.55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35.13	36.86	69.48	10.24	11.93	1.28	22.41	31.42	17.96	38.08	19.01	123.07	56.32	59.38	24.39	44.65	1.33
선택적 교육활동		438.42	257.27	441.78	537.64	379.64	479.50	545.99	-	329.33	513.01	445.28	506.97	605.82	549.29	478.50	427.33	8.29***
사립	방과후학교 운영	355.40	214.51	405.53	429.20	281.03	417.85	469.15	-	238.22	420.16	359.21	408.85	514.74	431.09	365.77	330.94	9.68***
	평생교육	1.52	0.35	0.03	18.97	0.87	0.04	0.86	-	0.37	0.38	2.59	0.10	1.27	0.37	0.00	0.82	1.4
	직업교육	0.75	0.79	0.77	1.76	0.80	3.41	4.07	-	0.27	0.20	0.00	0.20	0.07	0.36	0.00	0.00	4.72***
	국제교육	3.40	2.62	1.13	0.16	6.84	2.21	4.52	-	6.47	2.11	3.18	0.99	0.17	3.56	9.94	0.28	1.35
	독서교육	16.90	8.34	9.35	10.63	1.55	30.60	25.20	-	14.24	13.27	22.03	23.43	15.50	18.20	30.24	26.04	3.6***
	교기육성	35.56	12.96	9.86	54.61	41.25	18.15	26.92	-	48.98	67.14	44.68	67.24	23.94	48.16	22.81	61.85	2.38**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24.89	17.69	15.11	22.31	47.29	7.24	15.29	-	20.79	9.76	13.59	6.16	50.14	47.56	49.73	7.42	0.87

*** $p < .001$, ** $p < .01$, * $p < .05$

라) 교육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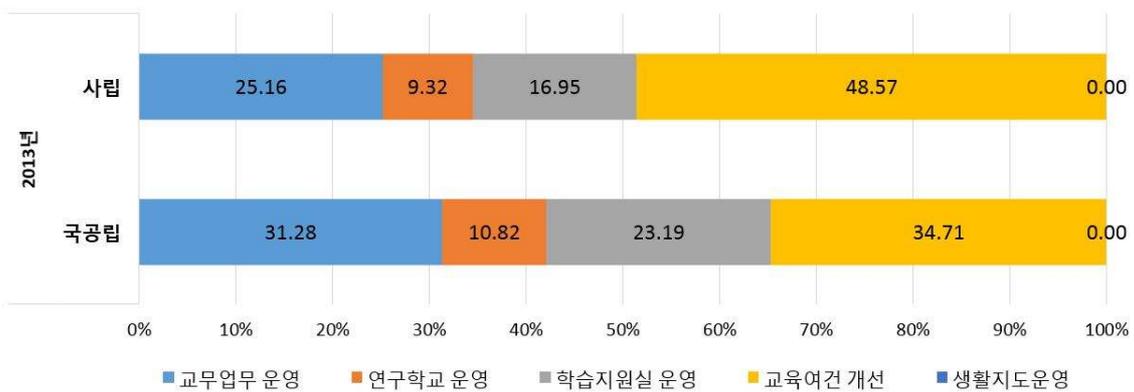
교육활동 지원비는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무업무 운영비와 생활지도운영비, 연구학교 운영비, 방송실과 학교상담실, 정보화실, 공동실습소 운영 제 사업비에 해당하는 학습지원실 운영비,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인 교육여건 개선비가 포함된다. <표 17>은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교육활동 지원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가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데,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에 반하여,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도에서 국·공립의 교육활동 지원 금액이 사립보다 높으며, 설립유형 간 금액의 평균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립의 경우 증감의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교무업무 운영비용은 2010년 대비 2013년도 증가한 결과로 나타나며, 나머지 단위사업의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2013년도에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교무업무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의 두 단위사업에서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연구학교 운영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대비 2013년 금액은 더 크고, 학습지원실 운영은 증감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대비 2013년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교육활동 지원	445.39	772.39	443.24	579.10	436.42	945.72	432.07	695.26
	교무업무 운영	105.74	194.16	103.12	169.03	105.38	143.04	135.16	222.35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70.53	255.45	59.70	164.43	74.83	498.69	46.73	142.03
	학습지원실 운영	112.76	172.29	129.30	222.62	109.24	274.46	100.20	209.88
	교육여건 개선	156.37	531.39	151.11	276.97	146.96	327.51	149.98	391.45
사립	교육활동 지원	226.53	238.22	256.08	246.11	267.48	317.23	277.17	325.39
	교무업무 운영	54.33	69.69	56.61	60.60	60.42	44.92	69.73	55.25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17.72	63.93	27.54	83.90	26.46	122.46	25.83	80.94
	학습지원실 운영	58.52	60.53	64.81	62.50	46.03	43.32	46.99	41.35
	교육여건 개선	95.96	187.67	107.12	209.41	134.56	275.81	134.62	287.27
<i>t</i>	교육활동 지원	5.31***		5.79***		3.31***		3.92***	

*** $p<.001$, ** $p<.01$, * $p<.05$

[그림 6]은 2013년 기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지원 활동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 중 교육여건 개선이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무업무 운영이 31.3%이고, 학습지원실 운영 23.2%, 연구학교 운영 10.8% 순이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단위사업의 비중 순서는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교육여건 개선이 4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무업무 운영 25.2%, 학습지원실 운영 17%, 연구학교 운영 9.3% 순이다.



[그림 6]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 단위사업비 비율

<표 18>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는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위사업에서는 사립의 연구학교 운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 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지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9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두 지역 간 편차는 국·공립의 경우 74만원이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경상북도가 5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6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37만원으로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이 국·공립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국·공립의 경우 전라남도가 5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대구광역시가 3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경상북도가 3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5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무업무 운영은 국·공립의 경우 강원도가 4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표 20>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교육활동 지원		432.07	188.29	360.16	227.91	444.52	227.48	230.82	927.99	192.11	681.10	245.15	558.36	738.10	906.20	299.06	436.93	4.77***
국·공립	교무업무 운영	135.16	61.08	138.13	101.17	76.08	128.90	67.36	429.53	66.26	166.16	77.82	68.98	107.34	262.23	176.07	141.21	8.01***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연구학교 운영	46.73	26.15	66.57	34.99	88.85	11.94	15.55	87.96	16.29	69.74	32.37	42.29	30.13	149.51	9.45	39.39	2.17**
	학습지원실 운영	100.20	46.33	64.41	63.33	196.35	40.82	58.52	193.19	50.29	180.90	75.20	143.66	83.85	210.71	36.91	81.71	2.75***
	교육여건 개선	149.98	54.74	91.05	28.42	83.23	45.82	89.38	217.31	59.27	264.31	59.76	303.42	516.78	283.74	76.62	174.62	3.62***
교육활동 지원		277.17	162.77	179.42	266.45	180.77	200.43	294.68	-	192.26	439.92	223.80	333.42	411.35	527.78	261.81	273.30	3.78***
사립	교무업무 운영	69.73	53.77	59.71	70.95	32.54	54.70	66.94	-	46.90	75.91	52.32	90.00	47.30	117.09	108.49	60.18	6.41***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연구학교 운영	25.83	20.50	16.01	46.83	27.67	26.33	6.14	-	37.13	41.25	22.43	32.60	12.95	39.70	2.28	43.66	0.63
	학습지원실 운영	46.99	35.02	33.63	80.83	47.86	35.54	59.13	-	33.18	51.28	45.38	48.34	58.41	71.94	36.57	44.43	3.71***
	교육여건 개선	134.62	53.47	70.06	67.85	72.70	83.86	162.48	-	75.06	271.48	103.67	162.47	292.69	299.04	114.47	125.03	2.61**

*** $p < .001$, ** $p < .01$, * $p < .05$

6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사립의 경우 경상북도가 12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학습지원실 운영은 국·공립의 경우 경상북도가 21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가 4만원 가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대구광역시가 8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3만원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 학교 일반운영/학교시설 확충

학교 일반운영비는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로 부서기본운영비, 학교의 시설 유지에 따르는 공공요금 및 체세, 연료비 등 기본적 경비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지원인력운용 및 일반행정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행정 관리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또는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학교운영 협력비,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학부모 지원비가 포함된다. 학교시설 확충비는 대규모 수선 및 교실 증개축 등 시설 사업비에 해당한다.

<표 19>는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과 학교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학교 일반운영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세출 총액과 단위사업으로 시설 장비 유지와 학부모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은 국·공립의 경우 감소하다가 2013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일반행정 관리와 학교운영 협력은 증감의 변화가 교차하여 일어나며, 일반행정 관리는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2010년 대비 2013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학교운영 협력은 2010년 대비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확충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감소해오다가 2013년에 증가하였고,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평균을 비교해보면,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가 더 높고, 학교시설 확충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사립 일반고등학교가 더 높으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2013년 기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단위사업의 비중 순서는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가 동일하게 시설 장비 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 관리, 부서 기본 운영, 학교운영 협력, 학부모 지원 순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시설 장비 유지가 54%, 일반행정 관리 23.3%, 부서 기본 운영 21.5%, 학

교운영 협력 0.7%, 학부모 지원 0.5%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시설 장비 유지가 60.4%, 일반행정 관리 24.1%, 부서 기본 운영 14.3%, 학교운영 협력 0.7%, 학부모 지원 0.5%로 나타났다.

<표 21>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교 일반운영	578.19	874.74	621.19	1,122.75	615.67	900.13	665.44	960.36	
국공립	부서 기본 운영	149.38	308.63	137.79	267.45	131.36	243.11	142.72	296.77
	시설 장비 유지	270.60	370.47	324.45	646.12	337.16	560.06	359.30	484.62
	일반행정 관리	151.55	334.90	152.77	358.31	139.69	172.45	155.21	254.96
	학교운영 협력	6.65	15.11	4.55	9.94	5.14	17.35	4.94	19.41
	학부모 지원	0.00	0.06	1.64	5.30	2.33	4.33	3.27	7.67
학교시설 확충	183.13	758.40	147.68	449.00	126.09	425.21	182.71	1,015.30	
학교 일반운영	352.67	195.51	355.04	183.50	377.28	169.03	399.80	197.25	
사립	부서 기본 운영	72.65	110.08	60.74	72.11	57.62	43.47	57.06	38.47
	시설 장비 유지	190.38	123.91	207.12	125.81	228.56	120.65	241.60	130.73
	일반행정 관리	83.54	79.29	83.45	57.67	87.03	64.05	96.48	82.05
	학교운영 협력	6.09	33.51	2.53	5.19	2.42	8.24	2.81	10.22
	학부모 지원	0.00	0.03	1.20	2.57	1.65	2.10	1.85	2.59
학교시설 확충	909.11	1,563.66	787.55	1,337.72	665.54	1,035.22	477.56	827.89	
<i>t</i> 학교 일반운영	4.95***		4.61***		5.12***		5.33***		
학교시설 확충	-7.7***		-8.3***		-8.86***		-4.29***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7]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 단위사업비 비율

<표 20>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과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학교 일반운영과 단위사업의 평균차이 검증결과,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

당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과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의 학생 1인당 비용,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비용, 학부모 지원의 학생 1인당 비용에서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위사업 중 일반행정 관리와 학교운영 협력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일반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강원도가 133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32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01만원이다.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강원도가 35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4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도 강원도가 7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광주광역시가 1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일반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충청남도가 55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9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25만원으로, 학교 일반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가 사립 일반고등학교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립의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전라남도가 10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3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전라북도가 3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17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으로 시설확충 및 개선의 학생 1인당 비용의 시도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의 세출금액은 강원도가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1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44만원 수준이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의 세출금액은 인천광역시가 116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7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지역 간 편차는 99만원으로 국·공립의 경우보다 큰 편차를 보였다.

바) 학교 재무활동/이월금/불용액/보조금 반환 확정금액

학교 재무활동은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반환금과 불용액등은 학교가 재정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표 21>은 학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과 예비비, 이월금, 불용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의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예비비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없거나 2011년도에 사립학교에 매우 적은 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표 22>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학교 일반운영	665.44	426.70	397.27	323.98	963.59	359.45	325.00	1,326.72	388.74	903.02	578.37	984.59	847.38	1,036.03	471.00	452.80	3.38***
	부서 기본 운영	142.72	43.21	57.20	38.97	189.57	58.39	36.65	345.31	56.30	239.07	107.40	263.27	242.35	253.82	92.08	120.43	3.62***
	시설 장비 유지	359.30	234.85	218.53	208.23	470.42	159.27	172.11	707.02	210.94	497.76	286.61	509.73	481.82	603.79	266.96	261.42	3.89***
	일반행정 관리	155.21	145.79	118.57	72.18	296.97	138.19	113.29	257.34	117.74	151.31	167.35	199.76	113.22	166.94	103.64	64.53	1.60
	학교운영 협력	4.94	2.08	1.66	2.14	6.10	1.35	2.09	7.82	1.28	11.22	13.87	8.11	8.02	3.98	4.25	2.69	1.08
	학부모 지원	3.27	0.76	1.31	2.46	0.53	2.25	0.86	9.23	2.48	3.66	3.13	3.72	1.96	7.49	4.08	3.72	3.15***
학교시설 확충 - 시설확충 및 개선		182.71	63.48	15.18	12.40	387.78	15.68	53.94	451.77	285.55	33.91	83.01	22.25	22.96	259.02	129.58	23.84	0.59
사립	학교 일반운영	399.80	334.31	331.81	331.23	337.13	370.08	394.37	-	375.13	351.60	545.96	487.83	512.57	445.29	410.01	293.29	3.51***
	부서 기본 운영	57.06	43.30	34.60	46.33	56.03	47.74	46.13	-	50.58	45.87	87.43	50.29	102.61	73.48	61.55	61.55	6.83***
	시설 장비 유지	241.60	188.10	191.69	216.88	197.06	194.76	240.41	-	215.65	211.09	316.76	332.01	311.02	285.21	259.00	166.48	4.57***
	일반행정 관리	96.48	100.64	103.85	63.11	82.98	123.94	104.34	-	102.77	91.02	133.84	102.02	93.64	77.98	84.01	59.75	1.06
	학교운영 협력	2.81	1.27	0.69	1.94	0.62	1.39	2.85	-	5.39	2.36	3.83	1.81	3.64	6.01	2.04	1.43	0.78
	학부모 지원	1.85	0.99	0.98	2.97	0.44	2.24	0.65	-	0.73	1.26	4.11	1.69	1.66	2.61	3.40	4.09	5.32***
학교시설 확충 - 시설확충 및 개선		477.56	170.28	315.05	268.07	1,161.07	239.25	222.33	-	401.48	285.14	687.24	638.98	913.18	883.11	466.40	438.53	3.09***

***p<.001, **p<.01, *p<.05

에 7천원, 2011년에 2천원, 2012년 4천원, 2013년 8천원이며,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3만2천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3천원, 2012년 3천원, 2013년 6천원으로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28만원이었으며, 매년 불용액 규모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1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40만원이었고, 매년 규모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반환확정금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2010년 1천원이었고, 매년 약간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8천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2010년 2천원이었고, 2013년에는 3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환금 및 불용액 규모가 감소한 것을 통해서 학교들이 효율적으로 재정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표 23>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재무활동 세출금액 및 이월금, 불용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학교 재무활동	7.35	115.48	2.06	16.36	4.25	20.56	8.22	35.05
	반환금	7.35	115.48	2.06	16.36	4.25	20.56	8.22	35.05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립	학교 재무활동	31.97	543.19	2.80	13.29	3.40	11.58	6.24	26.62
	반환금	31.97	543.19	2.77	13.28	3.40	11.58	6.24	26.62
	예비비	0.00	0.00	0.02	0.42	0.00	0.00	0.00	0.00
<i>t</i>	학교 재무활동	-0.87		-0.65		0.67		0.84	
국공립	이월금	145.23	552.71	130.85	517.96	142.23	798.09	168.68	574.02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1.19	15.21	0.45	8.01	0.00	0.00	1.12	15.67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125.22	536.60	121.81	516.36	136.30	797.90	125.72	454.28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18.82	128.99	8.60	55.59	5.93	31.67	41.84	202.21
	불용액	282.88	804.00	261.10	598.59	242.33	509.86	172.31	530.63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16	7.36	4.59	45.90	4.88	21.59	8.23	59.03
사립	이월금	205.54	504.63	159.41	338.91	202.72	570.77	157.17	529.39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4.02	37.42	1.78	22.62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145.44	434.33	100.15	245.32	162.93	490.21	120.62	460.86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56.08	273.08	57.48	247.05	39.79	228.85	36.55	210.74
	불용액	397.95	1,097.57	238.58	474.80	220.18	461.52	79.19	94.40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81	10.07	1.88	7.94	3.91	16.39	2.68	10.49
<i>t</i>	이월금	-1.52		-0.86		-1.15		0.28	
	불용액	-1.58		0.55		0.61		3.4***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01		1.15		0.67		1.82	

*** $p < .001$, ** $p < .01$, * $p < .05$

<표 22>는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재무활동 및 이월금, 불용액을 시·도교육청 간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 불용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에서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가 학생 1인당 평균 1만원 이상이며, 그 외의 지역들은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충청남도가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3개 지역이 평균 1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53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 27만원, 경상북도 25만원,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23만원, 인천광역시 16만원, 경기도 14만원이며, 그 외의 지역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가 2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15만원, 제주특별자치도 11만원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반환확정금액은 국·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7만원 가까이 되며, 그 외의 지역은 없거나 1만원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2만원 가까이 되며, 그 외의 지역은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3) 성질별 세출결산 비교

성질별 세출결산은 1) 인건비(교직원, 계약직 교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의 보수), 2) 운영비(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자산취득비(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 경비이며 시설비 포함), 4)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및 목적사업비(국고) 반환 경비, 타학교회계 등으로의 전출 자금)의 4개의 성질비목으로 나뉜다.

<표 23>은 성질별 세출결산에서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7%에서 15.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7.9%에서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 23>에서는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성질비목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표 24>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재무활동 세출금액 및 이월금, 불용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학교 재무활동	8.22	14.63	0.08	0.15	0.00	0.00	0.01	38.13	9.33	2.55	0.31	0.03	1.47	18.93	0.04	0.00	2.95***
	반환금	8.22	14.63	0.08	0.15	0.00	0.00	0.01	38.13	9.33	2.55	0.31	0.03	1.47	18.93	0.04	0.00	2.95***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사립	학교 재무활동	6.24	14.22	0.01	0.00	0.00	2.96	0.00	-	2.24	12.15	21.23	7.06	8.43	1.05	2.27	0.11	1.53
	반환금	6.24	14.22	0.01	0.00	0.00	2.96	0.00	-	2.24	12.15	21.23	7.06	8.43	1.05	2.27	0.11	1.53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이월금		168.68	77.91	79.96	31.53	92.93	13.57	38.41	321.41	201.95	91.31	82.34	240.92	416.87	263.06	29.40	25.99	1.12
국·공립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1.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15	0.00	0.00	1.97*
	다음년도명사이월금액	125.72	72.04	79.96	31.53	90.87	13.57	38.41	305.75	74.66	43.35	81.52	234.93	334.90	235.72	23.95	25.99	1.45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41.84	5.87	0.00	0.00	2.07	0.01	0.00	15.65	127.29	47.96	0.82	5.99	81.97	11.19	5.45	0.00	1.91*
불용액		172.31	61.46	83.55	45.24	155.01	69.11	54.77	529.49	142.04	274.27	39.13	228.17	233.65	250.50	68.10	97.74	1.75*
보조금반환확정금액		8.23	4.51	0.00	0.00	0.04	0.04	0.00	66.05	7.79	1.04	0.00	0.01	2.61	0.00	0.00	3.65	2.80***
사립	이월금	157.17	50.36	54.57	42.65	13.17	222.51	14.79	-	202.77	318.43	202.89	80.15	498.43	287.47	36.36	423.51	1.78*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다음년도명사이월금액	120.62	46.06	49.96	37.42	12.48	190.34	14.79	-	123.24	304.98	199.89	67.92	457.52	124.15	32.61	373.59	1.70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36.55	4.30	4.61	5.23	0.69	32.18	0.00	-	79.54	13.45	3.01	12.24	40.91	163.32	3.75	49.92	1.58
	불용액	79.19	66.08	60.24	55.17	195.80	59.63	97.14	-	79.89	68.17	76.05	97.92	151.70	56.27	62.10	105.62	2.85***
보조금반환확정금액		2.68	1.16	0.00	0.00	4.11	0.00	0.00	-	1.29	3.49	9.20	4.51	1.18	4.06	3.74	16.32	2.16*

*** $p < .001$, ** $p < .01$, * $p < .05$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381만원이고,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403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성질비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전체의 7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11.8%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0.7%이고,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이며, 불용액의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 또한 운영비가 7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취득비가 16.3%를 차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의 비율은 3.9%이고, 불용액의 규모는 2%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5>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성질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국·공립	세출총액	3,380.57	(100.00)	3,917.88	(100.00)	4,367.86	(100.00)	4,554.47	(100.00)
	인건비	396.82	(11.74)	527.14	(13.45)	668.00	(15.29)	742.69	(16.31)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2,983.75	(100.00)	3,390.74	(100.00)	3,699.86	(100.00)	3,811.77	(100.00)
	운영비	2,176.76	(72.95)	2,547.10	(75.12)	2,867.39	(77.50)	2,993.52	(78.53)
	자산취득비	353.62	(11.85)	433.33	(12.78)	422.77	(11.43)	451.04	(11.83)
	예비비및기타	26.79	(0.90)	18.36	(0.54)	25.14	(0.68)	26.22	(0.69)
	이월금	143.71	(4.82)	130.85	(3.86)	142.23	(3.84)	168.68	(4.43)
	불용액	282.88	(9.48)	261.10	(7.70)	242.33	(6.55)	172.31	(4.52)
	세출총액	7,749.05	(100.00)	7,613.88	(100.00)	9,032.59	(100.00)	9,016.65	(100.00)
	인건비	3,710.17	(47.88)	3,867.30	(50.79)	4,701.73	(52.05)	4,986.48	(55.30)
사립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4,038.88	(100.00)	3,746.58	(100.00)	4,330.86	(100.00)	4,030.17	(100.00)
	운영비	2,600.64	(64.39)	2,580.78	(68.88)	3,023.42	(69.81)	3,110.73	(77.19)
	자산취득비	883.53	(21.88)	765.88	(20.44)	856.21	(19.77)	656.38	(16.29)
	예비비및기타	38.97	(0.96)	22.21	(0.59)	29.65	(0.68)	26.79	(0.66)
	이월금	209.11	(5.18)	159.49	(4.26)	202.72	(4.68)	157.75	(3.91)
	불용액	306.63	(7.59)	218.24	(5.82)	218.86	(5.05)	78.51	(1.95)

가) 인건비

인건비의 보수는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며, 기타직 보수는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인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상용직근로자의 인건비인 학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정기간 고용하는 임시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이며,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학교운영지원비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표 24>는 인건비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건비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타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정된 인건비 원가통계비목으로 분리되어 포함되었다. 연도별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건비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기타직 보수와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인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타직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인건비	396.82	441.46	527.14	553.93	668.00	738.72	742.69	900.83	
국공립	보수	15.03	67.29	3.06	21.12	-	-	-	-
	기간제근로자보수	135.87	152.45	187.66	164.02	216.18	252.45	207.05	267.90
	기타직보수	190.12	324.30	263.96	422.72	375.52	540.85	453.62	717.78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5.80	80.26	72.46	91.52	76.31	112.89	82.02	132.28
인건비	3,710.17	1,773.61	3,867.30	1,827.01	4,701.73	1,658.96	4,986.48	1,819.20	
사립	보수	3,303.64	1,611.43	3,345.27	1,631.94	3,974.50	1,504.99	4,157.53	1,607.70
	기간제근로자보수	114.82	167.20	188.89	189.79	221.79	185.81	244.18	230.38
	기타직보수	237.97	244.50	283.60	255.11	450.88	330.38	528.40	369.46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3.74	28.79	49.53	26.11	54.56	19.71	56.37	21.52

<표 25>는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로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건비 총액 및 세목의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강원도가 167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38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29만원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라북도가 45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9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36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타직 보수는 강원도가 12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9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01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 수당도 강원도가 17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4만원 수준으로 두 지역 간 편차는 1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27>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인건비		742.69	383.43	589.18	496.01	962.64	455.33	486.04	1,670.23	466.61	865.35	742.44	1,181.51	740.89	836.05	645.44	484.88	4.9***
국공립	보수	-	-	-	-	-	-	-	-	-	-	-	-	-	-	-	-	-
	기간제근로자보수	207.05	138.06	202.82	264.84	184.22	113.57	94.86	300.44	184.87	311.22	207.22	448.71	152.26	217.39	153.05	139.73	2.36**
	기타직보수	453.62	189.12	321.99	180.22	637.62	299.00	341.96	1,202.19	235.48	469.37	476.09	628.25	483.83	515.20	417.52	291.69	4.5***
	학교운영지원비수당	82.02	56.25	64.37	50.95	140.80	42.77	49.22	167.60	46.26	84.76	59.13	104.55	104.81	103.47	74.88	53.46	2.53**
인건비		4,986.48	4,145.04	5,021.84	4,499.41	4,448.81	4,421.82	4,783.83	-	4,328.48	4,345.70	5,883.91	6,620.63	6,346.20	5,235.84	5,412.73	3,884.93	6.28***
사립	보수	4,157.53	3,475.10	4,514.26	3,707.00	3,855.25	3,573.54	3,994.35	-	3,621.98	3,670.14	4,834.06	5,664.28	5,435.69	4,205.92	4,260.83	3,177.16	6.08***
	기간제근로자보수	244.18	186.74	229.70	278.90	228.32	83.56	149.50	-	265.40	298.85	225.48	410.34	146.26	303.00	295.03	256.25	3.17***
	기타직보수	528.40	430.96	216.56	462.25	312.21	720.10	585.24	-	394.38	334.83	764.62	471.37	703.79	665.45	791.55	412.90	6.46***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6.37	52.25	61.33	51.25	53.02	44.62	54.75	-	46.72	41.89	59.75	74.64	60.46	61.47	65.32	38.62	4.84***

*** $p < .001$, ** $p < .01$, * $p < .05$

<표 25>에서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에 대한 시·도 간 차이를 보면, 전라북도가 662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8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격차가 274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라북도가 566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1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249만원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학생 1인당 평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라북도가 41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8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33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타직 보수는 경상남도가 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22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57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전라북도가 7만원을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4만원 수준으로 두 지역 간 편차는 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나) 운영비

운영비는 학교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학교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교육운영비, 법정부담금으로 구분되고,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일반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및 교육경비인 일반수용비,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의 운영, 당직비, 강사수당, 수업보결수당, 방과후학교강사료, 교의수당,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등 운영수당,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차량유류대를 포함하여 냉난방, 취사 등 에너지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인 연료비, 가타공공요금, 급식용식재료비, 우유대금, 여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를 포함한다. 교육운영비는 교수-학습활동을 비롯한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와 학습준비물, 학생복지비를 포함하며, 법정부담금은 기타직법정부담금과 기간제법정부담금이 포함되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법정부담금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포함한다.

<표 26>은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 1인당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의 비율은, 업무추진비가 3% 미만이며, 상대적으로 학교운영비의 비율은 97% 이상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와 학교운영비의 연도별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증가해왔고,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2010년에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운영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의 격차가 2010년에는 42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0만원가량으로 격차가 감소하였다.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운영비의 격차도 2010년에는 43만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1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학교운영비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는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부터 계속 증가해왔고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95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90만원으로 국·공립학교가 사립보다 학생 1인당 평균 5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일반운영비는 두 설립유형 모두 증감의 변화가 있으나 2010년 대비 2013년에는 증가하였으며,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195만원이고, 사립은 평균 189만원으로 설립유형 간 격차가 6만원이다. 법정부담금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기타직과 계약직법정부담금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은 정규직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어있어 국·공립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표 28>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운영비	2,176.76	2,123.15	2,547.10	2,071.11	2,867.39	2,287.41	2,993.52	2,561.89
	업무추진비	39.21	75.96	46.41	90.48	40.07	66.26	43.21	80.71
	학교운영비	2,137.55	2,064.17	2,500.69	1,993.80	2,827.32	2,228.93	2,950.32	2,489.50
	교육운영비	586.74	1,299.88	567.59	425.52	947.97	916.60	948.89	736.68
	법정부담금	41.22	52.82	60.15	76.68	40.96	39.88	47.38	52.42
	일반운영비	1,509.59	1,165.10	1,872.95	1,622.53	1,838.39	1,421.14	1,954.05	1,821.26
사립	운영비	2,600.64	1,271.77	2,580.78	1,323.14	3,023.42	1,054.14	3,110.73	1,135.40
	업무추진비	31.50	28.79	32.65	80.82	19.20	10.49	18.61	10.25
	학교운영비	2,569.14	1,263.20	2,548.13	1,309.36	3,004.23	1,049.53	3,092.12	1,129.89
	교육운영비	571.48	429.35	595.99	456.39	898.23	487.67	900.99	428.46
	법정부담금	239.34	111.50	262.21	120.69	284.69	90.11	300.10	102.85
	일반운영비	1,758.31	875.52	1,689.93	890.82	1,821.31	682.50	1,891.03	770.88
<i>t</i>	운영비	-3.18**		-0.26		-1.2		-0.81	

*** $p < .001$, ** $p < .01$, * $p < .05$

<표 27>은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및 세목별 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와 세목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모든 항목에서 강원도가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고 그 외의 운영비 항목들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 단위 지역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29>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운영비	2,993.52	1,843.87	2,433.93	2,422.00	3,817.74	2,290.99	2,176.98	4,975.14	1,845.78	3,768.28	2,812.68	4,106.07	4,298.12	3,762.14	2,791.99	2,512.09	5.57***
	업무추진비	43.21	21.93	25.55	17.47	64.83	16.19	25.14	89.92	17.70	69.24	26.76	85.26	75.78	56.57	33.57	28.09	3.27***
	학교운영비	2,950.32	1,821.94	2,408.38	2,404.53	3,752.91	2,274.80	2,151.84	4,885.22	1,828.07	3,699.03	2,785.92	4,020.80	4,222.34	3,705.57	2,758.42	2,484.00	5.62***
	교육운영비	948.89	680.77	678.22	763.01	1,020.89	589.94	519.05	1,664.51	543.77	1,050.60	844.83	1,372.96	1,590.81	1,390.32	835.53	937.13	110***
	법정부담금	47.38	31.21	31.27	33.58	52.23	24.11	51.49	112.61	32.20	55.04	40.70	63.74	41.13	49.33	45.54	42.16	5.93***
	일반운영비	1,954.05	1,109.96	1,698.89	1,607.94	2,679.78	1,660.76	1,581.31	3,108.10	1,252.11	2,593.40	1,900.39	2,584.11	2,590.41	2,265.92	1,877.35	1,504.70	3.88***
사립	운영비	3,110.73	2,506.25	2,624.49	2,861.90	2,439.62	3,084.78	3,031.61	-	2,633.17	2,999.28	3,546.53	3,829.17	4,009.82	3,758.19	3,362.76	2,804.23	7.07***
	업무추진비	18.61	15.53	16.94	17.81	16.19	13.19	22.47	-	15.31	17.83	23.24	18.97	26.82	20.81	21.21	16.26	3.3***
	학교운영비	3,092.12	2,490.72	2,607.55	2,844.09	2,423.43	3,071.59	3,009.14	-	2,617.86	2,981.45	3,523.28	3,810.19	3,983.01	3,737.38	3,341.55	2,787.98	7.06***
	교육운영비	900.99	819.96	722.01	847.13	657.36	771.68	936.78	-	823.05	948.02	867.80	1,167.70	1,046.69	1,038.29	882.50	1,068.54	2.45**
	법정부담금	300.10	246.82	300.72	271.30	264.55	277.00	304.70	-	264.00	255.48	351.81	378.64	378.72	319.33	335.50	229.57	6.37***
	일반운영비	1,891.03	1,423.94	1,584.82	1,725.66	1,501.53	2,022.91	1,767.66	-	1,530.82	1,777.95	2,303.68	2,263.85	2,557.60	2,379.76	2,123.55	1,489.87	8.67***

*** $p < .001$, ** $p < .01$, * $p < .05$

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경비로 시설비, 비품구입비, 적립금, 기타자산취득비가 있다. 시설비는 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 대비 등의 시설비와 향후 회수할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며, 비품구입비는 자신의 변동을 가져오는 유·무형자산 취득비와 정수관리대상이 되는 정수물품 구매비에 해당하는 비품구입비와 도서구입비를 포함한다. 적립금은 노후교실 증·개축을 비롯한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목적의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있으며, 그 외의 수목구입을 비롯하여 자산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기타자산취득비로 분류된다.

<표 28>은 일반고등학교의 연도별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의 현황과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 및 세목별 금액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증감의 변화가 교차되어 나타났고,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3년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고, 세목으로 기타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2010년 대비 2013년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산취득비 규모는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되는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공립보다 학교 예산에서 모든 시설비를 집행하는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세출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국·공립과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자산취득비	353.62	779.30	433.33	745.37	422.77	763.54	451.04	1,046.53
	시설비	161.59	691.16	145.12	392.09	192.10	526.69	212.12	880.20
	비품구입비	183.68	246.25	281.88	440.75	220.17	317.57	224.80	399.76
	적립금	7.90	150.01	6.34	87.92	10.49	62.28	14.11	95.37
	기타자산취득비	0.44	3.47	0.00	0.00	0.00	0.00	0.00	0.00
사립	자산취득비	883.53	1,388.06	765.88	1,067.32	856.21	1,080.54	656.38	883.17
	시설비	739.11	1,327.59	603.35	993.88	695.50	1,003.78	526.72	826.18
	비품구입비	138.43	155.07	157.68	151.75	154.95	169.11	125.70	130.70
	적립금	2.70	15.91	4.26	53.51	5.76	37.72	3.96	14.56
	기타자산취득비	3.29	47.78	0.59	2.91	0.00	0.00	0.00	0.00
<i>t</i>	자산취득비	-6.16***		-4.76***		-6.11***		-2.82**	

*** $p < .001$, ** $p < .01$, * $p < .05$

<표 29>는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와 세목별 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시설비 항목을 제외하고 시도 간 평균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적립금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시도 간 평균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와 세목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모든 항목에서 강원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서는 경상북도가 높게 나타나며, 비품구입비와 적립금에서는 충청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비품구입은 서울특별시가 가장 낮으며, 적립금 항목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가 높게 나타나고, 서울특별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비품구입비는 전라북도가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가장 낮고, 학생 1인당 평균 적립금은 전라북도가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세출금액이 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 단위 지역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라) 예비비 및 기타/이월금/불용액

예비비 및 기타는 세목으로 예비비, 반환금, 전출금으로 구성되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경비이며, 반환금은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며, 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반환금과 불용액은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월을 하고 반환금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0>은 이러한 학교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알아볼 수 있는 예비비와 반환금, 전출금, 이월금, 불용액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1만원 미만 수준에서 나타나며,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3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2011년에는 감소하여 2013년까지 1만원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28만원이었으며, 매년 불용액 규모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1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31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는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표 31>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자산취득비		451.04	189.26	222.14	114.63	349.90	158.37	139.80	1,116.87	414.59	590.73	236.67	453.27	567.30	786.86	329.00	448.78	1.82*
국공립	시설비	212.12	94.18	85.51	11.80	65.24	43.42	32.68	489.88	328.29	173.37	92.75	88.71	174.96	412.08	137.90	206.20	0.75
	비품구입비	224.80	89.46	127.65	98.03	267.30	109.50	106.87	521.08	83.27	408.89	139.87	361.55	385.91	370.54	189.35	242.58	4.29***
	적립금	14.11	5.63	8.99	4.80	17.36	5.46	0.24	105.92	3.03	8.48	4.05	3.01	6.44	4.24	1.74	0.00	2.67***
	기타자산취득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취득비		656.38	255.49	402.15	370.44	1,263.33	373.18	455.64	-	502.34	505.82	870.11	862.78	1,244.55	1,237.61	677.81	599.19	4.67***
사립	시설비	526.72	191.93	336.53	272.88	1,136.80	289.10	317.35	-	402.95	380.04	733.44	610.46	1,018.63	1,051.57	543.23	490.41	3.9***
	비품구입비	125.70	61.60	60.48	91.31	124.92	81.89	138.29	-	95.69	121.07	136.16	242.10	217.35	180.49	134.12	105.90	6.03***
	적립금	3.96	1.95	5.13	6.25	1.62	2.19	0.00	-	3.71	4.71	0.51	10.22	8.57	5.54	0.46	2.88	1.07
	기타자산취득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p < .001$, ** $p < .01$, * $p < .05$

불용액에 대하여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와 사립 일반고등학교 간 평균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며, 그 외에는 유의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일반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예비비 및 기타, 이월금, 불용액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예비비 및 기타	26.79	172.74	18.36	88.87	25.14	124.64	26.22	108.26	
국공립	반환금	7.28	114.42	4.55	22.84	4.25	20.44	8.22	35.05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19.51	127.61	13.81	86.62	20.88	123.67	18.00	103.53
	이월금	143.71	552.28	130.85	517.96	142.23	798.09	168.68	574.02
불용액	다음년도계속비이월	1.19	15.21	0.45	8.01	0.00	0.00	1.12	15.67
	다음년도명시이월	123.70	536.11	121.81	516.36	136.30	797.90	125.72	454.28
	다음년도사고이월	18.82	128.99	8.60	55.59	5.93	31.67	41.84	202.21
예비비 및 기타	38.97	545.89	22.21	110.64	29.65	154.36	26.79	129.62	
사립	반환금	31.98	543.24	3.49	16.50	3.40	11.58	6.24	26.62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6.99	57.72	18.72	105.05	26.26	153.98	20.55	126.87
	이월금	209.11	507.34	159.49	338.88	202.72	570.77	157.75	529.33
	다음년도계속비이월	4.02	37.42	1.78	22.62	0.00	0.00	0.58	10.54
불용액	다음년도명시이월	149.01	437.96	100.23	245.29	162.93	490.21	120.62	460.86
	다음년도사고이월	56.08	273.08	57.48	247.05	39.79	228.85	36.55	210.74
	불용액	306.63	764.84	218.24	351.68	218.86	461.53	78.51	92.95
t	예비비 및 기타	-0.42		-0.52		-0.43		-0.06	
	이월금	-1.65		-0.86		-1.15		0.26	
	불용액	-0.4		1.19		0.64		3.43***	

*** $p<.001$, ** $p<.01$, * $p<.05$

<표 31>는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세출결산의 성질비목 중 예비비와 기타, 이월금, 불용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과 전출금, 불용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와 경상북도, 서울특별시가 학생 1인당 평균 1만원 이상이며, 그 외의 지역들은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3개 지역이 평균 1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53만원으로 가장 많

<표 33> 2013년도 일반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예비비 및 기타, 이월금, 불용액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예비비 및 기타	26.22	14.67	0.08	0.15	0.13	0.00	62.08	44.43	9.69	15.49	0.62	59.95	39.82	144.63	0.16	1.95	3.69***
반환금	8.22	14.63	0.08	0.15	0.00	0.00	0.01	38.13	9.33	2.55	0.31	0.03	1.47	18.93	0.04	0.00	2.95***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전출금	18.00	0.04	0.00	0.00	0.12	0.00	62.07	6.30	0.36	12.94	0.31	59.93	38.34	125.70	0.12	1.95	3.4***
국·공립 이월금	168.68	77.91	79.96	31.53	92.93	13.57	38.41	321.41	201.95	91.31	82.34	240.92	416.87	263.06	29.40	25.99	1.12
다음년도계속비이월	1.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15	0.00	0.00	1.97*
다음년도명시이월	125.72	72.04	79.96	31.53	90.87	13.57	38.41	305.75	74.66	43.35	81.52	234.93	334.90	235.72	23.95	25.99	1.45
다음년도사고이월	41.84	5.87	0.00	0.00	2.07	0.01	0.00	15.65	127.29	47.96	0.82	5.99	81.97	11.19	5.45	0.00	1.91*
불용액	172.31	61.46	83.55	45.24	155.01	69.11	54.77	529.49	142.04	274.27	39.13	228.17	233.65	250.50	68.10	97.74	1.75*
예비비 및 기타	26.79	48.69	0.01	1.46	1.35	2.96	83.24	-	2.26	100.99	21.23	57.13	8.43	1.05	40.16	0.11	1.23
반환금	6.24	14.22	0.01	0.00	0.00	2.96	0.00	-	2.24	12.15	21.23	7.06	8.43	1.05	2.27	0.11	1.53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전출금	20.55	34.47	0.00	1.46	1.35	0.00	83.24	-	0.02	88.83	0.00	50.07	0.00	0.00	37.89	0.00	1.1
사립 이월금	157.75	50.36	54.57	42.65	37.11	222.51	14.79	-	202.77	318.43	202.89	80.15	498.43	287.47	36.36	423.51	1.77*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58	0.00	0.00	0.00	23.94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9***
다음년도명시이월	120.62	46.06	49.96	37.42	12.48	190.34	14.79	-	123.24	304.98	199.89	67.92	457.52	124.15	32.61	373.59	1.7
다음년도사고이월	36.55	4.30	4.61	5.23	0.69	32.18	0.00	-	79.54	13.45	3.01	12.24	40.91	163.32	3.75	49.92	1.58
불용액	78.51	66.08	60.24	55.17	171.86	59.63	94.90	-	79.89	68.17	76.05	97.92	151.70	56.27	62.10	105.62	2.51**

*** $p < .001$, ** $p < .01$, * $p < .05$

고, 충청북도 27만원, 경상북도 25만원,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23만원, 인천광역시 16만원, 경기도 1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불용액 금액이 많으며, 그 외의 지역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가 17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15만원, 제주특별자치도 11만원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이 절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 간,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학교 교육재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전체 사례 수는 280개교이고, 그 중 국·공립학교는 165개교로 58.9%, 사립학교는 115개교로 41.1%이다. 설립유형별로 시·도교육청별 소속 학교 수를 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경상북도가 20개교 12.1%로 가장 많은데,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도 단위 지역들에 특성화고등학교 사례 수가 많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대도시에 특성화고 사례 수가 더 적다. 반면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33개교로 28.7%에 해당되며, 경기도는 16개교 13.9%에 해당하고,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8.7%에 해당하는 10개교씩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10개교 미만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시·도교육청별 특성화고등학교 사례 수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80	(100.00)	165	(100.00)	115	(100.00)
서울	40	(14.29)	7	(4.24)	33	(28.70)
부산	14	(5.00)	4	(2.42)	10	(8.70)
대구	10	(3.57)	4	(2.42)	6	(5.22)
인천	10	(3.57)	6	(3.64)	4	(3.48)
광주	7	(2.50)	3	(1.82)	4	(3.48)
대전	10	(3.57)	5	(3.03)	5	(4.35)
경기	34	(12.14)	18	(10.91)	16	(13.91)
강원	15	(5.36)	15	(9.09)	-	-
충북	18	(6.43)	13	(7.88)	5	(4.35)
충남	23	(8.21)	17	(10.30)	6	(5.22)
전북	17	(6.07)	14	(8.48)	3	(2.61)
전남	25	(8.93)	19	(11.52)	6	(5.22)
경북	30	(10.71)	20	(12.12)	10	(8.70)
경남	21	(7.50)	14	(8.48)	7	(6.09)
제주	6	(2.14)	6	(3.64)	-	-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액 비교

설립유형별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표 3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28억3,203만원 수준이며, 사립학교는 76억7,08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총액으로, 사립학교의 정규교직원 보수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38억3,61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였을 때,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는 621만원, 사립학교는 537만원 수준으로 약 84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2012년과 2013년에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과 [그림 8]을 통해 나타난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2012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차이가 일반고등학교와는 달리 점점 증가하여 2010년에 3만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3년도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84만원까지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3>에서 2013년 기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작게는 315만원에서 많게는 1,754만원까지 나타나 편차가 최대 1,439만원까지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사립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작게는 283만원에서 많게는 1,087만원으로 편차가 최대 804만원으로, 사립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가 사립학교는 164만원이고, 국·공립학교는 3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학교들 간 분산이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더 크고 학교들 간 세입총액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세입결산 총액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2013년 기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세입결산 총액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에 비하여 1.4배가량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으로 산출하여 보았을 때,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보다 더 작으며,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5$). 뿐만 아니라, 학교 간 편차에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

계 나타나 학교들 간 비교적 고른 세입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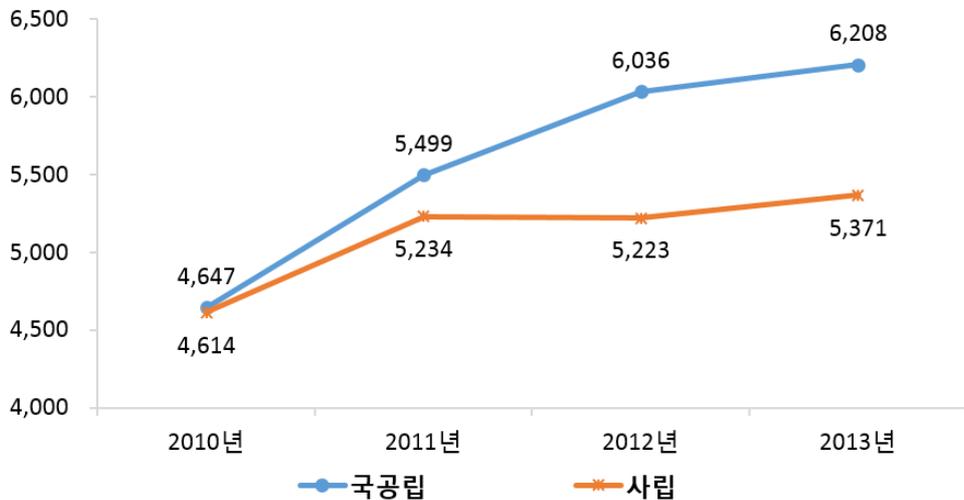
<표 35>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				사립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단위 학교	2010	2,228,482	1,312,960	303,794	8,088,506	6,756,382	2,183,262	829,235	13,632,126	-
		2011	2,655,996	1,537,840	368,127	8,370,896	7,414,826	2,242,661	2,912,464	14,814,229	-
		2012	2,839,780	1,629,102	361,856	8,276,229	7,604,715	2,307,938	3,268,255	15,595,973	-
		2013	2,832,028	1,608,209	462,440	9,516,211	7,670,851	2,269,871	3,216,075	16,368,869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단위 학교	2010	2,223,781	1,311,342	303,794	8,088,506	3,475,782	1,551,137	829,234	10,037,859	-
		2011	2,654,812	1,536,863	368,127	8,370,746	3,955,452	1,622,069	1,257,701	9,704,216	-
		2012	2,839,780	1,629,102	361,856	8,276,229	3,840,242	1,317,494	1,535,490	8,056,742	-
		2013	2,832,028	1,608,209	462,439	9,516,211	3,836,161	1,298,797	1,749,698	8,999,539	-
제외 총액	학생 1인당	2010	4,647.35	2,484.35	1,823.72	21,530.17	4,613.63	2,053.19	835.92	12,015.83	0.12
		2011	5,498.79	2,407.04	2,781.45	19,350.80	5,233.97	1,871.44	2,515.23	13,261.98	0.99
		2012	6,036.25	3,217.95	3,004.58	28,469.19	5,223.34	1,478.60	2,568.21	10,590.28	2.84**
		2013	6,208.48	3,004.67	3,149.26	17,537.34	5,370.71	1,638.10	2,829.49	10,868.13	3.00**

*** $p < .001$, ** $p < .01$, * $p < .05$

(단위: 천원)



[그림 8]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2) 세입항목별 비교

<표 34>는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을 세입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며, 사립 학교는 정규직 교원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모두 세입 총액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항목별로는 학부모부담 수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해왔고,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은 국·공립의 경우 2012년까지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으며, 사립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들은 증감의 일관적 경향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교부금 수입과 학부모부담 수입으로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재원이 안정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수입과 기타이전수입과 같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재원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학교회계에서의 세입규모가 일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립	세입결산총액		4,659.44	2,498.63	5,500.19	2,406.17	6,036.25	3,217.95	6,208.48	3,004.67
	이전수입		3,258.90	1,989.23	4,007.65	1,989.85	4,441.21	2,833.49	4,308.90	2,239.60
	중앙정부		7.43	50.44	7.78	48.38	11.42	55.10	24.76	116.60
	지방자치단체		225.19	541.04	230.28	365.30	229.63	443.11	224.05	348.45
	교육비특별회계		2,806.62	1,552.15	3,576.55	1,764.50	3,937.53	2,174.76	3,858.20	1,968.48
	기타		219.66	537.78	193.05	267.31	262.63	838.42	201.89	291.28
	자체수입		987.64	352.65	1,056.59	393.60	1,179.46	444.02	1,231.26	507.42
	학부모부담		912.93	331.91	971.52	375.63	1,085.96	412.57	1,147.68	492.94
	행정활동		74.71	104.10	85.07	111.63	93.50	113.85	83.58	111.37
	기타수입		412.90	881.13	435.95	717.35	415.58	632.19	668.31	1,296.31
	전년도이월금		412.90	881.13	435.95	717.35	415.58	632.19	668.31	1,296.31
사립	세입결산총액		8,829.31	2,356.80	9,800.04	2,430.99	10,271.05	2,178.91	10,575.13	2,172.02
	이전수입		6,433.51	2,108.73	7,084.25	2,322.00	7,613.64	2,190.31	7,855.05	2,191.01
	중앙정부		0.77	5.86	0.00	0.00	3.95	29.66	3.26	24.43
	지방자치단체		262.69	485.19	217.63	236.18	164.65	139.87	187.75	197.60
	교육비특별회계		5,966.68	1,914.45	6,609.21	2,201.23	7,126.47	2,028.72	7,329.14	2,047.84
	기타		203.37	298.89	257.41	362.10	318.58	490.69	334.91	549.27
	자체수입		2,168.26	852.22	2,317.18	849.63	2,373.58	875.82	2,418.83	934.67
	학부모부담		2,127.55	842.33	2,256.89	823.05	2,331.28	868.75	2,375.76	925.60
	행정활동		40.72	33.13	60.29	149.39	42.30	29.89	43.07	36.51
	기타수입		227.54	486.12	398.60	729.26	283.83	450.18	301.25	561.83
	전년도이월금		227.54	486.12	398.60	729.26	283.83	450.18	301.25	561.83

<표 35>는 2013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이 817만원으로 가장 크고, 대전광역시가 377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440만원이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경상북도가 1,281만원으로 가장 크고, 대전광역시가 882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두 지역 간 차이는 399만원인데, 이와 같은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의 차이는 주된 원인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규모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 특

<표 37>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세입결산총액	6,208.48	5,329.80	5,109.02	4,376.34	5,560.24	4,043.35	3,771.35	8,174.99	5,216.01	5,163.11	5,586.63	6,455.24	7,631.92	6,704.84	7,678.34	4,870.17	2.19*
	이전수입	4,308.90	3,481.49	3,596.10	3,102.70	3,892.22	2,707.14	2,471.07	6,116.44	2,980.19	3,901.28	3,772.56	4,878.05	5,479.39	4,738.65	4,748.41	3,680.16	2.7**
	중앙정부	24.76	0.87	0.00	48.63	0.00	123.48	91.78	0.00	0.00	23.45	20.69	15.83	0.00	11.56	55.53	194.87	1.59
	지방자치단체	224.05	235.84	30.62	53.50	153.41	1.20	41.39	251.90	162.59	137.59	298.84	130.89	309.65	398.19	210.64	274.49	1.05
	교육비특별회계	3,858.20	3,110.16	3,310.11	2,923.17	3,588.26	2,373.95	2,125.64	5,458.98	2,661.00	3,644.14	3,199.67	4,530.29	4,942.85	4,149.07	4,264.65	3,173.86	2.98***
	기타	201.89	134.62	255.37	77.39	150.55	208.52	212.26	405.56	156.59	96.11	253.36	201.04	226.88	179.83	217.58	36.94	0.97
	자체수입	1,231.26	1,510.15	1,247.09	1,163.47	1,139.96	1,153.45	1,103.69	836.63	1,435.32	1,123.51	1,211.10	946.33	1,644.17	1,227.57	1,291.68	1,070.76	2.72**
	학부모부담	1,147.68	1,399.68	1,184.84	1,081.74	1,088.57	1,117.58	1,033.42	751.65	1,358.20	1,067.48	1,133.42	817.74	1,585.06	1,136.52	1,172.49	979.14	3.19***
	행정활동	83.58	110.47	62.25	81.72	51.39	35.87	70.26	84.98	77.12	56.03	77.68	128.59	59.11	91.05	119.19	91.63	0.5
	기타수입	668.31	338.17	265.84	110.19	528.06	182.75	196.58	1,221.92	800.50	138.32	602.97	630.86	508.36	738.62	1,638.25	119.24	1.25
	전년도이월금	668.31	338.17	265.84	110.19	528.06	182.75	196.58	1,221.92	800.50	138.32	602.97	630.86	508.36	738.62	1,638.25	119.24	1.25
사립	세입결산총액	10,575.13	11,348.95	10,538.73	9,017.81	9,401.54	9,607.11	8,824.14	-	9,515.57	8,147.92	10,237.82	11,162.47	10,852.83	12,814.52	11,544.31	-	3.77***
	이전수입	7,855.05	8,211.94	7,888.61	6,883.87	7,028.45	6,011.82	7,167.54	-	5,905.52	6,116.87	8,411.25	9,380.95	8,983.32	10,110.00	9,352.30	-	4.43***
	중앙정부	3.26	0.08	0.00	0.00	45.31	0.00	0.00	-	0.00	38.18	0.00	0.00	0.00	0.00	0.00	-	2.26*
	지방자치단체	187.75	199.11	126.36	214.79	16.41	72.68	209.72	-	285.45	43.95	156.77	42.67	180.02	303.15	156.54	-	1.54
	교육비특별회계	7,329.14	7,472.15	7,554.50	6,571.05	6,883.33	5,441.89	6,743.94	-	5,369.55	5,961.87	7,842.25	9,268.24	8,400.89	9,349.74	9,113.62	-	4.91***
	기타	334.91	540.61	207.75	98.04	83.41	497.26	213.88	-	250.52	72.88	412.23	70.03	402.41	457.11	82.14	-	1.01
	자체수입	2,418.83	2,912.40	2,395.42	2,022.66	2,141.79	2,429.57	1,499.27	-	3,314.25	1,942.60	1,707.11	1,674.00	1,743.37	1,894.90	1,824.15	-	5.74***
	학부모부담	2,375.76	2,852.79	2,342.36	1,972.41	2,113.92	2,393.68	1,471.14	-	3,275.50	1,921.23	1,679.76	1,658.09	1,715.53	1,851.50	1,792.99	-	5.66***
	행정활동	43.07	59.61	53.06	50.25	27.88	35.89	28.13	-	38.75	21.37	27.35	15.91	27.84	43.40	31.16	-	1.39
	기타수입	301.25	224.61	254.70	111.27	231.29	1,165.72	157.33	-	295.80	88.45	119.46	107.53	126.14	809.63	367.87	-	2.01*
	전년도이월금	301.25	224.61	254.70	111.27	231.29	1,165.72	157.33	-	295.80	88.45	119.46	107.53	126.14	809.63	367.87	-	2.01*

*** $p < .001$, ** $p < .01$, * $p < .05$

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은 강원도가 546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494만원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북도 453만원, 경상남도 426만원, 경상북도 415만원으로 5개 지역이 4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다. 반면, 대전광역시의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금액이 213만원으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가 237만원 수준이며, 경기도가 266만원, 대구광역시가 292만원으로 4개 지역이 200만원 미만의 낮은 지역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경상북도가 935만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927만원, 경상남도 911만원, 전라남도 840만원으로 5개 지역이 800만원 이상으로 크며, 경기도가 537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의 대도시의 이전수입규모가 도 단위의 이전수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다.

나.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액 비교

<표 36>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과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단위학교 세출결산 총액은 28억4,202만원 수준이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77억983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총액으로, 사립학교의 정규직 교직원 보수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38억7,51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 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으로 산출하였을 때, 2013년 기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623만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542만원 수준으로 약 81만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2013년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간 학생 1인당 세출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가장 작게는 316만원이며 가장 많게는 1,755만원까지 나타나 국·공립학교들 간 평균 편차가 최고 1,4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가장 작게는 288만원이고 가장 많게는 1,079만원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들 간 평균 편차는 최고 791만원이다. 또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표준편차가 301만원이고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표준편차는 167만원으로 국·공립학교들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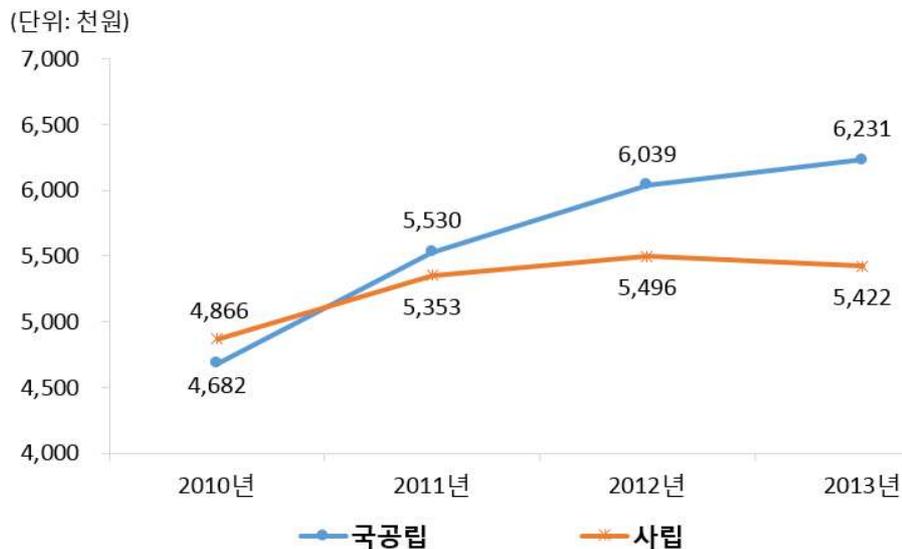
학교들 간 편차가 사립학교들보다 더 크고 분산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8>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출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n=354)				사립(n=324)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단위	2010	2,246,865	1,323,636	309,236	8,172,201	6,925,065	2,107,375	2,780,212	13,516,930	-
	학교	2011	2,673,054	1,551,864	374,952	8,480,279	7,504,104	2,270,769	2,924,302	14,870,017	-
	2012	2,854,749	1,654,712	363,615	8,284,838	7,800,255	2,493,727	3,280,849	16,802,106	-	
	2013	2,842,015	1,613,465	465,477	9,525,899	7,709,829	2,295,716	3,218,336	16,475,641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단위	2010	2,242,165	1,322,025	309,236	8,172,201	3,644,465	1,561,712	884,404	10,042,674	-
	학교	2011	2,671,869	1,550,893	374,952	8,480,129	4,044,730	1,647,645	1,261,289	9,814,306	-
	2012	2,854,749	1,654,712	363,615	8,284,838	4,035,783	1,593,181	1,536,585	12,696,953	-	
	2013	2,842,015	1,613,465	465,477	9,525,898	3,875,139	1,336,251	1,753,822	9,106,311	-	
제외 총액 1인당	2010	4,682.12	2,491.69	1,827.07	21,530.12	4,866.24	2,217.60	1,873.61	13,776.27	-0.64	
	2011	5,530.44	2,421.39	2,793.08	19,350.54	5,353.41	1,913.25	2,535.86	13,341.98	0.65	
	2012	6,038.80	3,183.88	3,008.85	28,478.03	5,496.11	1,899.97	2,621.07	16,195.09	1.78	
	2013	6,230.50	3,017.01	3,158.68	17,552.29	5,421.62	1,666.01	2,881.97	10,790.71	2.87**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9]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그림 9]의 설립유형별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까지 증가해왔다가 2013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 차이가 2010년에는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이 국·공립보다 18만원 가량 더 많았으나, 2011년부

터는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세출결산 총액이 사립학교를 추월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평균차이가 18만원, 2012년에는 54만원, 2013년에는 81만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2년까지는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가 평균차이가 커지면서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을 단위학교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2013년 기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1.4배가량으로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으로 산출하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이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보다 더 크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5$). 또한, 학교 간 편차에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학교들 간 비교적 고른 세출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별 세출결산 비교

<표 37>은 정책사업 단위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에서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의 비율은 52%에서 54.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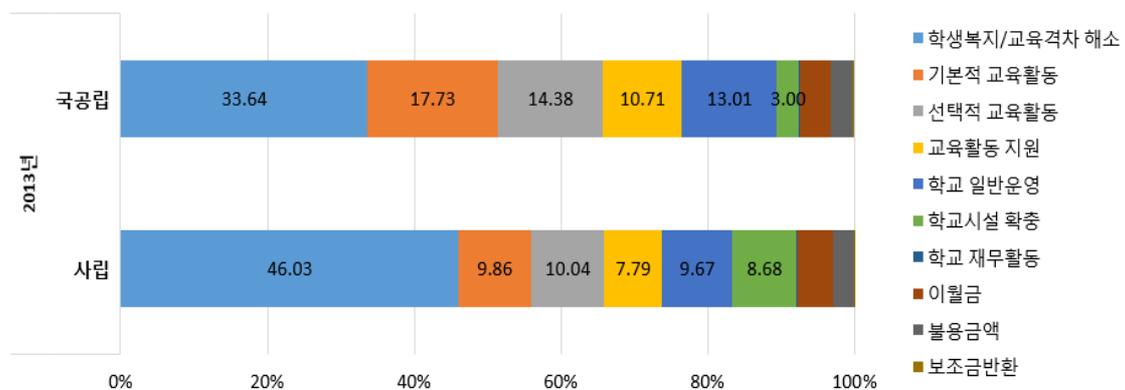
이에 따라 <표 37>에서는 인적자원 운용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정책사업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606만원이고,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48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인건비를 비롯한 기간제나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의 인건비를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규모는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설립유형별로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7개의 정책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전체의 3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17.7%를 차지하고, 이어 선택적 교육활동 14.4%, 학교 일반운영 13%, 교육활동 지원 10.7%, 학교시설 확충 3%, 학교 재무활동 0.1%로 나타났

<표 39>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사업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세출총액	4,694.21	(100.00)	5,531.84	(100.00)	6,038.80	(100.00)	6,230.50	(100.00)	
인적자원 운용	165.90	(3.53)	179.33	(3.24)	160.41	(2.66)	169.39	(2.72)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4,528.31	(100.00)	5,352.52	(100.00)	5,878.40	(100.00)	6,061.12	(100.00)	
국공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231.80	(27.20)	1,683.67	(31.46)	1,860.72	(31.65)	2,038.95	(33.64)
	기본적 교육활동	812.30	(17.94)	992.94	(18.55)	959.11	(16.32)	1,074.67	(17.73)
	선택적 교육활동	417.20	(9.21)	619.46	(11.57)	842.94	(14.34)	871.42	(14.38)
	교육활동 지원	593.20	(13.10)	589.72	(11.02)	547.58	(9.32)	648.91	(10.71)
	학교 일반운영	704.71	(15.56)	719.23	(13.44)	740.51	(12.60)	788.40	(13.01)
	학교시설 확충	306.08	(6.76)	293.91	(5.49)	239.15	(4.07)	181.85	(3.00)
	학교 재무활동	3.25	(0.07)	2.32	(0.04)	3.00	(0.05)	8.29	(0.14)
	이월금	235.76	(5.21)	227.26	(4.25)	427.56	(7.27)	258.62	(4.27)
	불용금액	219.14	(4.84)	220.72	(4.12)	251.20	(4.27)	179.67	(2.96)
	보조금반환확정금액	4.87	(0.11)	3.28	(0.06)	6.64	(0.11)	10.33	(0.17)
세출총액	9,081.93	(100.00)	9,919.48	(100.00)	10,543.83	(100.00)	10,626.04	(100.00)	
인적자원 운용	4,802.01	(52.87)	5,154.46	(51.96)	5,514.94	(52.30)	5,752.20	(54.13)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4,279.92	(100.00)	4,765.02	(100.00)	5,028.88	(100.00)	4,873.83	(100.00)	
사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450.88	(33.90)	2,058.25	(43.19)	2,202.71	(43.80)	2,243.50	(46.03)
	기본적 교육활동	431.37	(10.08)	516.82	(10.85)	508.59	(10.11)	480.79	(9.86)
	선택적 교육활동	253.27	(5.92)	348.16	(7.31)	462.52	(9.20)	489.18	(10.04)
	교육활동 지원	313.92	(7.33)	332.70	(6.98)	376.68	(7.49)	379.77	(7.79)
	학교 일반운영	416.63	(9.73)	450.02	(9.44)	458.14	(9.11)	471.08	(9.67)
	학교시설 확충	784.86	(18.34)	662.70	(13.91)	421.36	(8.38)	423.18	(8.68)
	학교 재무활동	1.51	(0.04)	5.05	(0.11)	7.92	(0.16)	11.63	(0.24)
	이월금	254.32	(5.94)	157.20	(3.30)	192.00	(3.82)	238.22	(4.89)
	불용금액	371.70	(8.68)	233.38	(4.90)	377.24	(7.50)	132.91	(2.73)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45	(0.03)	0.74	(0.02)	21.72	(0.43)	3.57	(0.07)



[그림 10]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인적자원 운용 제외한 사업별 세출금액 비율

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또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택적 교육활동이 10%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기본적 교육활동 9.9%, 학교 일반운영 9.7%, 학교시설 확충 8.7%, 교육활동 지원 7.8%, 학교 재무활동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일반운영은 비율의 증감 변화가 있지만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본적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지원은 비율과 금액의 증감 변화가 있지만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증가하였다. 학교시설 확충은 세출금액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금액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기본적 교육활동은 2011년 이후 세출금액과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 일반운영은 비율의 증감 변화가 있지만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학교시설 확충의 세출금액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비용을 설립유형 간 비교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은 국·공립학교가 204만원이고 사립학교가 224만원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2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시설 확충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24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국·공립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59만원 더 많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38만원 가량 사립보다 더 많으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27만원, 학교 일반운영비는 32만원 가량 국·공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인적자원 운용

<표 38>은 인적자원 운용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원기타보수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에 교직원기타보수 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연도별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적자원 운용 세출규모는 2011년도에 증가하였다가 2012년도에 감소, 2013년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적자원 운용의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연수 및

맞춤형복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및 각종 행사지원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세출금액은 국·공립과 사립 모두 증감의 변화가 있으며, 국·공립의 경우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사립은 근소하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인적자원 운용	165.90	119.91	179.33	141.58	160.41	105.35	169.39	127.51
	교직원 보수	128.57	103.17	153.09	134.85	15.88	58.11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7.33	47.58	26.24	30.40	26.91	27.00	29.85	30.56
	교직원 기타보수	-	-	-	-	117.62	101.16	139.54	120.62
사립	인적자원 운용	4,802.01	1,209.46	5,154.46	1,323.04	5,514.94	1,291.44	5,752.20	1,202.50
	교직원 보수	4,757.00	1,196.18	5,106.10	1,314.07	4,287.41	2,200.91	4,578.49	2,002.60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5.00	42.23	48.36	49.84	49.04	56.98	46.48	48.69
	교직원 기타보수	-	-	-	-	1,178.50	1,776.54	1,127.23	1,711.75

<표 39>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로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사업의 세출금액의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단위사업을 제외하고, 인적자원 운용 총액 및 단위사업 세출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대한 시·도 간 차이를 보면 부산광역시 609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602만원으로 높으며, 경상북도가 339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격차가 270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비용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6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만5천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경상북도가 1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만원 미만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간제 및 계약직 교직원과 행정 대체 인력의 보수에 해당하는 교직원 기타보수는 국·공립의 경우 전라북도가 28만원 가량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6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사립의 경우 경상북도가 253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202만원으로 높으며, 서울특별시가 186만원, 충청북도가 105만원으로 4개 지역이 100만원 이상이며, 부산광역시가 12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기타보수의 전체 세출총액에서 국·공립은 14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사립은 113만원 수준으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가 기간제 또는 계약직 교직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표 41>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인적자원 운용		169.39	310.46	120.00	109.00	150.23	82.36	113.17	202.10	120.84	94.09	120.68	305.27	259.90	126.52	142.40	154.74	4.92***
국공립	교직원 보수	-	-	-	-	-	-	-	-	-	-	-	-	-	-	-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9.85	40.39	24.94	18.72	55.64	20.22	25.55	42.65	44.95	18.28	19.88	26.26	23.58	28.88	31.08	15.39	1.42
	교직원 기타보수	139.54	270.06	95.07	90.28	94.59	62.14	87.61	159.45	75.89	75.81	100.80	279.01	236.32	97.64	111.32	139.35	5.76***
인적자원 운용		5,752.20	6,226.94	6,236.22	5,164.92	5,569.74	4,596.80	5,302.73	-	4,723.61	4,579.10	6,066.57	5,992.23	5,953.91	6,022.85	6,668.79	-	3.68***
사립	교직원 보수	4,578.49	4,275.58	6,090.67	4,351.42	3,531.94	4,149.00	4,745.71	-	4,156.43	3,519.40	5,604.84	5,555.74	5,581.85	3,394.11	6,019.55	-	1.91*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6.48	89.91	20.94	12.13	18.40	6.69	17.44	-	27.73	11.02	20.34	67.22	4.77	97.14	12.24	-	10.79***
	교직원 기타보수	1,127.23	1,861.44	124.62	801.37	2,019.41	441.10	539.59	-	539.45	1,048.67	441.39	369.27	367.30	2,531.60	637.00	-	2.26*

*** $p < .001$, ** $p < .01$, * $p < .05$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표 40>은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급식관리, 교육격차 해소 두 개의 단위사업의 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숙사 관리는 2011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보건 관리는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장학지원과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의 두 단위사업 비용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단위사업들이 연도별 추이에서 증감의 변화가 있지만 보건 관리를 제외한 5개의 단위사업들에서 2010년 대비 2013년도에 세출금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급식 관리와 학생 장학 지원,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의 세 개의 단위사업의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기숙사 관리와 보건 관리는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증가하였고, 교육격차 해소의 세출금액은 계속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총액을 비교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총액이 더 크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도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위사업들에 대한 세출금액을 설립유형 간 비교해보면, 급식 관리와 기숙사 관리, 보건 관리,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의 네 개의 단위사업에서는 국·공립의 세출총액이 더 크지만,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장학 지원의 두 단위사업에 대한 세출총액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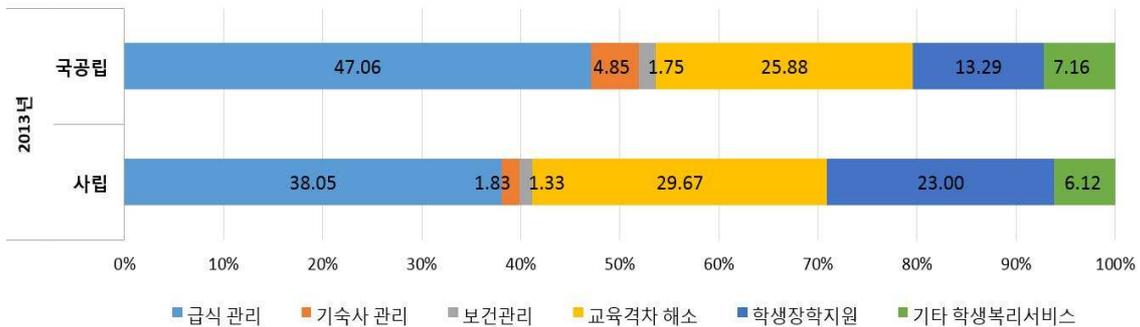
[그림 4]는 2013년 기준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의 높은 비율의 단위사업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차지하는 비율의 크기는 다소 다른데,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급식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7.1%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육격차 해소가 25.9%, 학생 장학 지원이 13.3%,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7.2%, 기숙사 관리 4.9%, 보건 관리 1.8% 순이며, 급식 관리와 교육격차 해소 두 개의 단위사업에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급식관리가 38.1%, 교육격차 해소가 30%, 학생 장학 지원이 23%,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6.1%, 기숙사 관리 1.8%, 보건 관리 1.3% 순이며, 급식 관리와 교육격차 해소, 학생 장학 지원 세 개의 단위사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 단위사업에 비교적 고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231.80	530.08	1,683.67	591.07	1,860.72	629.59	2,038.95	825.46	
국공립	급식 관리	705.17	341.99	789.56	397.77	841.04	397.79	959.61	495.79
	기숙사 관리	64.80	233.37	54.04	146.27	59.28	156.99	98.89	257.24
	보건 관리	35.03	27.14	40.26	35.15	35.93	19.03	35.73	18.60
	교육격차 해소	253.26	150.15	417.60	290.93	499.81	325.13	527.60	387.28
	학생 장학 지원	82.81	116.08	260.28	308.10	272.35	339.07	271.06	349.46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90.74	133.17	121.92	190.83	152.31	199.01	146.06	202.4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450.88	513.24	2,058.25	674.92	2,202.71	664.64	2,243.50	657.34	
사립	급식 관리	550.64	281.83	670.22	322.82	774.68	430.28	853.71	500.26
	기숙사 관리	28.61	140.04	63.61	359.18	38.06	149.80	40.95	150.22
	보건 관리	20.61	10.13	27.17	12.52	25.71	9.28	29.83	18.82
	교육격차 해소	570.59	404.49	703.95	485.26	724.16	482.69	665.59	477.11
	학생 장학 지원	185.35	266.22	481.29	494.16	502.90	493.19	516.10	492.49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95.08	84.21	112.01	112.57	137.19	142.64	137.32	154.74
t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45***	-4.92***	-4.37***	-2.21*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1]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단위사업비 비율

<표 41>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총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단위사업들 중에서는 국·공립의 기숙사 관리, 사립의 급식 관리와 기숙사 관리를 제외하고는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총액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라남도가 264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특별

<표 43>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038.95	2,501.48	2,416.18	1,463.65	2,426.91	1,930.74	1,040.52	2,318.86	2,049.34	1,613.38	1,760.47	1,907.49	2,644.25	1,857.87	2,242.32	1,628.62	2.87***
국공립	급식 관리	959.61	711.96	797.79	686.55	907.72	684.13	601.25	1,284.88	818.91	831.40	999.46	876.55	1,343.89	949.26	989.20	743.02	2.29**
	기숙사 관리	98.89	0.00	31.33	0.00	217.00	0.00	9.68	163.90	92.69	14.44	76.55	167.48	191.50	61.96	139.01	9.36	0.82
	보건 관리	35.73	26.77	33.53	33.86	36.15	28.22	24.59	45.61	32.86	26.77	28.17	54.76	27.56	47.89	35.89	26.78	3.78***
	교육격차 해소	527.60	582.28	556.19	515.93	223.52	650.19	341.93	511.09	646.73	598.22	382.59	300.85	890.87	366.32	654.32	412.45	3.11***
	학생 장학 지원	271.06	1,114.69	772.26	3.13	624.07	498.04	0.00	231.72	406.48	27.13	121.74	259.18	68.64	239.44	250.15	357.24	10.47***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146.06	65.79	225.09	224.19	418.44	70.16	63.06	81.65	51.67	115.42	151.96	248.67	121.79	193.01	173.76	79.78	2.0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243.50	2,793.37	2,042.57	1,801.21	1,886.96	2,241.70	1,484.71	-	2,538.28	1,683.04	1,736.13	1,975.77	1,857.83	2,060.42	1,932.55	-	6.62***
사립	급식 관리	853.71	908.85	564.61	577.72	488.44	960.14	748.70	-	953.48	725.11	908.53	1,017.72	1,105.48	1,019.19	760.65	-	1.03
	기숙사 관리	40.95	6.07	0.00	16.61	0.00	0.00	0.00	-	180.60	34.94	8.34	34.55	35.59	50.99	66.90	-	1.60
	보건 관리	29.83	27.77	26.00	25.46	32.44	25.46	33.35	-	30.54	30.53	24.57	30.87	17.33	30.71	58.72	-	1.95*
	교육격차 해소	665.59	915.46	375.97	525.49	525.62	861.03	625.44	-	779.18	461.90	503.72	503.94	302.69	507.95	648.52	-	2.00*
	학생 장학 지원	516.10	828.50	992.44	591.24	437.57	310.49	0.00	-	476.13	328.75	164.48	191.91	295.24	112.12	261.42	-	5.35***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137.32	106.72	83.55	64.70	402.90	84.59	77.21	-	118.36	101.80	126.50	196.78	101.51	339.45	136.33	-	3.79***

*** $p < .001$, ** $p < .01$, * $p < .05$

시가 25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 10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라남도과 대전광역시 두 지역 간 편차가 160만원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단위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 관리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도 전라남도가 134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6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가 74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인 교육격차 해소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또한 전라남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22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67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생 장학 지원 세출금액은 서울특별시가 11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가 0원으로 가장 낮고, 대구광역시가 3천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서울특별시가 27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광역시가 14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31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단위사업 중 비중이 가장 큰 급식 관리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경상북도가 102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4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53만원이다. 교육격차 해소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서울특별시가 92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30만원으로 가장 낮고 두 지역 간 편차는 62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장학 지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부산광역시가 99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1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88만원이다.

다) 기본적 교육활동/선택적 교육활동

<표 42>는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 총액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의 경우 2013년도에 다시 증가한 반면, 사립의 경우 2013년도에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단위사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2010년도에 국·공립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이 사립의 약 1.9배 정도 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그 차이가 더 커져 2.2배 정도로 나타났으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금

액이 증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과 교기육성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등학교의 선택적 교육활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은 2012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평생교육과 국제교육 또한 증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들 중 평생교육을 제외하고는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직업교육과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은 2011년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과 국제교육도 증감 변화가 교차하여 나타났다. 단위사업들이 연도별 세출금액의 증감 변화가 나타나지만, 단위사업 중 평생교육을 제외하고는 2010년 대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높는데, 2010년도에는 국·공립이 사립의 1.7배가량 되었으며 2013년에는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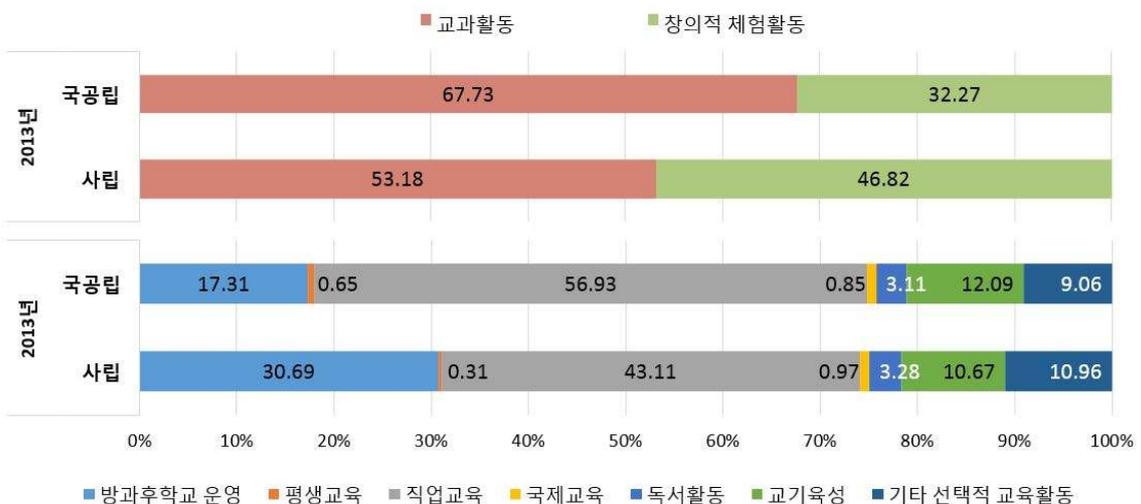
[그림 12]는 2013년 기준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각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인 교과활동의 비율이 67.7%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32.3%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활동의 비율은 53.2%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율은 4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직업교육이 5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17.3%로 두 번째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교기육성이 12.1%,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이 9.1%, 독서교육이 3.1%, 국제교육 0.9%, 평생교육 0.7%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직업교육이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30.7%,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이 11%, 교기육성 11%, 독서활동 3.3%, 국제교육 1%, 평생교육 0.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운영의 비중이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 교육목적에 따라 직업교육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기본적 교육활동		812.30	483.43	992.94	622.25	959.11	599.92	1,074.67	916.24
	교과 활동		518.69	445.10	663.91	543.56	662.96	557.91	727.86	813.39
	창의적 체험활동		293.62	204.58	329.03	335.78	296.15	228.43	346.81	341.86
사립	기본적 교육활동		431.37	256.62	516.82	416.27	508.59	339.02	480.79	335.13
	교과 활동		227.49	212.93	311.94	374.30	287.87	274.92	255.70	285.01
	창의적 체험활동		203.88	103.77	204.87	95.00	220.71	125.18	225.10	118.90
<i>t</i>	기본적 교육활동		8.54***		7.67***		7.99***		7.63***	
국공립	선택적 교육활동		417.20	347.65	619.46	565.81	842.94	1,011.39	871.42	1,100.10
	방과후학교 운영		119.40	130.27	138.36	149.90	148.67	176.63	150.82	185.74
	평생교육		8.24	24.52	5.27	21.25	5.63	20.44	5.70	25.03
	직업교육		154.20	240.18	316.50	481.31	503.11	935.58	496.08	1,017.45
	국제교육		5.73	21.56	6.78	32.62	11.13	56.36	7.45	28.50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24.56	31.04	27.08	30.44
	교기육성		69.91	89.49	92.30	163.83	96.82	122.73	105.32	137.23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9.72	196.79	60.25	186.10	53.02	145.36	78.98	287.67
사립	선택적 교육활동		253.27	188.90	348.16	293.73	462.52	370.95	489.18	396.81
	방과후학교 운영		146.98	138.76	144.60	123.24	145.37	124.39	150.15	124.82
	평생교육		1.78	11.80	6.15	35.58	1.18	3.57	1.54	4.75
	직업교육		52.40	100.87	116.55	205.69	209.61	312.88	210.90	312.68
	국제교육		3.42	13.42	3.01	9.99	3.29	14.15	4.74	19.37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15.26	16.41	16.05	15.76
	교기육성		32.61	57.64	39.83	69.32	44.14	70.94	52.22	122.17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6.07	35.15	38.01	104.28	43.67	126.14	53.59	183.87
<i>t</i>	선택적 교육활동		5.08***		5.23***		4.42***		4.1***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2]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단위사업비 비율

<표 43>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총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단위사업은 국·공립에서 학생 1인당 평균 교과활동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만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21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57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153만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교과활동도 강원도가 15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가 32만원으로 가장 낮고, 두 지역 간 편차는 119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강원도가 59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23만원으로 가장 낮고, 두 지역 간 편차는 36만원으로 나타났고, 시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은 전라남도가 77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37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40만원이며, 시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위사업으로 교과활동은 전라남도가 53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남도가 17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편차는 35만원이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경상북도가 37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2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25만원이고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모두 시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설립유형별로 학생 1인당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 총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는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위사업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과 직업교육, 독서교육, 교기육성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시도 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에서 직업교육과 독서교육,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시도 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경상남도가 235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7만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편차는 218만원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단위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교육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경상남도가 207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광주광역시가 1만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은 전라남도가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7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두 지역 간 27만원의 편차를 나타냈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총액이 경상남도가 100만원으로 가장 높

<표 45>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기본적 교육활동	1,074.67	823.21	859.57	979.89	862.57	735.17	940.78	2,099.10	566.93	886.26	883.02	810.75	1,731.61	914.92	992.70	1,240.59	3.35***
	교과 활동	727.86	542.66	640.04	569.78	558.70	507.13	715.40	1,509.08	322.87	569.60	520.12	548.69	1,258.96	597.22	680.76	872.76	2.45**
	창의적 체험활동	346.81	280.54	219.53	410.11	303.87	228.05	225.37	590.02	244.06	316.66	362.90	262.06	472.64	317.70	311.94	367.83	1.09
사립	기본적 교육활동	480.79	442.50	474.22	654.08	558.54	507.72	389.74	-	370.64	443.80	402.37	483.96	769.93	626.69	415.19	-	0.94
	교과 활동	255.70	221.93	297.46	403.56	350.42	388.43	189.44	-	177.10	180.62	168.34	257.11	527.80	255.71	220.13	-	0.96
	창의적 체험활동	225.10	220.57	176.76	250.51	208.11	119.29	200.30	-	193.54	263.19	234.03	226.85	242.13	370.99	195.05	-	2.12*
선택적 교육활동		871.42	270.46	373.04	618.12	634.34	174.20	623.79	818.95	553.15	671.35	741.73	1,320.67	843.45	873.39	2,345.55	346.82	3.00***
국·공립	방과후학교 운영	150.82	76.82	88.76	123.42	129.52	97.60	118.11	102.06	128.94	169.14	151.75	123.01	342.66	142.44	121.17	71.72	1.98*
	평생교육	5.70	3.02	0.00	10.87	1.08	1.18	0.50	1.18	11.48	0.62	13.80	0.86	9.99	7.23	2.24	3.27	0.42
	직업교육	496.08	90.46	226.99	299.20	407.15	3.26	309.25	425.81	279.42	255.85	246.27	1,056.90	239.71	350.64	2,074.76	129.35	4.11***
	국제교육	7.45	9.69	0.00	0.00	14.72	9.23	5.30	0.30	8.26	0.92	14.80	6.40	9.82	7.53	10.41	4.83	0.28
	독서교육	27.08	6.86	10.80	80.32	26.04	20.77	18.63	17.13	17.92	25.22	24.49	22.85	49.58	34.00	22.57	27.07	2.64**
	교기육성	105.32	14.87	39.28	102.19	31.59	30.83	169.64	174.81	80.42	196.65	91.45	54.07	184.99	66.38	94.91	78.00	2.24**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78.98	68.74	7.22	2.12	24.25	11.34	2.34	97.66	26.71	22.97	199.18	56.60	6.71	265.17	19.50	32.58	1.14
선택적 교육활동		489.18	370.51	318.73	263.75	249.45	160.96	503.83	-	540.67	522.34	410.69	411.69	516.57	1,000.87	1,004.13	-	4.60***
사립	방과후학교 운영	150.15	159.01	94.25	129.91	62.37	101.24	146.15	-	158.58	254.17	122.02	147.31	161.92	192.83	147.19	-	0.82
	평생교육	1.54	2.10	1.05	2.27	1.29	0.45	0.16	-	3.41	0.63	0.59	0.00	0.19	1.13	0.31	-	0.44
	직업교육	210.90	129.79	171.54	73.40	144.35	1.28	230.82	-	183.72	205.14	180.66	193.21	255.94	347.03	777.65	-	3.14***
	국제교육	4.74	6.49	3.78	0.93	0.06	2.49	0.35	-	9.82	0.07	3.22	18.13	4.61	1.61	0.00	-	0.36
	독서교육	16.05	12.85	9.54	5.60	3.00	40.48	25.64	-	20.90	8.70	23.52	10.14	14.11	15.86	28.19	-	2.84**
	교기육성	52.22	11.46	30.34	33.29	1.09	11.39	98.46	-	141.80	46.24	73.96	42.23	78.76	93.34	14.99	-	1.48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3.59	48.79	8.23	18.36	37.29	3.63	2.24	-	22.46	7.38	6.73	0.67	1.05	349.06	35.80	-	2.95**

*** $p < .001$, ** $p < .01$, * $p < .05$

고, 광주광역시가 16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84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단위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교육은 경상남도가 78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만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단위사업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방과후학교 운영은 충청북도가 25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교육활동 지원

<표 44>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교육활동 지원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총액이 2012년까지 계속 감소해오다가 2013년도에 증가하였으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모든 연도에서 국·공립의 교육활동 지원 금액이 사립보다 높으며, 설립유형 간 금액의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립 모두 연도 추이에서 일관적인 경향 없이 증감의 변화가 있으며, 국·공립의 학습지원실 운영을 제외한 단위사업들에서 2010년 대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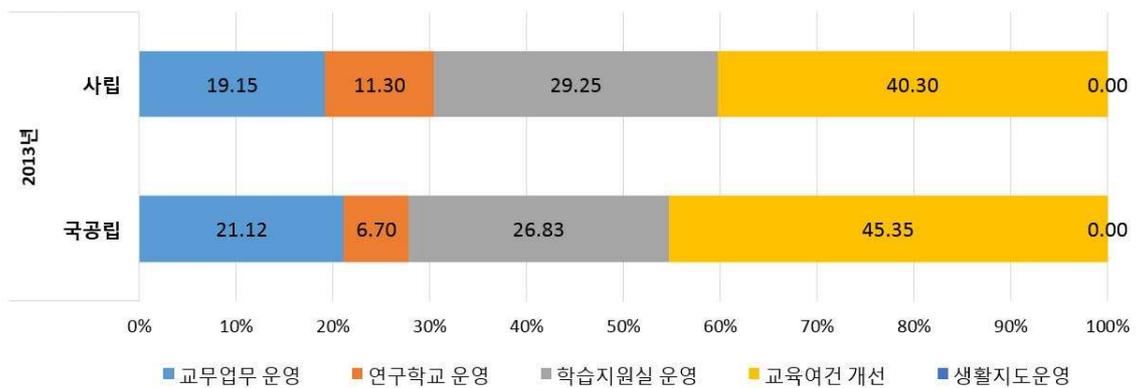
<표 46>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교육활동 지원		593.20	589.66	589.72	506.04	547.58	652.33	648.91	795.41
	교무업무 운영		108.29	137.74	108.26	134.54	112.79	101.66	137.02	121.60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42.46	104.83	45.22	153.37	31.77	82.31	43.48	261.48
	학습지원실 운영		174.79	198.50	174.73	164.23	157.81	153.70	174.10	177.28
	교육여건 개선		267.66	434.62	261.51	344.55	245.21	591.32	294.31	674.71
사립	교육활동 지원		313.92	287.77	332.70	288.99	376.68	358.83	379.77	333.00
	교무업무 운영		57.92	67.35	55.31	50.22	66.84	64.72	72.74	66.28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24.60	87.05	37.93	129.92	40.50	138.13	42.90	141.38
	학습지원실 운영		98.07	101.78	115.35	126.48	107.91	112.31	111.07	139.07
	교육여건 개선		133.32	244.82	124.11	209.73	161.43	271.40	153.06	266.56
<i>t</i>	교육활동 지원		5.25***		5.38***		2.81**		3.89***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3]은 2013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지원 활동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총액에서 교육여건 개선이 4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학습지원실 운영이 26.8%이고, 교무업무 운영 21.1%, 연구학교 운영 6.7%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여건 개선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습지원실 운영이 29.3%, 교무업무 운영 19.2%, 연구학교 운영 1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 단위사업비 비율

<표 45>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는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단위사업에서도 국·공립의 교무업무 운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교육활동 지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91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3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두 지역 간 편차는 61만원이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경상북도가 69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19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50만원이다. 단위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의 경우 전라북도가 53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4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도 단위 지역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여건 개선 금액이 경기도 14만원, 경상북도 26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30만원 이상인데 반하여, 대구광역시가 15만원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10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경상북도가 43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4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7>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교육활동 지원		648.91	297.72	318.89	433.42	299.47	374.22	335.30	914.09	403.58	752.14	697.66	845.64	576.33	895.05	767.63	555.08	0.82
국·공립	교무업무 운영	137.02	100.17	130.36	122.07	94.97	35.42	154.70	198.94	126.02	130.08	100.84	87.96	107.06	198.35	221.76	75.50	2.03*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연구학교 운영	43.48	16.88	17.33	5.73	11.62	150.83	31.81	23.03	27.18	37.29	10.64	15.08	20.72	186.11	6.21	61.31	0.54
	학습지원실 운영	174.10	99.29	74.70	156.30	150.28	123.91	97.97	258.14	108.77	254.28	148.97	208.73	106.79	251.46	225.93	88.88	1.69
	교육여건 개선	294.31	81.38	96.50	149.32	42.59	64.05	50.82	433.98	141.61	330.49	437.20	533.88	341.76	259.13	313.73	329.39	0.5
교육활동 지원		379.77	421.47	393.63	211.21	289.58	381.80	400.42	-	285.13	383.55	313.47	294.07	193.00	687.61	370.94	-	1.24
사립	교무업무 운영	72.74	79.25	75.46	68.17	46.83	24.63	48.26	-	77.43	72.18	46.13	64.80	19.54	101.35	122.55	-	1.24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연구학교 운영	42.90	74.10	65.66	0.50	0.00	43.75	34.81	-	26.28	0.26	144.81	0.00	5.56	15.41	0.15	-	0.67
	학습지원실 운영	111.07	116.05	99.00	98.21	187.41	273.80	97.79	-	97.26	113.01	87.91	68.66	28.86	142.24	82.81	-	0.85
	교육여건 개선	153.06	152.07	153.51	44.33	55.34	39.62	219.57	-	84.16	198.10	34.62	160.62	139.03	428.61	165.43	-	1.36

*** $p < .001$, ** $p < .01$, * $p < .05$

마) 학교 일반운영/학교시설 확충

<표 46>은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과 학교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학교 일반운영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와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세출 총액과 단위사업으로 시설 장비 유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은 국·공립의 경우 감소하다가 2013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2010년대비 2013년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일반행정 관리는 국·공립의 경우 2011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3년도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계속 증가해오다가 2013년도에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2013년도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을 비교해보면,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높게 나타났고, 평균차이가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확충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공립의 경우 2013년도 금액은 2010년 대비 59.4%에 불과하며, 사립의 경우에는 53.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학생 1인당 평균 시설확충 및 개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높고,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는 2013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단위사업 중 시설 장비 유지가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가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국·공립의 경우 58.6%이고 사립의 경우 59.8%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으로 국·공립의 경우 부서 기본 운영이 20.5%, 일반행정 관리가 1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립의 경우 반대로 일반행정 관리가 21.2%, 부서 기본 운영이 18.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교 일반운영	704.71	482.23	719.23	422.06	740.51	436.83	788.40	438.91	
국공립	부서 기본 운영	193.38	228.58	158.21	165.34	156.88	133.62	161.85	135.91
	시설 장비 유지	342.97	264.36	411.84	249.80	432.34	284.55	461.65	267.37
	일반행정 관리	158.15	247.22	139.13	100.26	140.88	102.44	146.86	97.67
	학교운영 협력	10.16	39.07	8.24	41.13	7.83	47.23	15.05	89.65
	학부모 지원	0.05	0.61	1.82	5.44	2.58	5.13	2.99	4.78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306.08	872.04	293.91	802.82	239.15	663.54	181.85	671.02	
학교 일반운영	416.63	200.80	450.02	209.12	458.14	193.73	471.08	184.06	
사립	부서 기본 운영	84.04	73.99	88.96	80.85	82.64	56.46	85.41	60.42
	시설 장비 유지	231.29	147.36	257.12	168.34	267.69	137.20	281.66	129.65
	일반행정 관리	94.02	94.92	100.04	71.73	103.46	89.21	99.92	74.37
	학교운영 협력	7.28	31.25	3.17	4.44	3.14	4.97	2.96	4.44
	학부모 지원	0.00	0.00	0.73	1.70	1.21	2.22	1.13	1.76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784.86	1,183.00	662.70	1,099.58	421.36	570.37	423.18	644.61	
t	학교 일반운영	6.87***		7.05***		7.33***		8.3***	
	학교시설 확충	-3.7***		-3.07**		-2.39*		-3.03**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4]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단위사업비 비율

<표 47>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과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학교 일반운영과 단위사업의 평균차이 검증결과, 국·공립의 경우 단위사업인 부서 기본 운영에서만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립의 경우 학생 1인당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과 단위사업으로 시설 장비 유지, 일반행정 관리, 학부모 지원에서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9>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학교 일반운영	788.40	720.46	660.97	543.12	633.68	511.63	519.29	1,010.08	650.28	798.39	786.90	791.08	940.74	984.05	713.07	511.17	1.51
	부서 기본 운영	161.85	97.89	88.18	85.63	113.09	71.53	85.63	287.75	105.15	144.80	147.79	199.73	213.72	192.86	136.34	129.58	2.38**
	시설 장비 유지	461.65	397.11	293.74	338.28	383.44	307.88	341.43	562.06	399.11	490.11	444.95	437.64	606.37	565.80	419.27	258.05	1.59
	일반행정 관리	146.86	220.37	152.34	109.42	133.12	125.17	90.00	153.12	143.33	152.81	188.05	143.12	111.90	153.64	147.30	115.44	0.91
	학교운영 협력	15.05	3.80	124.64	7.65	1.92	2.55	1.73	2.77	1.09	6.85	3.49	4.83	7.36	68.86	5.27	5.25	1.10
	학부모 지원	2.99	1.28	2.08	2.14	2.11	4.50	0.50	4.38	1.59	3.82	2.63	5.77	1.38	2.90	4.88	2.85	1.11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181.85	134.65	27.24	21.20	205.17	3.54	37.87	256.95	560.88	28.84	231.67	99.33	45.68	253.28	100.58	73.87	0.64
사립	학교 일반운영	471.08	547.81	408.67	375.26	438.30	368.48	387.10	-	404.82	357.24	516.06	487.61	390.19	637.75	436.44	-	2.38**
	부서 기본 운영	85.41	99.93	51.54	93.70	67.84	35.51	71.67	-	58.86	90.60	104.60	81.84	105.52	132.46	64.22	-	1.79
	시설 장비 유지	281.66	308.85	217.71	242.99	244.23	199.80	229.19	-	273.87	199.35	310.80	352.61	195.84	422.96	276.55	-	2.38**
	일반행정 관리	99.92	135.69	135.15	33.40	124.80	130.27	83.82	-	69.92	61.97	90.30	50.45	86.06	74.58	91.19	-	2.13*
	학교운영 협력	2.96	2.72	3.39	2.57	0.74	1.28	1.62	-	1.62	4.92	7.06	2.10	2.22	5.35	2.69	-	1.09
	학부모 지원	1.13	0.62	0.88	2.59	0.69	1.63	0.80	-	0.55	0.41	3.30	0.61	0.56	2.40	1.78	-	2.58**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423.18	303.96	380.56	158.10	165.95	1,035.22	205.01	-	260.75	55.96	608.73	1,379.69	647.91	780.95	587.23	-	1.92*

*** $p < .001$, ** $p < .01$, * $p < .05$

<표 47>에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일반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강원도가 101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가 51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5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강원도가 29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7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전라남도가 6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2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일반행정 관리 세출금액은 충청남도가 19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일반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경상북도가 64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북도가 36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28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경상북도가 13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4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경상북도가 42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전라남도가 2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일반행정 관리 세출금액은 서울특별시가 14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3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학교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으로 시설확충 및 개선의 학생 1인당 비용의 시도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간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의 세출금액은 경기도가 56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세출금액은 전라북도가 138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북도가 6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지역 간 편차는 132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바) 학교 재무활동/이월금/불용액/보조금 반환 확정금액

<표 21>은 학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과 예비비, 이월금, 불용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의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학교가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의 지표가 되는 반환금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에 3천원, 2011년에 2천원, 2012년 3천원, 2013년 8천원 수준이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2천원이었고, 2011년에는 5천원, 2012년 8천원, 2013년 1만2천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22만원이었으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감소하여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1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이 2010년 37만원이었고,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 증감 변화를 보이다가 2013년 금액이 13만원으로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반환금 및 불용액 규모가 모두 감소한 것을 통해서 학교들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표 50>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재무활동 세출금액 및 이월금, 불용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학교 재무활동	3.25	16.53	2.32	10.13	3.00	11.59	8.29	23.21
	반환금	3.25	16.53	2.20	10.03	3.00	11.59	8.29	23.21
	예비비	0.00	0.00	0.13	1.63	0.00	0.00	0.00	0.00
사립	학교 재무활동	1.51	8.82	5.05	15.52	7.92	13.87	11.63	32.67
	반환금	1.51	8.82	5.05	15.52	7.92	13.87	11.63	32.67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t</i>	학교 재무활동	1.14		-1.65		-3.12**		-1.00	
국공립	이월금	235.76	604.36	227.26	660.65	427.56	1,159.79	258.62	348.16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00	0.00	0.00	0.00	4.09	52.53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219.38	587.76	203.15	655.78	362.09	1,082.06	229.81	325.40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16.39	66.44	24.11	96.20	61.38	318.29	28.81	127.15
	불용액	219.14	218.46	220.72	231.08	251.20	404.87	179.67	338.46
	보조금반환확정금액	4.87	28.01	3.28	12.31	6.64	27.89	10.33	54.84
사립	이월금	254.32	616.35	157.20	299.81	192.00	516.49	238.22	457.03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57	4.34	0.19	1.48	0.00	0.00	1.71	18.32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169.99	533.87	97.48	168.43	167.63	497.63	198.02	411.32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83.76	304.89	59.53	240.08	24.37	110.38	38.49	164.25
	불용액	371.70	899.84	233.38	359.11	377.24	1,180.15	132.91	257.72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45	7.42	0.74	3.04	21.72	198.42	3.57	11.42
<i>t</i>	이월금	-0.25		1.06		2.3*		0.42	
	불용액	-1.78		-0.36		-1.1		1.25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49		2.55*		-0.96		1.54	

*** $p < .001$, ** $p < .01$, * $p < .05$

<표 49>는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 재무활동 및 이월금, 불용액을 시·도교육청 간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전라남도가 학생 1인당 평균 1만원 이상이며, 그 외의 지역들은 1만원 미만

<표 51>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재무활동 세출금액 및 이월금, 불용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학교 재무활동	8.29	25.83	1.03	0.00	0.00	1.83	0.29	35.13	8.71	0.05	6.13	0.70	14.43	1.38	4.15	2.99	2.77**
	반환금	8.29	25.83	1.03	0.00	0.00	1.83	0.29	35.13	8.71	0.05	6.13	0.70	14.43	1.38	4.15	2.99	2.77**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사립	학교 재무활동	11.63	23.89	2.70	0.00	6.23	87.62	1.03	-	1.96	14.45	6.30	0.00	0.00	0.00	0.00	-	3.51***
	반환금	11.63	23.89	2.70	0.00	6.23	87.62	1.03	-	1.96	14.45	6.30	0.00	0.00	0.00	0.00	-	3.5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국공립	이월금	258.62	79.75	265.42	111.87	108.28	165.18	114.11	279.22	203.42	197.86	302.77	242.76	254.54	496.57	258.54	255.69	1.10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229.81	63.26	263.70	93.03	108.23	150.38	114.11	264.18	143.10	193.61	231.31	220.11	249.59	496.20	165.83	220.21	1.48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28.81	16.49	1.72	18.84	0.05	14.81	0.00	15.04	60.32	4.25	71.46	22.66	4.96	0.37	92.70	35.47	0.68
	불용액	179.67	174.99	98.86	118.08	251.80	76.24	53.83	251.78	119.22	131.29	60.70	135.58	342.23	309.65	115.34	112.54	0.96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0.33	4.30	0.00	0.00	2.88	0.00	1.55	41.55	44.48	0.61	2.97	0.02	2.63	0.46	6.55	2.59	1.08
사립	이월금	238.22	154.45	223.58	302.17	124.72	117.84	95.38	-	311.09	39.79	132.15	80.68	128.72	933.76	68.75	-	2.87**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1.71	5.95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19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198.02	142.68	215.32	196.36	124.72	100.21	89.34	-	288.12	39.79	119.93	71.82	80.60	671.88	62.84	-	1.58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38.49	5.81	8.26	105.80	0.00	17.63	6.04	-	22.97	0.00	12.22	8.86	48.11	261.88	5.91	-	2.10*
	불용액	132.91	164.80	73.90	48.98	145.13	120.51	69.64	-	129.57	75.79	62.07	77.21	502.19	63.42	99.93	-	1.39
보조금반환확정금액		3.57	3.37	0.18	0.00	0.00	11.02	1.80	-	1.18	6.63	16.60	10.74	3.93	0.02	5.20	-	1.27

*** $p < .001$, ** $p < .01$, * $p < .05$

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3개 지역이 평균 1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1만원 미만이거나 반환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전라남도가 34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광역시가 5만원으로 가장 낮고,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네 개 지역이 1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10만원을 초과하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라남도가 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가 5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다섯 개 지역이 10만원을 초과하며, 그 외의 지역은 10만원 미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성질별 세출결산 비교

<표 50>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성질별 세출결산에서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9%에서 1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4%에서 5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 50>에서는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성질비목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552만원이고,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485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성질비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전체의 7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17.9%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0.6%이고,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이며, 불용액의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또한 운영비가 7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취득비가 14%를 차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의 비율은 4.9%이고, 불용액의 규모는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성질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세출총액	3,969.06	(100.00)	5,015.75	(100.00)	6,056.29	(100.00)	6,220.18	(100.00)
인건비	393.20	(9.91)	530.45	(10.58)	677.03	(11.18)	699.97	(11.25)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3,575.85	(100.00)	4,485.31	(100.00)	5,379.26	(100.00)	5,520.21	(100.00)
국공립								
운영비	2,380.78	(66.58)	3,138.53	(69.97)	3,838.21	(71.35)	4,063.01	(73.60)
자산취득비	692.64	(19.37)	870.50	(19.41)	803.10	(14.93)	988.14	(17.90)
예비비및기타	47.52	(1.33)	28.29	(0.63)	59.20	(1.10)	30.76	(0.56)
이월금	236.38	(6.61)	227.26	(5.07)	427.56	(7.95)	258.62	(4.68)
불용액	218.53	(6.11)	220.72	(4.92)	251.20	(4.67)	179.67	(3.25)
사립								
세출총액	8,487.11	(100.00)	9,504.86	(100.00)	10,484.76	(100.00)	10,621.87	(100.00)
인건비	4,371.74	(51.51)	4,885.31	(51.40)	5,546.21	(52.90)	5,775.71	(54.38)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4,115.37	(100.00)	4,619.56	(100.00)	4,938.55	(100.00)	4,846.16	(100.00)
운영비	2,552.58	(62.03)	3,228.51	(69.89)	3,678.15	(74.48)	3,753.19	(77.45)
자산취득비	965.42	(23.46)	957.58	(20.73)	679.82	(13.77)	679.89	(14.03)
예비비및기타	24.14	(0.59)	42.89	(0.93)	48.68	(0.99)	42.55	(0.88)
이월금	254.32	(6.18)	157.20	(3.40)	192.00	(3.89)	238.22	(4.92)
불용액	318.90	(7.75)	233.38	(5.05)	339.90	(6.88)	132.31	(2.73)

가) 인건비

<표 51>은 인건비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건비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타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정된 인건비 원가통계비목으로 분리되어 포함되었다. 연도별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건비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기타직 보수와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인 보수와 기타직 보수,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2년까지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다.

<표 52>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로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세목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의 학생 1인당 평균 금액만 시도 간 평균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 총액과 세목별 세출금액에 대한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강원도가 93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31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62만원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경상남도가 35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7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28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타직 보수는 강원도가 58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8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40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전라북도가 11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6만원 수준으로 두 지역 간 편차는 6만원이다.

<표 53>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인건비	393.20	295.34	530.45	305.23	677.03	338.85	699.97	384.56	
국공립	보수	12.09	39.26	1.40	7.41	0.00	0.00	0.00	0.00
	기간제근로자보수	117.44	127.57	204.54	162.04	268.16	202.50	242.14	181.03
	기타직보수	198.26	198.32	240.49	202.59	319.53	235.45	366.89	266.19
	학교운영지원비수당	65.41	49.33	84.01	40.75	89.33	36.25	90.94	38.55
인건비	4,371.74	1,546.32	4,885.31	1,608.91	5,546.21	1,259.03	5,775.71	1,156.92	
사립	보수	4,006.48	1,456.74	4,327.82	1,520.11	4,781.76	1,211.17	4,928.55	1,123.59
	기간제근로자보수	104.84	107.97	192.59	134.57	260.37	189.14	256.72	196.98
	기타직보수	201.17	201.80	303.94	233.24	438.12	284.14	523.59	337.60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9.24	21.18	60.95	19.88	65.97	15.66	66.86	15.37

<표 52>에서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에 대한 시도 간 차이를 보면, 경상남도가 669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북도가 467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격차가 202만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보수는 부산광역시가 570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39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77만원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학생 1인당 평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서울특별시가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7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두 지역 간 편차는 27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타직 보수는 대구광역시가 70만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19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51만원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경상남도가 8만원을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4만원 수준으로 두 지역 간 편차는 4만원이다.

<표 54>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인건비		699.97	642.56	613.23	684.53	617.17	310.04	480.83	925.65	583.70	752.63	713.80	673.35	809.20	641.35	812.71	575.38	1.18
국공립	보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간제근로자보수	242.14	246.27	250.72	207.81	216.81	72.97	140.71	241.34	273.62	209.33	270.63	205.45	284.57	179.68	354.63	243.89	1.10
	기타직보수	366.89	311.90	270.16	388.97	312.75	181.87	268.27	579.46	241.93	467.03	358.51	353.08	412.53	369.90	356.97	260.77	1.50
	학교운영지원비수당	90.94	84.39	92.35	87.74	87.60	55.20	71.85	104.86	68.14	76.27	84.66	114.83	112.10	91.77	101.12	70.73	2.24**
인건비		5,775.71	6,215.57	6,175.14	5,131.48	5,399.94	4,678.38	5,377.66	-	4,845.32	4,670.47	6,129.10	6,003.71	5,923.02	6,129.50	6,693.53	-	3.53***
사립	보수	4,928.55	5,141.95	5,699.27	4,131.13	4,982.67	3,930.19	4,806.77	-	4,047.49	3,948.71	5,314.94	5,253.83	5,301.66	5,184.82	5,688.72	-	3.19***
	기간제근로자보수	256.72	344.61	208.55	232.63	111.39	182.19	72.87	-	330.97	183.09	130.51	150.53	171.96	305.47	228.28	-	2.09*
	기타직보수	523.59	654.01	192.53	703.85	237.94	521.22	435.73	-	414.50	489.61	619.87	533.98	386.06	566.99	697.00	-	2.35*
	학교운영지원비수당	66.86	74.99	74.79	63.86	67.95	44.79	62.28	-	52.37	49.07	63.77	65.36	63.34	72.21	79.53	-	6.26***

*** $p < .001$, ** $p < .01$, * $p < .05$

나) 운영비

<표 53>은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 1인당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의 비율은, 업무추진비가 2.2% 미만이며, 상대적으로 학교운영비의 비율은 97.8% 이상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와 학교운영비의 연도별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0년과 2011년도는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가 국·공립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부터는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가 사립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의 평균차이는 2013년에만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의 격차가 2010년에는 17만원, 2011년에는 9만원, 2012년에는 16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31만원으로 격차가 증가하였다.

<표 55>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운영비	2,380.78	1,668.48	3,138.53	1,347.27	3,838.21	1,817.43	4,063.01	1,622.19	
국공립	업무추진비	50.59	54.17	57.88	59.24	50.24	32.73	52.49	36.54
	학교운영비	2,330.19	1,639.32	3,080.65	1,312.07	3,787.97	1,801.45	4,010.53	1,598.43
	교육운영비	856.00	842.10	1,211.19	551.97	1,962.70	1,144.21	2,022.90	778.27
	법정부담금	36.80	35.29	54.20	45.75	40.96	27.02	44.94	32.16
	일반운영비	1,437.39	1,067.97	1,815.25	957.11	1,784.31	906.46	1,942.69	1,007.87
운영비	2,552.58	948.31	3,228.51	1,083.35	3,678.15	859.42	3,753.19	875.13	
사립	업무추진비	48.15	66.57	52.03	92.12	31.63	42.55	27.51	22.18
	학교운영비	2,504.43	919.40	3,176.47	1,061.12	3,646.52	849.29	3,725.67	870.09
	교육운영비	1,047.44	519.72	1,552.70	644.51	1,980.94	561.08	1,981.42	574.96
	법정부담금	258.19	86.90	304.10	95.66	320.87	71.61	337.68	69.15
	일반운영비	1,198.79	562.03	1,319.68	629.12	1,344.71	596.83	1,406.57	621.74
<i>t</i> 운영비	-1.09		-0.62		0.98		2.06*		

*** $p<.001$, ** $p<.01$, * $p<.05$

<표 53>의 학교운영비의 세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는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계속 증가해왔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가 더 컸지만, 2013년에는 반대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가 사립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일반운영비는 국·공립의 경우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사립의 경우 일반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법정부담금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기타직과 계약직법정부담금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은 정규직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어있어 국·공립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표 54>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시도교육청 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및 세목별 금액의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사립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대한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와 세목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는 법정부담금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운영비와 학교운영비, 교육운영비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는 전라남도가 541만원이고, 대전광역시가 259만원으로 두 지역 간에 282만원의 큰 편차를 보였다. 학교운영비도 두 지역 간에 279만원의 큰 편차를 보였으며, 교육운영비에서는 편차가 156만원이다. 업무추진비는 경기도가 3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일반운영비는 광주광역시가 13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법정부담금은 강원도가 8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2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는 경상북도가 447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가 271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75만원이다. 이 두 지역 간의 학교운영비 편차는 177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운영비는 서울특별시가 241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116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25만원이다. 일반운영비는 경상북도가 197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광역시가 8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두 지역 간 편차는 117만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자산취득비

<표 55>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연도별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의 현황과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 및 세목별 금액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증감의 변화가 교차되어 나타났고,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3년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가 증가하였고, 세목으로 기타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2010년 대비 2013년 학생 1인당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규모는 2011년까지는 국·공립보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

<표 56>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국·공립	운영비	4,063.01	4,065.36	3,735.84	3,075.56	3,681.94	3,214.12	2,586.38	4,557.01	3,497.91	3,515.90	3,736.99	4,421.67	5,409.10	4,271.19	4,274.40	3,255.49	2.25**
	업무추진비	52.49	53.31	38.75	43.38	31.74	32.52	39.39	68.32	29.16	51.06	49.26	57.94	76.98	48.78	61.99	50.90	1.89*
	학교운영비	4,010.53	4,012.05	3,697.09	3,032.18	3,650.20	3,181.60	2,546.99	4,488.69	3,468.75	3,464.84	3,687.73	4,363.73	5,332.12	4,222.42	4,212.41	3,204.59	2.24**
	교육운영비	2,022.90	2,436.62	2,210.80	1,666.84	1,921.95	1,859.10	1,145.72	1,983.47	1,816.85	1,764.49	1,605.18	2,227.66	2,709.56	2,083.52	2,197.85	1,763.72	2.86***
	법정부담금	44.94	60.31	30.91	45.03	39.27	17.84	42.53	75.30	32.92	49.66	40.13	32.54	46.25	35.68	55.10	52.99	2.09*
	일반운영비	1,942.69	1,515.11	1,455.38	1,320.32	1,688.99	1,304.66	1,358.73	2,429.91	1,618.98	1,650.69	2,042.41	2,103.53	2,576.31	2,103.22	1,959.45	1,387.89	1.82*
사립	운영비	3,753.19	4,323.81	3,445.56	3,059.61	3,184.45	3,419.59	2,707.20	-	3,908.05	3,078.54	3,164.44	3,344.15	3,575.67	4,472.05	3,292.93	-	5.39***
	업무추진비	27.51	36.81	24.44	23.16	22.81	11.33	27.53	-	23.85	20.23	33.23	17.46	16.14	23.97	31.55	-	1.05
	학교운영비	3,725.67	4,287.00	3,421.12	3,036.45	3,161.63	3,408.26	2,679.67	-	3,884.20	3,058.31	3,131.21	3,326.70	3,559.53	4,448.08	3,261.37	-	5.38***
	교육운영비	1,981.42	2,410.88	2,073.26	1,676.85	2,055.88	1,968.62	1,162.22	-	2,017.32	1,681.70	1,186.16	1,335.44	1,899.85	2,122.30	1,595.86	-	6.91***
	법정부담금	337.68	362.77	358.82	296.62	305.53	261.31	313.21	-	296.31	271.89	352.67	350.61	327.69	360.18	403.43	-	3.3***
	일반운영비	1,406.57	1,513.34	989.04	1,062.98	800.22	1,178.34	1,204.25	-	1,570.58	1,104.72	1,592.38	1,640.65	1,332.00	1,965.61	1,262.09	-	2.27*

*** $p < .001$, ** $p < .01$, * $p < .05$

의 세출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사립보다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 2010년과 2013년의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자산취득비	692.64	934.39	870.50	896.20	803.10	876.77	988.14	1,406.25	
국공립	시설비	293.45	765.41	332.08	769.88	353.55	558.49	402.15	878.74
	비품구입비	396.16	437.65	537.48	395.57	442.22	520.09	576.31	915.73
	적립금	0.85	5.05	0.94	4.83	7.33	17.37	9.67	26.36
	기타자산취득비	2.18	13.72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취득비	965.42	1,228.05	957.58	1,159.33	679.82	652.46	679.89	797.51	
사립	시설비	704.46	1,110.70	629.92	1,048.05	473.18	602.13	479.80	680.33
	비품구입비	254.10	226.46	326.85	307.39	203.18	198.72	191.15	259.58
	적립금	5.37	30.11	0.25	1.54	3.46	10.98	8.95	63.31
	기타자산취득비	1.48	6.32	0.55	3.04	0.00	0.00	0.00	0.00
<i>t</i>	자산취득비	-2.01*		-0.68		1.28		2.33*	

*** $p < .001$, ** $p < .01$, * $p < .05$

<표 56>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2013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와 세목별 금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시설비 항목을 제외하고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적립금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시·도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총액은 강원도가 213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3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두 지역 간 편차는 188만원이다. 시설비는 경상남도가 69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대전광역시 1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품구입비는 강원도가 15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14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전라북도 161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충청북도가 28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두 지역 간 편차는 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설비 또한 전라북도가 136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17만원으로 가장 낮다. 비품구입은 경상남도가 56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8>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자산취득비		988.14	350.52	426.83	407.27	913.25	281.83	502.61	2,130.28	786.56	575.92	770.67	973.31	794.28	964.11	2,116.76	680.01	1.98*
국공립	시설비	402.15	200.74	63.34	110.34	403.99	62.03	3.21	591.75	651.51	191.59	564.93	121.86	247.55	573.26	689.97	232.91	0.76
	비품구입비	576.31	139.96	349.17	292.67	509.26	219.80	498.86	1,500.44	134.44	372.49	201.03	837.95	538.27	388.05	1,418.66	428.04	3.43***
	적립금	9.67	9.83	14.32	4.27	0.00	0.00	0.54	38.08	0.61	11.84	4.72	13.49	8.46	2.80	8.13	19.06	1.91*
	기타자산취득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산취득비		679.89	500.76	633.90	437.43	574.12	1,194.71	586.54	-	340.94	275.22	760.47	1,608.69	830.66	1,215.59	1,333.01	-	2.01*
사립	시설비	479.80	339.84	386.84	167.72	177.56	1,013.71	250.17	-	253.46	214.26	612.63	1,359.40	690.43	1,062.80	774.33	-	2.23*
	비품구입비	191.15	137.21	240.56	268.08	396.56	181.00	333.88	-	86.19	51.11	147.84	249.29	133.09	148.17	558.68	-	2.43**
	적립금	8.95	23.72	6.50	1.62	0.00	0.00	2.48	-	1.29	9.85	0.00	0.00	7.14	4.62	0.00	-	0.21
	기타자산취득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p < .001$, ** $p < .01$, * $p < .05$

라) 예비비 및 기타/이월금/불용액

<표 57>은 예비비와 반환금, 전출금, 이월금, 불용액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1만원 미만 수준에서 나타나며, 사립 특성화고등학교는 2012년도까지 1만원 미만 수준이었다가 2013년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22만원이었으며, 2012년까지 불용액 규모가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감소하였으며,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18만원으로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증감 변화가 있었으며, 2010년 32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13만원 수준으로 19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립유형 간 예비비 및 기타와 불용액의 평균차이 검증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예비비 및 기타, 이월금, 불용액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예비비 및 기타	47.52	312.56	28.29	103.54	59.20	280.73	30.76	112.28		
반환금	4.68	22.68	5.15	20.53	3.83	13.77	8.29	23.2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42.84	311.78	23.14	100.80	55.37	281.12	22.47	111.46		
국공립 이월금	236.38	604.17	227.26	660.65	427.56	1,159.79	258.62	348.16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00	0.00	0.00	0.00	4.09	52.53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	219.99	587.58	203.15	655.78	362.09	1,082.06	229.81	325.40		
다음년도사고이월	16.39	66.44	24.11	96.20	61.38	318.29	28.81	127.15		
불용액	218.53	218.21	220.72	231.08	251.20	404.87	179.67	338.46		
예비비 및 기타	24.14	100.29	42.89	162.92	48.68	151.61	42.55	131.65		
반환금	5.28	30.02	7.29	23.84	7.92	13.87	11.63	32.67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18.86	95.43	35.60	162.08	40.76	151.63	30.92	125.91		
사립 이월금	254.32	616.35	157.20	299.81	192.00	516.49	238.22	457.03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57	4.34	0.19	1.48	0.00	0.00	1.71	18.32		
다음년도명시이월	169.99	533.87	97.48	168.43	167.63	497.63	198.02	411.32		
다음년도사고이월	83.76	304.89	59.53	240.08	24.37	110.38	38.49	164.25		
불용액	318.90	723.26	233.38	359.11	339.90	1,121.62	132.31	257.95		
t	예비비 및 기타		0.77		-0.92		0.37		-0.8	
	이월금		-0.24		1.06		2.3*		0.42	
	불용액		-1.44		-0.36		-0.81		1.27	

*** $p < .001$, ** $p < .01$, * $p < .05$

<표 58>은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세출결산의 성질비목 중 예비비와 기타, 이월금,

<표 60> 2013년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예비비 및 기타, 이월금, 불용액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F
예비비 및 기타	30.76	25.83	1.03	1.03	0.00	7.71	41.17	42.31	45.55	0.05	6.80	12.61	43.82	29.81	104.53	2.99	0.73
반환금	8.29	25.83	1.03	0.00	0.00	1.83	0.29	35.13	8.71	0.05	6.13	0.70	14.43	1.38	4.15	2.99	2.77**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전출금	22.47	0.00	0.00	1.03	0.00	5.87	40.88	7.18	36.84	0.00	0.67	11.91	29.39	28.43	100.38	0.00	0.71
국·공립 이월금	258.62	79.75	265.42	111.87	108.28	165.18	114.11	279.22	203.42	197.86	302.77	242.76	254.54	496.57	258.54	255.69	1.1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다음년도명시이월	229.81	63.26	263.70	93.03	108.23	150.38	114.11	264.18	143.10	193.61	231.31	220.11	249.59	496.20	165.83	220.21	1.48
다음년도사고이월	28.81	16.49	1.72	18.84	0.05	14.81	0.00	15.04	60.32	4.25	71.46	22.66	4.96	0.37	92.70	35.47	0.68
불용액	179.67	174.99	98.86	118.08	251.80	76.24	53.83	251.78	119.22	131.29	60.70	135.58	342.23	309.65	115.34	112.54	0.96
예비비 및 기타	42.55	90.30	2.70	0.00	6.23	87.62	3.17	-	31.53	15.25	6.30	68.48	0.00	0.00	95.81	-	0.89
반환금	11.63	23.89	2.70	0.00	6.23	87.62	1.03	-	1.96	14.45	6.30	0.00	0.00	0.00	0.00	-	3.5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전출금	30.92	66.41	0.00	0.00	0.00	0.00	2.14	-	29.57	0.80	0.00	68.48	0.00	0.00	95.81	-	0.65
사립 이월금	238.22	154.45	223.58	302.17	124.72	117.84	95.38	-	311.09	39.79	132.15	80.68	128.72	933.76	68.75	-	2.87**
다음년도계속비이월	1.71	5.95	0.00	0.00	0.00	0.00	0.00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19
다음년도명시이월	198.02	142.68	215.32	196.36	124.72	100.21	89.34	-	288.12	39.79	119.93	71.82	80.60	671.88	62.84	-	1.58
다음년도사고이월	38.49	5.81	8.26	105.80	0.00	17.63	6.04	-	22.97	0.00	12.22	8.86	48.11	261.88	5.91	-	2.1*
불용액	132.31	164.80	73.90	48.98	127.85	120.51	69.64	-	129.57	75.79	62.07	77.21	502.19	63.42	99.93	-	1.38

*** $p < .001$, ** $p < .01$, * $p < .05$

불용액에 대한 시·도교육청 간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 국·공립과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의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의 경우 추가적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이월금이 시·도 간 평균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출금, 불용액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금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강원도와 서울특별시가 학생 1인당 평균 1만원 이상이며, 그 외의 지역들은 1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세 개 지역이 평균 1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1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경상북도가 31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광역시가 5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불용액 규모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네 개의 지역이 10만원 미만이며, 그 외의 지역은 1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3. 자율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이 절에서는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 간 학교 교육재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율고등학교의 전체 사례 수는 48개교이고, 그 중 국·공립학교는 20개교(41.7%)이고, 사립학교는 28개교(58.3%)이다.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액 비교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표 5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31억9,370만원 수준이며, 사립학교는 100억 8,11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세입결산에서 정규교직원 보수와 교직원 법정 부담금을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58억2,56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였을 때,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는 391만원, 사립학교는 576만원 수준으로 약 185만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들이 자율형 공립고에 비해 학부모 부담의 등록금을 약 3배 가량 더 많이 받는 반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상의 재정

결함보조금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학생당 세입 차이는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59>과 [그림 15]을 통해 나타난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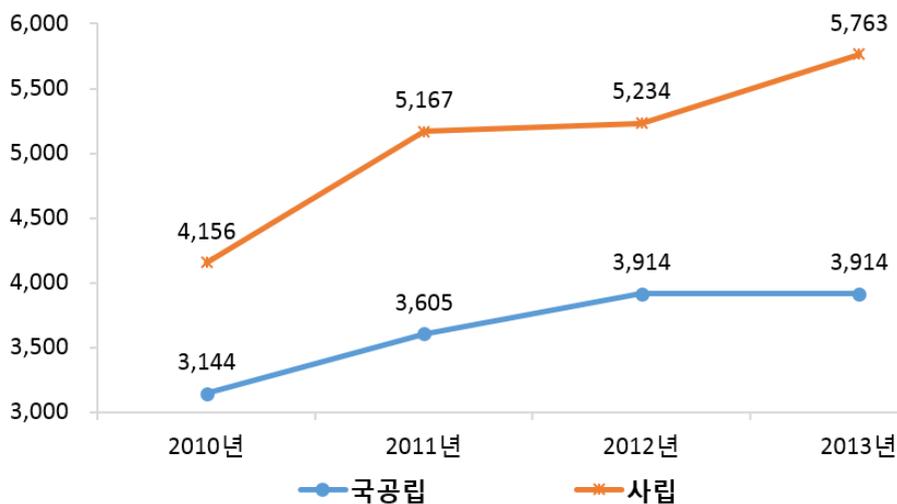
<표 61>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				사립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2010	3,086,691	778,316	1,483,509	4,691,811	9,303,876	1,755,850	4,939,141	12,765,057	-
	2011	3,318,058	908,837	1,980,815	5,500,914	10,065,358	1,461,725	6,881,283	13,500,140	-
	2012	3,363,316	859,566	2,327,268	5,497,626	10,097,245	1,698,620	6,563,815	13,463,947	-
	2013	3,193,702	866,867	1,933,823	4,942,036	10,081,168	1,920,656	6,850,986	14,994,255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2010	3,073,625	786,751	1,483,509	4,691,811	5,232,528	1,596,501	2,990,516	9,094,924	-
	2011	3,317,427	908,665	1,980,815	5,500,914	6,034,979	1,587,365	4,005,640	10,683,284	-
	2012	3,363,316	859,566	2,327,268	5,497,626	5,764,808	1,250,314	3,847,946	9,033,828	-
	2013	3,193,702	866,867	1,933,823	4,942,036	5,825,682	1,626,623	3,160,964	10,806,854	-
제외 총액	2010	3,144.03	857.15	1,711.08	5,128.63	4,156.46	1,561.40	1,801.73	8,186.25	-2.88**
	2011	3,605.45	783.15	2,366.57	5,178.03	5,167.04	1,952.74	2,712.57	10,135.94	-3.82***
	2012	3,914.20	889.45	2,931.99	5,831.12	5,233.68	1,078.84	3,693.16	7,232.85	-4.48***
	2013	3,914.27	1,161.69	2,665.66	7,328.05	5,762.55	1,413.73	3,682.79	9,262.44	-4.8***

*** $p < .001$, ** $p < .01$, * $p < .05$

(단위: 천원)



[그림 15]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표 6>에서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작게는 267만원에서 많게는 733만원까지 나타났고, 사립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작게는 368만원에서 많게는 926만원으로, 국·공립학교들 간 편차에 비하여 사립학교들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가 국·공립학교들은 116만원인데 반하여, 사립학교는 141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학교들 간 분산이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더 큰 것으로 학교들 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세입항목별 비교

<표 60>은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을 세입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며, 사립학교는 정규직 교원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모두 세입 총액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항목별로는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학부모부담 수입과 행정활동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며, 다른 항목들은 증감의 변화가 있으며 일관적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 립	세입결산총액	3,159.55	857.45	3,606.18	783.35	3,914.20	889.46	3,914.27	1,161.69
	이전수입	1,331.71	540.00	1,601.76	423.91	1,872.52	610.56	1,796.51	779.04
	중앙정부	0.75	3.37	0.00	0.00	0.28	1.25	0.31	1.15
	지방자치단체	242.57	331.46	220.15	127.26	220.41	175.88	213.02	203.35
	교육비특별회계	1,070.45	401.17	1,318.08	362.14	1,618.45	528.98	1,525.47	532.09
	기타	17.94	32.36	63.53	144.46	33.39	65.22	57.71	163.79
	자체수입	1,618.78	515.68	1,749.90	481.49	1,839.90	478.42	1,920.24	513.45
	학부모부담	1,555.05	525.06	1,672.28	496.70	1,758.54	497.45	1,832.74	535.69
	행정활동	63.73	57.13	77.61	62.63	81.36	75.59	87.50	84.80
	기타수입	209.06	204.50	254.52	337.66	201.78	172.86	197.52	126.46
	전년도이월금	209.06	204.50	254.52	337.66	201.78	172.86	197.52	126.46
	사립	세입결산총액	7,259.30	1,577.36	8,413.59	1,594.05	9,150.07	1,326.01	10,015.30
이전수입		3,454.96	1,186.63	3,201.90	844.15	2,700.55	757.76	2,262.05	1,202.01
중앙정부		0.00	0.01	0.00	0.00	0.10	0.54	0.00	0.00
지방자치단체		144.76	138.65	176.75	120.12	227.70	157.41	202.83	124.77
교육비특별회계		2,776.86	1,194.51	2,218.65	815.74	1,630.87	815.51	990.31	923.14
기타		533.33	505.35	806.50	643.49	841.88	510.01	1,068.91	654.08
자체수입		3,630.88	1,177.62	4,764.49	1,069.75	6,193.77	1,187.23	7,349.01	1,004.74
학부모부담		3,513.34	1,116.75	4,695.09	1,070.44	6,026.08	1,054.82	7,149.26	866.80
행정활동		117.55	305.77	69.40	42.15	167.69	469.82	199.75	521.60
기타수입		173.46	239.27	447.19	587.37	255.75	218.26	404.24	375.87
전년도이월금		173.46	239.27	447.19	587.37	255.75	218.26	404.24	375.87

나.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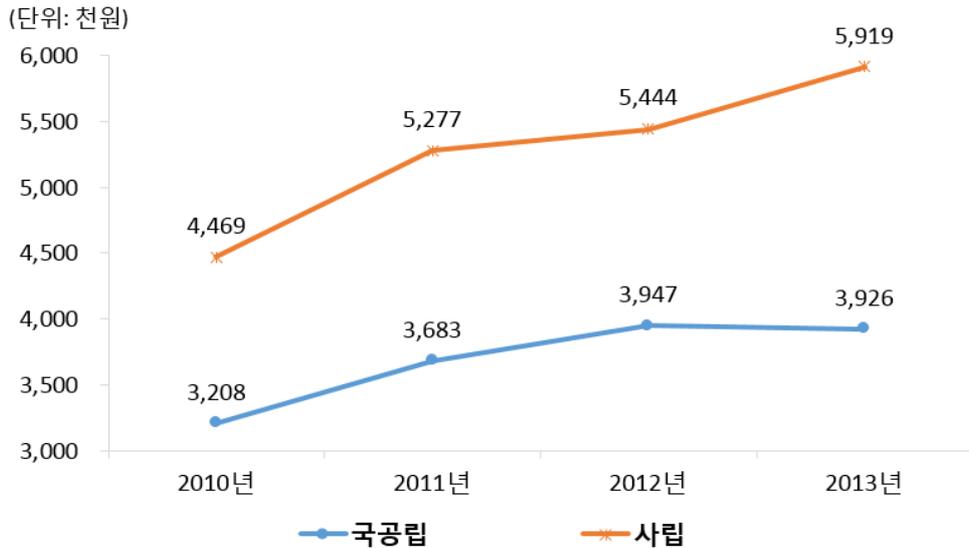
<표 61>는 자율고등학교의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과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단위학교 세출결산 총액은 32억317만원 수준이며,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102억2,475만원 수준이다.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제외하면,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59억6,92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으로 산출하면, 2013년 기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393만원,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592만원 수준으로 약 199만원의 차이가 나타나며,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세출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의 설립유형별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며,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의 차이가 점차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3>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출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n=354)				사립(n=324)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단위 학교	2010	3,154,048	801,550	1,497,189	4,767,673	9,650,319	1,860,655	5,100,215	13,852,529	-
	2011	3,393,662	912,196	1,995,192	5,506,037	10,184,867	1,431,738	7,723,499	13,603,236	-
	2012	3,390,939	849,870	2,340,061	5,510,496	10,290,821	1,692,141	6,812,837	13,462,934	-
	2013	3,203,170	866,649	1,938,975	4,945,830	10,224,746	1,898,257	6,886,391	15,048,849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제외 총액 1인당	2010	3,140,982	809,250	1,497,189	4,767,673	5,578,970	1,836,999	3,151,590	10,220,264	-
	2011	3,393,031	912,070	1,995,192	5,506,037	6,154,488	1,602,702	4,010,736	10,940,186	-
	2012	3,390,939	849,870	2,340,061	5,510,496	5,958,384	1,322,442	3,943,105	9,032,815	-
	2013	3,203,170	866,649	1,938,975	4,945,830	5,969,259	1,604,618	3,164,799	10,861,448	-
제외 총액 1인당	2010	3,208.47	858.99	1,726.86	5,176.13	4,469.50	1,924.17	1,879.40	9,492.97	-3.07**
	2011	3,683.12	757.20	2,383.74	5,181.06	5,277.23	1,994.62	2,829.74	10,379.68	-3.86***
	2012	3,947.02	879.93	3,068.81	5,876.13	5,444.24	1,382.38	3,742.59	9,621.21	-4.26***
	2013	3,926.40	1,165.24	2,676.70	7,359.87	5,918.50	1,434.16	3,678.57	9,348.38	-5.12***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6]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표 61>에서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가장 적게는 268만원이며 가장 많게는 736만원까지 나타나 국·공립학교들 간 평균 편차가 최고 4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가장 작게는 368만원이고 가장 많게는 935만원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들 간 평균 편차는 최고 567만원이다. 또한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표준편차가 117만원이고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표준편차는 143만원으로 사립학교들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의 학교들 간 편차가 국·공립학교들보다 더 크고 분산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별 세출결산 비교

<표 62>는 정책사업 단위에서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에서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의 비율은 46.1%에서 47.3%에 이른다. 따라서 <표 62>에서는 인적자원 운용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정책사업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376만원이고,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548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7개의 정책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전체의 4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적 교육활동이 13.8%를 차지하고, 이어 교육활동 지원이 13.1%, 학교 일반운영 12.9%, 선택적 교육활동 10.8%, 학교시설 확충 2.3%, 학교 재무활동 0.3%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 또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4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택적 교육활동이 11.2%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학교 일반운영이 9.4%, 기본적 교육활동 8.6%, 학교시설 확충 7.9%, 교육활동 지원 4.8%, 학교 재무활동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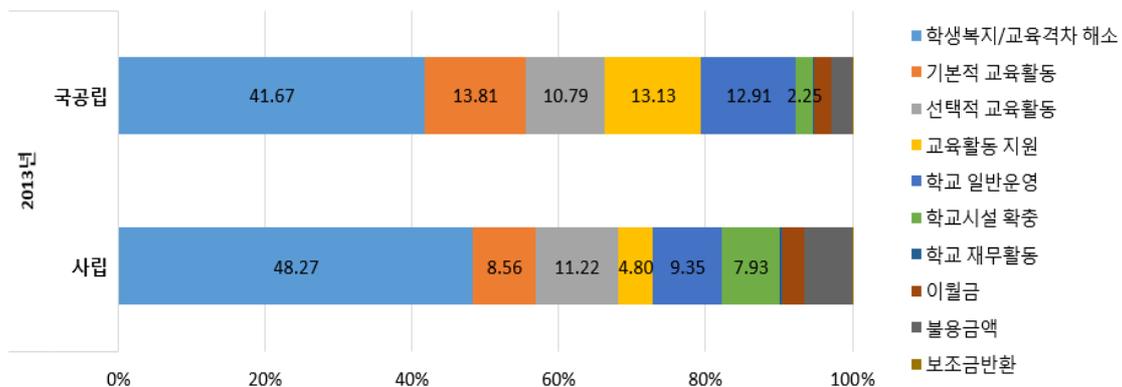
설립유형별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지원은 계속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비율과 세출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은 2011년도까지 증가해오다가 2012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확충도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감소하였다. 반면,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비, 선택적 교육활동, 학교 일반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교육활동 지원은 2012년까지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으나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교시설 확충의 세출금액은 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세출총액의 차이가 어떠한 정책사업에서 나타나는지 2013년 기준으로 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비용을 비교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국·공립학교가 157만원이며 사립학교가 265만원으로 사립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108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이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209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일반운영에서도 학생 1인당 평균 3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시설 확충에서 2013년 기준으로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35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 교육비에 해당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국·공립 자율고등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52만원이고,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47만원으로 국·공립이 5만원 정도 더 많고, 교육활동 지원에서 국·공립 자율고등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23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에서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의 격차가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4>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사업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세출총액	3,223.99	(100.00)	3,683.85	(100.00)	3,947.02	(100.00)	3,926.41	(100.00)	
인적자원 운용	175.23	(5.44)	149.23	(4.05)	161.94	(4.10)	167.55	(4.27)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3,048.76	(100.00)	3,534.62	(100.00)	3,785.07	(100.00)	3,758.86	(100.00)	
국공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48.74	(37.68)	1,333.32	(37.72)	1,467.06	(38.76)	1,566.42	(41.67)
	기본적 교육활동	336.86	(11.05)	460.55	(13.03)	593.73	(15.69)	519.27	(13.81)
	선택적 교육활동	460.96	(15.12)	468.47	(13.25)	399.59	(10.56)	405.70	(10.79)
	교육활동 지원	391.36	(12.84)	416.02	(11.77)	519.75	(13.73)	493.52	(13.13)
	학교 일반운영	344.65	(11.30)	418.76	(11.85)	470.36	(12.43)	485.33	(12.91)
	학교시설 확충	66.74	(2.19)	155.81	(4.41)	108.29	(2.86)	84.39	(2.25)
	학교 재무활동	0.00	(0.00)	9.67	(0.27)	5.33	(0.14)	10.92	(0.29)
	이월금	136.89	(4.49)	66.48	(1.88)	73.69	(1.95)	88.09	(2.34)
	불용금액	162.47	(5.33)	204.16	(5.78)	140.60	(3.71)	101.95	(2.71)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10	(0.00)	1.39	(0.04)	6.66	(0.18)	3.28	(0.09)
세출총액	7,572.34	(100.00)	8,523.77	(100.00)	9,360.63	(100.00)	10,171.25	(100.00)	
인적자원 운용	3,582.46	(47.31)	3,953.11	(46.38)	4,315.09	(46.10)	4,691.49	(46.13)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3,989.88	(100.00)	4,570.67	(100.00)	5,045.53	(100.00)	5,479.75	(100.00)	
사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245.30	(31.21)	1,709.03	(37.39)	2,254.56	(44.68)	2,645.11	(48.27)
	기본적 교육활동	299.71	(7.51)	408.84	(8.94)	448.36	(8.89)	468.91	(8.56)
	선택적 교육활동	452.57	(11.34)	552.94	(12.10)	583.31	(11.56)	614.58	(11.22)
	교육활동 지원	180.93	(4.53)	246.65	(5.40)	290.30	(5.75)	263.30	(4.80)
	학교 일반운영	413.58	(10.37)	434.61	(9.51)	501.18	(9.93)	512.33	(9.35)
	학교시설 확충	783.93	(19.65)	785.25	(17.18)	302.94	(6.00)	434.60	(7.93)
	학교 재무활동	0.66	(0.02)	1.45	(0.03)	2.43	(0.05)	16.79	(0.31)
	이월금	306.60	(7.68)	167.69	(3.67)	220.03	(4.36)	163.67	(2.99)
	불용금액	305.98	(7.67)	263.39	(5.76)	439.03	(8.70)	360.09	(6.57)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62	(0.02)	0.81	(0.02)	3.40	(0.07)	0.38	(0.01)



[그림 17] 2013년도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인적자원 운용 제외한 사업별 세출금액 비율

가) 인적자원 운용

<표 63>은 자율고등학교의 세출결산에서 인적자원 운용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원기타보수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에 교직원기타보수 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연도별로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의 세출규모가 증가한 것에 반하여,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2011년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증가하였으나,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연수 및 맞춤형복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및 각종 행사 지원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세출금액도 국·공립의 경우 계속 감소하다가 2013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립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원기타보수가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44만원으로 국·공립 15만원에 비하여 9.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인적자원 운용	175.23	114.28	149.23	136.68	161.94	135.58	167.55	151.66	
국공립	교직원 보수	155.20	110.12	133.23	137.43	-	-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0.03	34.75	16.01	30.29	15.00	9.22	18.74	11.14
	교직원 기타보수	-	-	-	-	146.94	134.35	148.81	149.78
인적자원 운용	3,582.46	561.37	3,953.11	564.22	4,315.09	567.26	4,691.49	671.91	
사립	교직원 보수	3,528.86	547.04	3,881.13	539.98	2,675.53	1,762.96	3,166.82	1,793.04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53.60	45.20	71.98	79.57	79.69	43.50	89.31	68.10
	교직원 기타보수	-	-	-	-	1,559.87	1,901.37	1,435.37	1,928.01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표 64>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규모가 28.5% 증가하였지만, 사립 자율고

등학교의 경우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에 설립유형 간 차이가 10만원 정도였던 것이 2013년에는 108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모든 단위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급식관리 하나의 단위사업에서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단위사업별 세출규모도 보건 관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세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총액은 2010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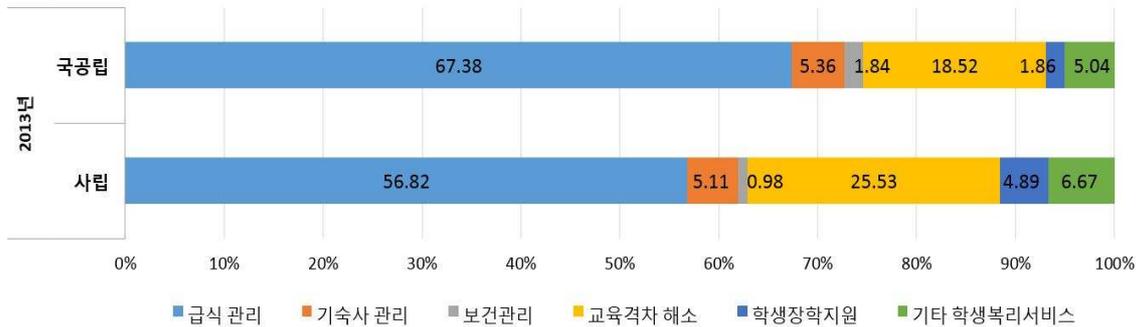
<표 66>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48.74	454.82	1,333.32	411.72	1,467.06	480.31	1,566.42	579.46	
국공립	급식 관리	782.97	364.40	887.36	353.91	943.24	350.92	1,055.41	423.74
	기숙사 관리	52.63	130.56	63.12	148.79	57.80	127.66	83.93	163.17
	보건 관리	22.45	7.24	27.13	10.12	29.64	7.77	28.88	8.23
	교육격차 해소	205.33	130.18	244.14	141.78	304.33	124.39	290.12	115.56
	학생 장학 지원	17.10	32.70	31.53	39.18	24.73	34.08	29.16	41.21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68.25	23.46	80.03	30.12	107.32	23.66	78.92	47.71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245.30	630.45	1,709.03	631.38	2,254.56	769.73	2,645.11	906.76	
사립	급식 관리	731.46	333.08	961.91	329.55	1,281.13	557.54	1,478.23	498.59
	기숙사 관리	55.36	236.59	83.82	241.23	115.11	189.89	227.92	330.72
	보건 관리	17.40	7.80	23.85	15.92	22.11	5.08	24.29	4.79
	교육격차 해소	275.89	206.44	398.64	263.89	575.51	323.87	615.15	396.99
	학생 장학 지원	60.15	130.81	108.76	129.03	110.27	129.58	128.51	131.87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105.04	97.42	132.05	74.89	150.43	94.65	171.02	121.49
<i>t</i>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0.58	-2.33*	-4.36***	-5.02***			

*** $p<.001$, ** $p<.01$, * $p<.05$

[그림 4]는 2013년 기준으로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급식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7.4%,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격차 해소 비용의 비율이 각각 18.5%, 25.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학교는 기숙사 관리 비용의 비율이 5.4%로 세 번째로 높으며,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5%, 학생 장학 지원 1.9%, 보건관리 1.8%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비용의 비율이 6.7%로 세 번째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숙사 관리 5.1%, 학생 장학 지원 4.9%, 보건관리 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2013년도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단위사업비 비율

다) 기본적 교육활동/선택적 교육활동

<표 65>는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가 사립 자율고등학교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 총액이 모든 연도에서 더 높게 나타나지만,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기본적 교육활동과 단위사업 모두 2012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기본적 교육활동의 세출 총액과 단위사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사업으로 교과활동은 2012년까지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의 세출금액의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2012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으로 가장 비중이 큰 방과후학교 운영비도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2012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도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교기육성의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와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1년 감소했다가 이후 2013년에 증가했으나 2013년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2010년에는 사립보다 국·공립 자율고등학교가 더 높았

으나 2011년부터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국·공립보다 높게 나타나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 차이는 2012년도와 2013년도만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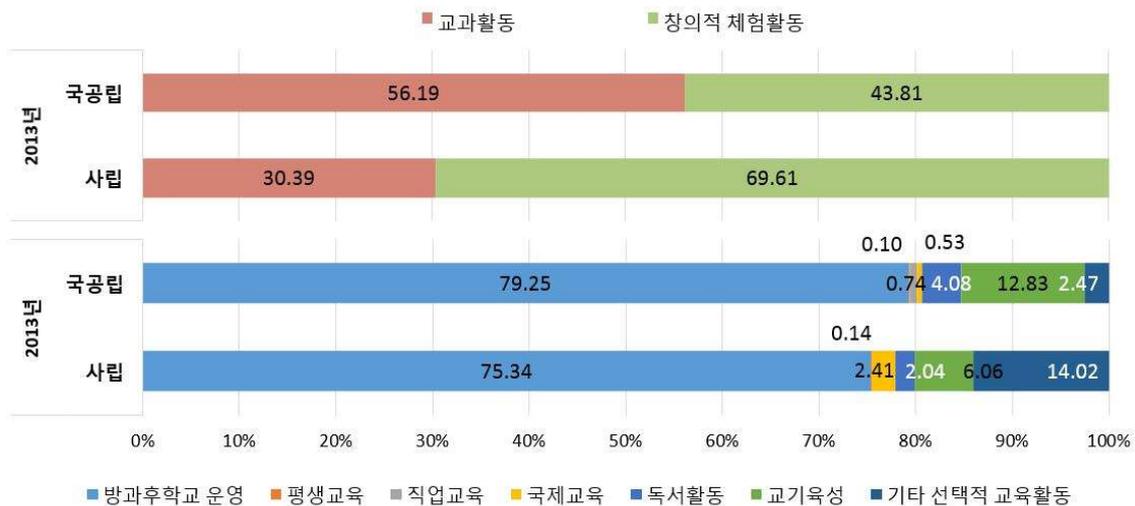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기본적 교육활동		336.86	126.83	460.55	224.49	593.73	380.38	519.27	311.17
	교과 활동		133.92	83.57	288.64	236.24	351.08	363.22	291.77	279.09
	창의적 체험활동		202.95	100.09	171.91	77.70	242.65	93.80	227.49	94.10
사립	기본적 교육활동		299.71	144.75	408.84	164.58	448.36	167.74	468.91	186.02
	교과 활동		74.03	58.09	142.35	94.79	149.22	131.23	142.52	151.85
	창의적 체험활동		225.68	141.18	266.49	151.80	299.14	160.70	326.39	143.09
<i>t</i>	기본적 교육활동		0.92		0.92		1.6		0.65	
국공립	선택적 교육활동		460.96	244.23	468.47	205.88	399.59	190.48	405.70	207.18
	방과후학교 운영		361.65	164.35	390.95	166.45	320.70	143.15	321.53	150.82
	평생교육		0.18	0.43	0.51	1.08	0.24	0.52	0.40	0.94
	직업교육		8.35	13.70	11.31	34.56	4.66	13.08	2.99	9.23
	국제교육		5.98	20.02	1.62	4.50	3.99	10.60	2.17	4.26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11.80	10.66	16.53	14.22
	교기육성		35.58	55.65	41.92	56.70	49.78	74.86	52.04	76.24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49.22	123.90	22.16	33.48	8.42	13.09	10.04	15.99
사립	선택적 교육활동		452.57	279.17	552.94	252.90	583.31	250.61	614.58	290.79
	방과후학교 운영		350.99	173.95	423.39	189.15	445.19	225.48	463.01	251.81
	평생교육		0.83	2.53	0.46	0.94	0.96	2.17	0.88	2.23
	직업교육		5.40	8.51	4.49	8.28	1.25	4.21	0.00	0.00
	국제교육		17.69	91.48	18.05	79.57	9.28	30.90	14.78	32.24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12.02	12.21	12.51	14.47
	교기육성		21.88	27.01	29.00	38.73	32.88	44.55	37.25	52.07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5.78	147.43	77.54	172.86	81.72	165.93	86.15	175.04
<i>t</i>	선택적 교육활동		0.11		-1.23		-2.76**		-2.75**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19]는 2013년 기준으로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각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인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은 국·공립과 사립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총액에서 교과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로 창의적 체험활동보다 더 높은데 반하여,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이 69.6%로 교과활동보다 더 높다.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이 79.3%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교기육성이 12.8%, 독서활동 4.1%,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2.5%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이 7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4.2%, 교기육성 6.1%, 국제교육 2.4%, 독서활동 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2013년도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단위사업비 비율

라) 교육활동 지원

<표 66>은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교육활동 지원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와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으나,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연도에서 국·공립의 교육활동 지원 금액이 사립보다 높으며, 설립유형 간 금액의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국·공립의 경우 연도별 추이에서 증감의 변화가 보이나 모든 단위사업에서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이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교무업무 운영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단위사업들은 증감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연구학교 운영을 제외하고는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 운영은 증감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총액규모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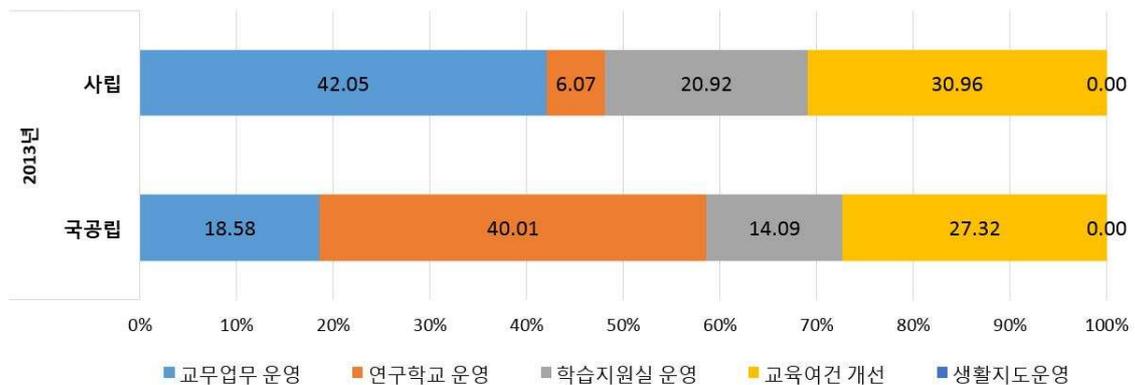
<표 68>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교육활동 지원		391.36	372.29	416.02	232.89	519.75	342.32	493.52	229.79
	교무업무 운영	49.51	28.37	66.78	30.49	66.30	28.98	91.68	90.20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166.12	268.71	183.83	177.27	223.27	190.06	197.47	138.96	
	학습지원실 운영	53.16	20.12	63.58	25.51	61.72	29.81	69.53	48.16	
	교육여건 개선	122.57	166.19	101.83	96.51	168.46	335.02	134.85	159.68	
사립	교육활동 지원		180.93	84.50	246.65	117.43	290.30	206.14	263.30	183.68
	교무업무 운영	85.37	56.39	87.58	47.19	107.12	125.08	110.72	93.96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22.03	58.14	15.83	54.35	23.46	75.90	15.99	45.45	
	학습지원실 운영	48.42	35.55	53.40	32.76	56.79	49.05	55.07	53.22	
	교육여건 개선	25.11	33.19	89.84	106.88	102.93	157.27	81.52	118.56	
<i>t</i>	교육활동 지원		2.48*		2.99**		2.89**		3.85***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0]은 2013년 기준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지원 활동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 중 연구학교 운영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27.3%이고, 교무업무 운영 18.6%, 학습지원실 운영 14.1% 순이다.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 교무업무 운영이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31%의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지원실 운영 20.9%, 연구학교 운영 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2013년도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 단위사업비 비율

마) 학교 일반운영/학교시설 확충

<표 67>은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과 학교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학교 일반운영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와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세출 총액과 단위사업으로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단위사업으로 일반행정 관리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운영 협력은 2011년부터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부서 기본 운영과 학교운영 협력은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이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은 2011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행정 관리는 계속해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단위사업의 경우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운영 협력은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3년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 간 비교해보면, 모든 연도에서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더 높으나 평균차이 검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2012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이 사립이 국·공립보다 모든 연도에서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1]은 2013년 기준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단위사업의 비중 순서는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은 시설 장비 유지로 국·공립은 55.5%, 사립은 5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관리의 비중이 크며 국·공립은 31.3%, 사립은 31.9%이다.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부서 기본 운영으로 국·공립은 12.5%, 사립은 1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 협력은 국·공립이 0.6%, 사립이 0.4%로 나타났고, 학부모 지원은 국·공립이 0.2%, 사립이 0.4%로 나타났다.

<표 69>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교 일반운영	344.65	90.58	418.76	64.44	470.36	127.09	485.33	118.55	
국공립	부서 기본 운영	64.91	59.17	75.86	53.28	64.36	25.63	60.43	19.94
	시설 장비 유지	180.74	88.79	211.94	62.06	263.98	85.64	269.46	86.40
	일반행정 관리	94.34	91.48	125.30	51.89	138.75	63.67	151.85	62.78
	학교운영 협력	4.66	5.75	4.32	5.83	1.97	1.55	2.82	3.10
	학부모 지원	0.00	0.00	1.34	1.99	1.30	1.85	0.77	1.17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66.74	100.89	155.81	308.71	108.29	137.99	84.39	123.83	
학교 일반운영	413.58	215.26	434.61	241.80	501.18	249.94	512.33	193.53	
사립	부서 기본 운영	61.38	48.84	61.04	39.77	64.95	61.58	70.03	61.88
	시설 장비 유지	200.13	96.39	214.48	93.08	267.83	154.95	275.03	105.42
	일반행정 관리	149.18	169.55	155.02	168.39	164.38	134.01	163.46	127.52
	학교운영 협력	2.89	4.33	3.14	5.92	2.13	3.93	2.00	3.11
	학부모 지원	0.00	0.00	0.92	1.02	1.89	1.80	1.81	2.13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783.93	719.52	785.25	831.61	302.94	352.95	434.60	838.55	
<i>t</i> 학교 일반운영	-1.35		-0.33		-0.56		-0.55		
학교시설 확충	-5.2***		-3.67***		-2.65*		-2.18*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1] 2013년도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단위사업비 비율

바) 학교 재무활동/이월금/불용액/보조금 반환 확정금액

<표 68>은 학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과 예비비, 이월금, 불용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의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반환금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 재무활동에서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 규모는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2012년

도까지 1만원 미만이었다가 2013년에 1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금반환확정 금액에서도 학생 1인당 평균 1만원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국·공립 자율학교의 경우 2010년에 학생 1인당 평균 16만원에서 2012년도에 20만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2010년에 학생 1인당 평균 31만원이었고, 2011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도에 다시 증가하여 학생 1인당 평균 44만원이었다가 2013년 감소하여 학생 1인당 평균 36만원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대비 증가한 금액이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의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평균차이는 2013년도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0>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재무활동 세출금액 및 이월금, 불용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학교 재무활동	0.00	0.00	9.67	31.33	5.33	8.04	10.92	12.33
	반환금	0.00	0.00	9.67	31.33	5.33	8.04	10.92	12.33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립	학교 재무활동	0.66	2.45	1.45	2.66	2.43	3.49	16.79	39.01
	반환금	0.66	2.45	1.45	2.66	2.43	3.49	16.79	39.0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t</i>	학교 재무활동	-1.43		1.17		1.51		-0.65	
국공립	이월금	136.89	284.23	66.48	118.37	73.69	113.24	88.09	117.40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00	0.00	0.00	0.00	0.00	0.00	14.58	65.21
	다음년도명사이월금액	76.76	120.74	63.93	116.64	72.42	113.95	72.44	78.47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60.14	262.65	2.55	8.78	1.27	5.70	1.08	4.81
	불용액	162.47	165.95	204.16	166.64	140.60	77.89	101.95	48.00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10	0.34	1.39	5.81	6.66	9.86	3.28	7.52
사립	이월금	306.60	532.38	167.69	196.67	220.03	274.93	163.67	160.62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57.04	301.81	25.46	134.75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사이월금액	67.99	85.92	110.79	137.80	154.06	144.15	163.67	160.62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181.57	460.50	31.44	89.47	65.97	268.52	0.00	0.00
	불용액	305.98	431.34	263.39	481.84	439.03	1,016.92	360.09	654.15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62	2.39	0.81	4.30	3.40	8.44	0.38	1.94
<i>t</i>	이월금	-1.3		-2.22*		-2.24*		-1.88	
	불용액	-1.6		-0.53		-1.55		-2.08*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95		0.39		1.23		1.69	

*** $p<.001$, ** $p<.01$, * $p<.05$

3) 성질별 세출결산 비교

<표 69>는 성질별 세출결산으로 자율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8%에서 15.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에서 4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자율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성질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국공립	세출총액	2,953.01	(100.00)	3,537.79	(100.00)	3,940.36	(100.00)	3,923.12	(100.00)								
	인건비	289.47	(9.80)	447.61	(12.65)	574.59	(14.58)	599.37	(15.28)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2,663.54	(100.00)	3,090.17	(100.00)	3,365.77	(100.00)	3,323.76	(100.00)								
	운영비	2,128.26	(79.90)	2,498.51	(80.85)	2,743.66	(81.52)	2,809.74	(84.54)								
	자산취득비	232.62	(8.73)	311.33	(10.07)	384.67	(11.43)	313.06	(9.42)								
	예비비및기타	0.10	(0.00)	9.70	(0.31)	23.14	(0.69)	10.92	(0.33)								
	이월금	136.89	(5.14)	66.48	(2.15)	73.69	(2.19)	88.09	(2.65)								
	불용액	165.68	(6.22)	204.16	(6.61)	140.60	(4.18)	101.95	(3.07)								
	세출총액	7,089.36	(100.00)	7,685.58	(100.00)	9,337.36	(100.00)	10,170.87	(100.00)								
	인건비	3,190.29	(45.00)	3,542.90	(46.10)	4,358.35	(46.68)	4,752.65	(46.73)								
사립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3,899.07	(100.00)	4,142.67	(100.00)	4,979.00	(100.00)	5,418.22	(100.00)								
	운영비	2,775.64	(71.19)	3,059.98	(73.86)	3,885.77	(78.04)	4,318.79	(79.71)								
	자산취득비	506.84	(13.00)	648.80	(15.66)	451.58	(9.07)	558.88	(10.31)								
	예비비및기타	4.02	(0.10)	2.82	(0.07)	2.47	(0.05)	16.79	(0.31)								
	이월금	306.60	(7.86)	174.44	(4.21)	220.03	(4.42)	163.67	(3.02)								
	불용액	305.98	(7.85)	256.64	(6.20)	419.16	(8.42)	360.09	(6.65)								

따라서 <표 69>에서는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성질비목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332만원이고,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54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설립유형별로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성질비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전체의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취득비가 9.4%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0.3%이고,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이며, 불용액의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 또한 운영비가 79.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취득비가 10.3%를 차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의 비율은 3%이고, 불용액의 규모는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 인건비

<표 70>은 인건비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건비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타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정된 인건비 원가통계비목으로 분리되어 포함되었다. 연도별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건비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기타직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2012년도부터 감소하였다.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인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타직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인건비	289.47	115.16	447.61	138.54	574.59	143.22	599.37	187.53	
국공립	보수	15.52	35.26	0.73	1.69	-	-	-	-
	기간제근로자보수	93.42	77.93	179.84	92.96	211.91	115.63	200.51	114.22
	기타직보수	130.50	63.46	187.78	123.95	294.91	182.57	333.12	179.72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0.03	27.60	79.26	26.94	67.76	14.73	65.73	11.34
인건비 - 인건비	3,190.29	686.12	3,542.90	912.33	4,358.35	558.78	4,752.65	670.92	
사립	보수	2,944.14	674.18	3,075.56	832.17	3,703.75	587.13	4,023.89	741.70
	기간제근로자보수	43.73	66.69	137.09	114.75	219.79	156.63	258.99	204.18
	기타직보수	151.29	161.23	283.00	165.95	377.93	196.19	403.53	192.85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1.13	21.35	47.26	14.49	56.88	17.44	66.24	28.24

나) 운영비

<표 71>은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 1인당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의 비율은, 업무추진비가 3% 미만이며, 상대적으로

학교운영비의 비율은 97% 이상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와 학교운영비의 연도별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와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의 규모는 2010년 국·공립의 1.3배였고 2013년에는 1.5배로 증가하여, 2013년 기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는 281만원, 학교운영비는 278만원으로 나타났고,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평균 운영비가 432만원이고, 학교운영비는 430만원으로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의 세부성질비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는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해왔고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9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152만원으로 국·공립 학교보다 학생 1인당 평균 62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일반 운영비는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 감소했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학생 1인당 평균 183만원으로 나타났고,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일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3년에는 평균 250만원으로 국·공립학교보다 평균 67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는 기타직과 계약직 법정부담금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은 정규직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어있어 국·공립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표 73>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운영비	2,128.26	902.74	2,498.51	665.81	2,743.66	596.76	2,809.74	748.39
	업무추진비	53.75	71.35	45.82	45.70	31.25	9.48	32.22	7.84
	학교운영비	2,074.51	895.58	2,452.69	662.77	2,712.42	592.38	2,777.52	746.08
	교육운영비	603.57	477.55	582.23	168.06	912.12	195.51	904.87	224.65
	법정부담금	31.28	19.87	55.20	21.78	37.09	18.28	43.45	22.92
	일반운영비	1,439.66	608.45	1,815.26	613.62	1,763.21	484.50	1,829.21	598.68
사립	운영비	2,775.64	1,073.02	3,059.98	1,046.75	3,885.77	822.66	4,318.79	889.13
	업무추진비	39.67	38.26	36.27	33.57	21.25	8.82	22.71	10.09
	학교운영비	2,735.97	1,068.78	3,023.71	1,033.25	3,864.51	824.37	4,296.07	890.73
	교육운영비	787.14	809.12	822.98	413.86	1,335.56	425.14	1,517.03	536.57
	법정부담금	200.80	46.65	227.43	71.22	259.90	35.98	283.33	40.51
	일반운영비	1,748.03	626.04	1,973.30	669.82	2,269.05	621.20	2,495.71	650.80
<i>t</i> 운영비	-2.2*		-2.11*		-5.29***		-6.18***		

*** $p < .001$, ** $p < .01$, * $p < .05$

다) 자산취득비

<표 72>는 자율고등학교의 연도별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의 현황과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총액과 세목별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총액과 세목으로 시설비 세출금액은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비품구입비는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적립금은 2011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산취득비 규모를 보면, 2013년 기준 국·공립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32만원이고, 이 중 비품구입비가 16만원으로 52.2%, 시설비가 14만원으로 44.7%에 해당한다.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56만원이고, 이 중 비품구입비가 9만원으로 16.7%, 시설비가 45만원으로 80.6%에 해당하였다. 연도별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 2010년과 2011년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자산취득비	232.62	237.30	311.33	303.34	384.67	378.54	313.06	222.49
	시설비	109.07	225.51	124.59	287.20	147.76	203.83	139.97	141.23
	비품구입비	123.15	114.31	183.53	107.02	219.69	188.24	164.50	143.85
	적립금	0.38	1.53	3.21	14.38	17.22	33.26	8.59	12.89
	기타자산취득비	0.03	0.09	0.00	0.00	0.00	0.00	0.00	0.00
사립	자산취득비	506.84	411.99	648.80	748.08	451.58	371.13	558.88	892.95
	시설비	422.27	432.32	541.51	718.36	342.60	351.01	450.72	869.68
	비품구입비	83.54	63.08	106.58	79.14	105.06	91.11	93.44	53.33
	적립금	0.82	4.35	0.67	3.55	3.93	8.82	14.72	55.65
	기타자산취득비	0.21	0.77	0.03	0.15	0.00	0.00	0.00	0.00
<i>t</i>	자산취득비	-2.91**		-2.15*		-0.61		-1.2	

*** $p < .001$, ** $p < .01$, * $p < .05$

라) 예비비 및 기타/이월금/불용액

<표 73>은 예비비와 반환금, 전출금, 이월금, 불용액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반환금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과 사립 자율고등학교 모두 2012년까지는 1만원 미만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1만원을 초과하였으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가 1만1천원,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1만7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17만원이었으며, 2011년 이후 불용액 규모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 자율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31만원이었고, 증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36만원 수준으로 불용액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의 평균차이 검증결과는 2013년도에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며, 그 외에는 유의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자율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예비비 및 기타, 이월금, 불용액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예비비 및 기타	0.10	0.43	9.70	31.63	23.14	78.48	10.92	12.33
	반환금	0.00	0.00	9.51	31.32	5.33	8.04	10.92	12.33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0.10	0.43	0.19	0.58	17.81	79.32	0.00	0.00
	이월금	136.89	284.23	66.48	118.37	73.69	113.24	88.09	117.40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00	0.00	0.00	0.00	0.00	0.00	14.58	65.21
	다음년도명시이월	76.76	120.74	63.93	116.64	72.42	113.95	72.44	78.47
	다음년도사고이월	60.14	262.65	2.55	8.78	1.27	5.70	1.08	4.81
	불용액	165.68	166.64	204.16	166.64	140.60	77.89	101.95	48.00
	사립	예비비 및 기타	4.02	15.56	2.82	6.54	2.47	3.48	16.79
반환금		1.18	4.89	2.04	4.83	2.43	3.49	16.79	39.0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2.84	15.00	0.78	2.92	0.04	0.19	0.00	0.00
이월금		306.60	532.38	174.44	218.12	220.03	274.93	163.67	160.62
다음년도계속비이월		57.04	301.81	25.46	134.75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		67.99	85.92	117.53	136.79	154.06	144.15	163.67	160.62
다음년도사고이월		181.57	460.50	31.44	89.47	65.97	268.52	0.00	0.00
불용액		305.98	431.34	256.64	453.74	419.16	1,019.97	360.09	654.15
t		예비비 및 기타	-1.33		0.96		1.18		-0.65
	이월금	-1.30		-2.2*		-2.24*		-1.88	
	불용액	-1.57		-0.49		-1.44		-2.08*	

*** $p < .001$, ** $p < .01$, * $p < .05$

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재정 비교

이 절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 간, 설립유형별 학교 교육재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전체 사례 수는 63개교이고, 그 중 국·공립학교는 43개교로 68.3%, 사립학교는 20개교로 31.7%이다.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액 비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표 7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37억1,646만원 수준이며, 사립학교는 98억3,1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세입결산에서 정규교직원 보수와 교직원 법정 부담금을 제외하였을 때 단위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69억1,52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였을 때,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는 1,180만원, 사립학교는 955만원 수준으로 약 224만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74>과 [그림 22]을 통해 나타난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의 차이가 2010년 대비 2013년도에는 감소하였는데, 2010년에 설립유형 간 편차가 327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22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74>에서 2013년 기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작게는 386만원에서 많게는 3,262만원까지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작게는 349만원에서 많게는 3,571만원으로 두 설립유형의 분포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고,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가 국·공립학교들은 603만원이고, 사립학교는 711만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세입결산 총액의 학교들 간 분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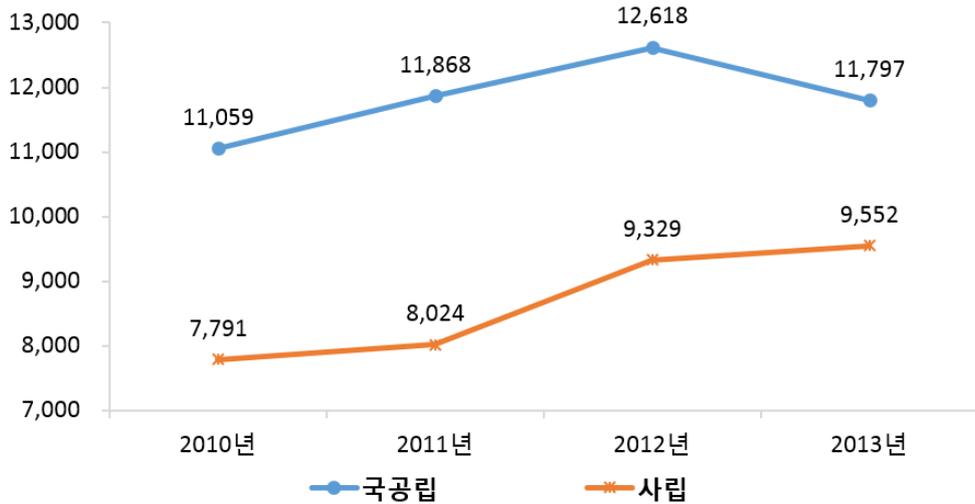
<표 76>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				사립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단위 학교	2010	3,691,262	1,923,698	1,328,780	11,081,190	8,050,498	4,162,907	2,428,124	16,770,759	-
		2011	3,821,398	2,127,971	1,442,122	14,230,761	8,265,607	3,909,754	3,586,954	16,863,290	-
		2012	3,993,859	2,052,471	1,545,357	13,805,891	9,688,029	8,746,321	3,357,261	44,351,670	-
		2013	3,716,456	1,426,475	1,828,933	9,491,812	9,831,102	8,609,080	3,721,416	44,170,316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제외 총액	단위 학교	2010	3,686,128	1,925,203	1,328,780	11,081,190	5,671,096	3,360,258	1,562,391	12,987,530	-
		2011	3,821,161	2,128,180	1,442,122	14,230,761	5,624,301	2,897,101	2,234,769	12,850,984	-
		2012	3,993,859	2,052,471	1,545,357	13,805,891	6,872,616	8,119,691	2,249,448	40,098,521	-
		2013	3,716,456	1,426,475	1,828,933	9,491,812	6,915,261	8,035,416	2,394,843	39,857,392	-
1인당	학생	2010	11,059.08	8,175.53	3,215.93	53,792.18	7,791.21	4,025.31	2,101.25	17,374.18	1.69
		2011	11,867.64	9,686.24	3,317.34	66,498.88	8,023.53	3,810.29	3,530.44	19,520.25	1.71
		2012	12,617.70	9,274.24	4,197.16	64,816.39	9,329.36	7,062.94	3,465.86	33,611.50	1.41
		2013	11,797.36	6,026.53	3,864.44	32,617.91	9,552.45	7,106.40	3,404.68	35,714.51	1.30

*** $p < .001$, ** $p < .01$, * $p < .05$

(단위: 천원)



[그림 2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입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2) 세입항목별 비교

<표 75>는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세입결산 총액을 세입항목별로 제시한 것이며, 사립 학교는 정규직 교원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입총액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세입 총액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이전수입이 2013년에 전년

도 대비 감소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모두 감소하였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의 감소가 총액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자체수입으로 학부모부담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이전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이 2013년도에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데, 학부모부담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행정활동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설립유형의 세입결산 규모의 증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이 학교회계의 수입재원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77>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입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세입결산총액		11,075.32	8,179.06	11,868.11	9,685.88	12,617.70	9,274.24	11,797.36	6,026.53
	이전수입		6,863.60	7,849.69	6,717.18	4,585.16	7,437.97	4,943.91	7,211.36	4,581.37
	중앙정부		0.00	0.00	0.00	0.00	0.86	4.04	0.91	3.86
	지방자치단체		224.98	543.69	236.85	403.66	114.90	164.65	118.48	137.47
	교육비특별회계		6,045.18	7,589.59	6,003.20	4,212.94	6,805.00	4,649.84	6,578.04	4,197.11
	기타		593.44	786.36	477.14	641.88	517.21	656.61	513.93	736.47
	자체수입		3,087.98	1,872.16	3,356.26	2,011.51	3,589.34	2,107.14	3,666.94	2,158.65
	학부모부담		2,918.16	1,949.48	3,145.17	2,074.33	3,369.54	2,182.92	3,471.39	2,252.21
	행정활동		169.82	258.27	211.09	336.74	219.80	334.52	195.55	283.29
	기타수입		1,123.74	2,090.06	1,794.67	5,983.80	1,590.39	5,033.56	919.06	1,709.77
전년도이월금		1,123.74	2,090.06	1,794.67	5,983.80	1,590.39	5,033.56	919.06	1,709.77	
사립	세입결산총액		11,102.13	5,275.88	11,865.43	5,540.70	13,480.41	7,870.46	13,964.31	7,637.61
	이전수입		3,919.89	4,732.65	4,072.05	4,841.25	4,761.65	5,667.96	4,723.00	5,188.35
	중앙정부		14.00	61.06	17.80	78.30	0.29	1.28	0.00	0.00
	지방자치단체		153.90	202.87	135.23	158.65	173.63	320.05	128.38	156.71
	교육비특별회계		2,899.83	3,953.96	3,184.67	4,336.44	3,803.95	5,279.03	3,851.99	4,869.00
	기타		852.16	2,216.85	734.35	1,897.37	783.78	1,832.01	742.62	1,512.85
	자체수입		5,948.30	2,808.17	6,541.38	3,396.70	7,839.00	6,338.91	6,948.47	3,233.58
	학부모부담		5,793.06	2,742.49	6,349.74	3,184.09	6,471.31	3,214.42	6,722.14	3,129.07
	행정활동		155.24	205.65	191.65	317.11	1,367.69	5,310.42	226.33	264.12
	기타수입		1,233.94	1,922.65	1,251.99	1,599.91	879.76	1,467.71	2,292.84	6,676.96
전년도이월금		1,233.94	1,922.65	1,251.99	1,599.91	879.76	1,467.71	2,292.84	6,676.96	

나.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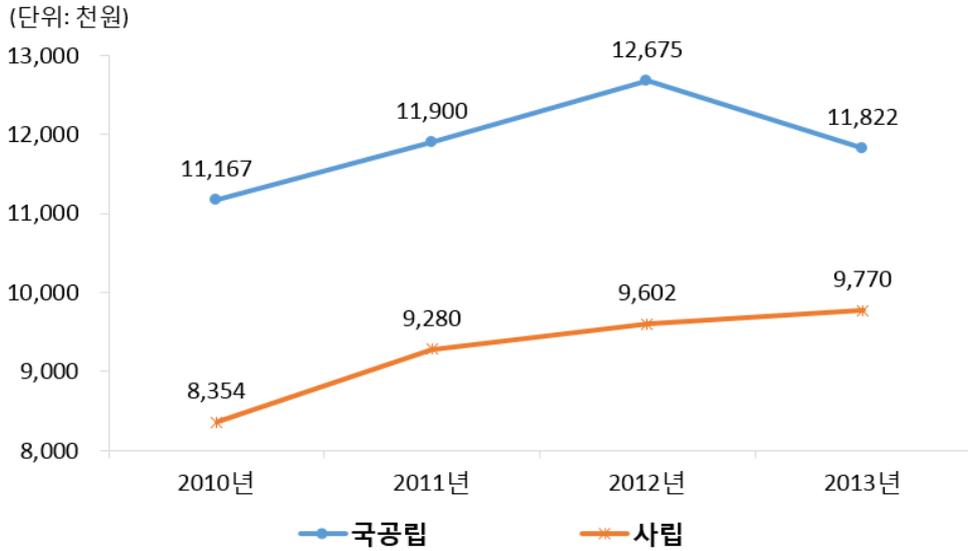
<표 76>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과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13년 기준으로 단위학교 세출결산 총액은 37억2,590만원 수준이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100억1,228만원 수준이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제외하면, 단위학교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70억9,64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를 통제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으로 산출하면, 2013년 기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1,182만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977만원 수준으로 약 205만원의 차이가 나타나며,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세출결산 총액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림 23]의 설립유형별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의 차이는 2010년에 281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205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표 78>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세출결산 총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n=354)				사립(n=324)				t		
	M	SD	Min	Max	M	SD	Min	Max			
총액	단위	2010	3,733,416	1,944,907	1,329,746	11,077,510	8,374,931	4,382,307	2,445,031	17,007,811	-
	학교	2011	3,832,469	2,124,656	1,443,053	14,238,357	9,631,897	8,279,063	3,602,682	41,729,717	-
		2012	4,018,421	2,053,875	1,556,994	13,805,993	9,893,119	8,864,267	3,398,469	44,821,101	-
		2013	3,725,904	1,426,730	1,828,350	9,491,799	10,012,283	9,078,137	3,737,028	46,446,189	-
정규직 교직원 인건비 제외 총액	단위	2010	3,728,282	1,946,472	1,329,746	11,077,510	5,995,528	3,560,891	1,579,299	13,224,582	-
	학교	2011	3,832,231	2,124,866	1,443,053	14,238,357	6,990,592	7,622,477	2,356,979	37,717,411	-
		2012	4,018,421	2,053,875	1,556,994	13,805,993	7,077,707	8,231,123	2,253,370	40,567,952	-
		2013	3,725,904	1,426,730	1,828,350	9,491,799	7,096,442	8,519,701	2,397,638	42,133,265	-
학생 1인당	2010	11,167.24	8,181.31	3,281.14	53,774.32	8,353.94	4,843.42	2,172.85	21,315.26	1.42	
	학교	2011	11,899.66	9,684.73	3,335.22	66,534.38	9,280.37	6,525.77	3,626.70	30,246.52	1.10
		2012	12,675.32	9,252.45	4,230.47	64,816.87	9,601.68	7,229.56	3,544.87	34,004.99	1.31
		2013	11,822.41	6,022.13	3,899.14	32,617.87	9,770.07	7,549.61	3,513.39	37,753.82	1.16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 연도별 변화 추이

2) 사업별 세출결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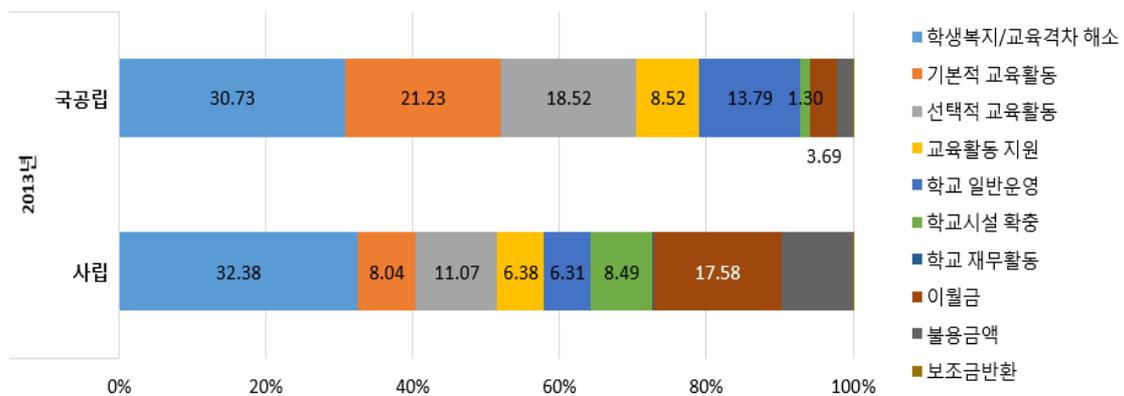
<표 77>은 정책사업 단위에서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에서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적자원 운용비의 비율은 34.2%에서 436.7%에 이른다. 따라서 <표 62>에서는 인적자원 운용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정책사업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1,155만원이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898만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7개의 정책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가 전체의 3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21.2%를 차지하고, 이어 선택적 교육활동이 18.5%, 학교 일반운영 13.8%, 교육활동 지원 8.5%, 학교시설 확충 1.3%, 학교 재무활동 0.1%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또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가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선택적 교육활동이 11.1%, 학교시설 확충 8.5%, 기본적인 교육활동 8%, 교육활동 지원 6.4%, 학교 일반운영 6.3%, 학교 재무활동 0.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9>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사업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세출총액	11,183.47	(100.00)	11,900.13	(100.00)	12,675.32	(100.00)	11,822.41	(100.00)	
인적자원 운용	342.15	(3.06)	354.73	(2.98)	262.82	(2.07)	270.40	(2.29)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10,841.33	(100.00)	11,545.41	(100.00)	12,412.50	(100.00)	11,552.01	(100.00)	
국공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600.36	(23.99)	3,036.62	(26.30)	3,452.11	(27.81)	3,550.32	(30.73)
	기본적 교육활동	2,175.95	(20.07)	2,107.66	(18.26)	2,437.01	(19.63)	2,453.01	(21.23)
	선택적 교육활동	1,455.50	(13.43)	1,694.82	(14.68)	2,218.46	(17.87)	2,139.92	(18.52)
	교육활동 지원	930.35	(8.58)	1,528.09	(13.24)	1,448.44	(11.67)	983.94	(8.52)
	학교 일반운영	1,351.76	(12.47)	1,352.64	(11.72)	1,529.63	(12.32)	1,593.01	(13.79)
	학교시설 확충	400.70	(3.70)	235.86	(2.04)	252.33	(2.03)	149.68	(1.30)
	학교 재무활동	0.19	(0.00)	4.01	(0.03)	4.64	(0.04)	5.43	(0.05)
	이월금	1,341.26	(12.37)	775.46	(6.72)	641.54	(5.17)	426.23	(3.69)
	불용금액	581.87	(5.37)	807.74	(7.00)	410.24	(3.31)	245.56	(2.13)
	보조금반환확정금액	3.37	(0.03)	2.51	(0.02)	18.10	(0.15)	4.90	(0.04)
세출총액	11,664.86	(100.00)	13,122.27	(100.00)	13,752.74	(100.00)	14,181.93	(100.00)	
인적자원 운용	4,284.09	(36.73)	4,488.27	(34.20)	4,909.41	(35.70)	5,206.32	(36.71)	
세출총액(인적자원 운용 제외)	7,380.77	(100.00)	8,634.00	(100.00)	8,843.33	(100.00)	8,975.60	(100.00)	
사립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976.98	(26.79)	2,551.67	(29.55)	2,750.58	(31.10)	2,906.24	(32.38)
	기본적 교육활동	765.77	(10.38)	726.67	(8.42)	737.05	(8.33)	721.57	(8.04)
	선택적 교육활동	820.16	(11.11)	1,013.38	(11.74)	1,013.25	(11.46)	993.97	(11.07)
	교육활동 지원	661.29	(8.96)	666.14	(7.72)	777.10	(8.79)	572.78	(6.38)
	학교 일반운영	501.48	(6.79)	485.91	(5.63)	508.36	(5.75)	565.95	(6.31)
	학교시설 확충	925.13	(12.53)	1,008.48	(11.68)	629.49	(7.12)	761.92	(8.49)
	학교 재무활동	4.66	(0.06)	78.90	(0.91)	2.14	(0.02)	3.98	(0.04)
	이월금	233.42	(3.16)	198.89	(2.30)	367.30	(4.15)	1,577.82	(17.58)
	불용금액	1,491.84	(20.21)	1,896.03	(21.96)	2,055.76	(23.25)	870.99	(9.70)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06	(0.00)	7.95	(0.09)	2.30	(0.03)	0.38	(0.00)



[그림 24] 2013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인적자원 운용 제외한 사업별 세출금액 비율

설립유형별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와 학교 일반운영, 학교 재무활동의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교육활동은 2011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택적 교육활동은 계속 증가해오다가 2013년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지원은 2012년부터 감소하였으며, 학교시설 확충은 증감 변화가 반복되며 전체적인 경향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정책사업들의 세출금액은 연도별 추이에서 증감의 변화가 나타나며, 기본적 교육활동과 교육활동 지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 재무활동에서는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인적자원 운용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세출총액의 차이가 2013년에 258만원이었는데, 이와 같은 세출총액의 차이가 어떠한 정책사업에서 나타나는지 2013년 기준으로 항목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비용을 비교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국·공립학교가 355만원이며 사립학교가 291만원으로 국·공립학교가 학생 1인당 평균 64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세출금액이 사립보다 국·공립학교가 173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선택적 교육활동비에서도 국·공립학교가 115만원 더 많고, 교육활동 지원에서 41만원, 학교 일반운영에서 103만원이 국·공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시설 확충에서만 사립학교가 세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인적자원 운용

<표 78>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세출결산에서 인적자원 운용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원기타보수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에 교직원기타보수 항목으로 분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의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연수 및 맞춤형복지,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및 각종 행사지원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세출금액은 국·공립의 경우 2011년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립의 경우는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원기타보수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46만원

으로 국·공립 20만원에 비하여 7.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적자원 운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인적자원 운용	342.15	513.97	354.73	759.37	262.82	196.70	270.40	197.39	
국공립	교직원 보수	304.33	516.10	319.46	766.21	26.76	139.73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37.82	42.53	35.27	30.53	52.53	46.68	74.53	123.59
	교직원 기타보수	-	-	-	-	183.53	170.05	195.87	169.22
인적자원 운용	4,284.09	2,092.88	4,488.27	1,965.34	4,909.41	2,206.88	5,206.32	2,230.46	
사립	교직원 보수	4,220.16	2,022.19	4,411.79	1,896.79	3,099.73	2,373.87	3,681.12	2,262.52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63.93	90.06	76.48	103.48	72.21	97.22	66.09	82.61
	교직원 기타보수	-	-	-	-	1,737.47	2,147.41	1,459.12	1,991.87

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표 79>는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공립과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규모가 36.5% 증가하였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47% 증가하였다. 2010년에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의 차이가 62만원 정도였으며, 2013년에는 64만원으로 격차가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급식관리와 교육격차 해소의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기숙사 관리와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는 증가해오다가 2013년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보건관리는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학생 장학지원은 계속 감소해오다가 201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단위사업들은 학생 장학지원을 제외하고 2013년 세출규모가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단위사업 중 급식 관리, 기숙사 관리, 교육격차 해소,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의 네 개의 단위사업에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관리는 2012년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 다시 증가하였고, 학생 장학지원은 계속 감소해오다가 2013년에 증가하였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학생 장학 지원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의 2013년 세출규모는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간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세출총액은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는 2013년 기준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의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급식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7.2%, 5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숙사 관리의 비율이 각각 18.3%, 19.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에 국공립인 경우 9.2%, 사립이 13.4%이고, 네 번째는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로 국공립이 2.9%, 사립이 10.9%이다. 이어 국공립은 학생 장학 지원이 2.4%, 보건 관리가 1.1%로 나타났다. 사립은 보건 관리가 1.6%, 학생 장학 지원이 0.7%로 나타났다.

<표 8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600.36	990.13	3,036.62	1,107.03	3,452.11	1,220.48	3,550.32	1,276.14	
국공립	급식 관리	1,960.21	794.23	2,073.93	875.21	2,318.54	801.72	2,388.62	927.27
	기숙사 관리	423.20	387.54	543.78	507.15	667.80	571.01	649.65	555.98
	보건 관리	45.01	27.19	58.68	37.92	53.74	27.04	56.01	25.64
	교육격차 해소	66.95	72.78	241.76	489.84	289.88	210.14	328.00	392.40
	학생 장학 지원	30.72	69.36	30.32	81.97	15.46	42.66	24.61	84.09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74.27	41.02	88.15	42.82	106.68	64.15	103.43	57.1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976.98	1,590.77	2,551.67	2,521.16	2,750.58	2,690.89	2,906.24	2,456.14	
사립	급식 관리	954.52	641.61	1,369.07	1,511.97	1,463.74	1,557.94	1,536.70	1,316.61
	기숙사 관리	497.99	925.37	502.73	973.87	553.62	1,088.07	564.80	1,079.23
	보건 관리	22.24	7.74	27.86	11.42	26.35	4.69	31.59	15.52
	교육격차 해소	198.45	219.68	309.72	268.24	345.45	181.74	388.54	210.80
	학생 장학 지원	99.91	164.01	86.06	123.03	66.52	66.58	68.23	72.04
	기타 학생복지 서비스	203.86	224.28	256.23	245.89	294.90	236.52	316.39	262.61
t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9	1.07	1.43	1.37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5] 2013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단위사업비 비율

다) 기본적 교육활동/선택적 교육활동

<표 80>은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보다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 총액이 모든 연도에서 2.8배에서 3.4배까지 높게 나타나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설립유형 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세출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1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 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의 세출 총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2년도 소폭 감소하였으며, 교과 활동은 감소, 증가, 감소가 반복해서 일어났으며,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교과활동 세출금액은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13년도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 대비 세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위사업들의 세출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으며, 교기육성과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두 개의 단위사업만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세출총액과 단위사업인 방과후학교 운영 세출금액은 2012년부터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의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교육활동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모든 연도에서 사립보다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더 높게 나타나며, 두 설립유형 간 평균차이도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는 2013년 기준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과 선택적 교육활동의 각각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것이다. 기본적 교육활동의 단위사업인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은 국·공립과 사립이 동일하게 교육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8.3%, 55.2%로 창의적 체험활동보다 더 높다. 선택적 교육활동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단위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설립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교기육성이 47.8%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27.2%,

<표 8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기본적 교육활동		2,175.95	2,056.64	2,107.66	1,968.48	2,437.01	2,582.16	2,453.01	2,809.72
	교과 활동		1,204.08	1,465.94	1,205.35	1,554.46	1,515.42	2,173.73	1,429.43	2,151.94
	창의적 체험활동		971.87	1,254.34	902.32	986.16	921.59	1,003.40	1,023.58	1,038.98
사립	기본적 교육활동		765.77	916.15	726.67	908.74	737.05	975.54	721.57	767.30
	교과 활동		438.12	930.66	435.97	876.46	468.42	938.97	398.25	709.73
	창의적 체험활동		327.64	194.09	290.70	204.02	268.63	149.38	323.32	166.65
<i>t</i>	기본적 교육활동		3.76***		3.81***		3.78***		3.75***	
국공립	선택적 교육활동		1,455.50	1,860.76	1,694.82	1,756.73	2,218.46	1,964.26	2,139.92	2,076.05
	방과후학교 운영		533.36	424.58	560.56	434.07	586.13	458.84	582.28	435.60
	평생교육		5.90	25.29	7.83	30.34	11.13	37.90	7.01	23.82
	직업교육		35.64	161.89	37.27	181.56	250.51	930.43	110.85	405.80
	국제교육		34.32	102.00	60.47	153.33	144.26	459.87	94.37	326.24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51.16	64.92	53.06	54.83
	교기육성		694.84	1,977.15	844.66	1,979.47	933.64	2,168.07	1,022.68	2,356.76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51.45	520.46	184.03	405.68	241.63	502.54	269.67	466.71
사립	선택적 교육활동		820.16	596.84	1,013.38	730.08	1,013.25	628.51	993.97	583.15
	방과후학교 운영		472.87	469.08	608.51	536.49	582.91	537.44	559.69	530.30
	평생교육		0.37	1.49	0.39	1.59	1.12	2.75	0.69	2.35
	직업교육		61.79	275.64	85.10	380.32	35.24	157.13	2.81	12.24
	국제교육		17.56	70.50	1.73	7.35	0.63	1.99	11.50	28.25
	독서교육		0.00	0.00	0.00	0.00	14.00	18.02	19.80	21.71
	교기육성		2.92	12.87	0.00	0.00	0.40	1.77	9.83	43.96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264.65	471.71	317.65	546.18	378.95	569.56	389.66	588.49
<i>t</i>	선택적 교육활동		2.03*		2.17*		3.64***		3.35**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6] 2013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기본적 교육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 단위사업비 비율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12.6%, 직업교육 5.2%, 국제교육 4.4%, 독서활동 2.5%, 평생교육 0.3%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이 5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39.2%, 독서활동 2%, 국제교육 1.2%, 고기육성 1%, 직업교육 0.3%, 평생교육 0.1% 순으로 나타났다.

라) 교육활동 지원

<표 81>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교육활동 지원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은 2012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들의 연도별 세출금액의 변화 추이는 일정한 경향성 없이 증감이 반복되어 일어나며, 증감의 변화 결과 국·공립의 경우 연구학교 운영과 학습지원실 운영 두 개의 단위사업의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이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무업무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은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에는 교무업무 운영의 학생 1인당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2013년에 감소하였으며, 그 외의 연구학교 운영과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의 단위사업들은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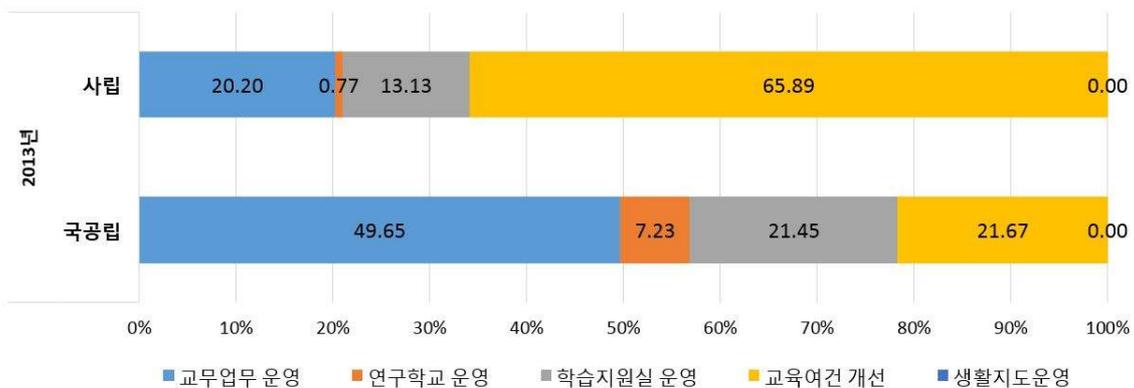
<표 8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활동 지원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교육활동 지원		930.35	1,200.76	1,528.09	3,897.07	1,448.44	3,792.09	983.94	1,227.95
	교무업무 운영		244.28	382.23	699.72	2,801.82	323.05	369.59	488.49	872.70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249.85	993.31	166.84	697.66	96.86	384.34	71.10	214.33
	학습지원실 운영		238.02	293.24	213.04	199.00	198.43	175.41	211.10	192.40
	교육여건 개선		198.20	526.33	448.48	1,282.67	830.10	3,700.54	213.26	487.28
사립	교육활동 지원		661.29	1,387.59	666.14	1,136.91	777.10	1,392.82	572.78	881.94
	교무업무 운영		343.52	1,097.09	132.62	166.03	220.09	420.15	115.72	117.88
	생활지도 운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구학교 운영		11.19	19.60	8.17	27.83	11.41	37.21	4.43	11.40
	학습지원실 운영		72.16	62.29	109.32	164.75	88.25	196.06	75.23	116.64
	교육여건 개선		234.42	538.97	416.03	961.26	457.35	882.41	377.41	789.63
<i>t</i>	교육활동 지원		0.79		0.97		0.77		1.34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0]은 2013년 기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지원 활동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의 단위사업 중 교무업무 운영이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21.7%이고, 학습지원실 운영 21.5%, 연구학교 운영 7.2% 순이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다른 경향을 나타나는데, 교육여건 개선이 6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무업무 운영이 20.2%의 비중을 차지하며, 학습지원실 운영 13.1%, 연구학교 운영 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2013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교육활동 지원 단위사업비 비율

마) 학교 일반운영/학교시설 확충

<표 82>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과 학교시설 확충의 단위사업에 대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학교 일반운영의 연도별 추이와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세출 총액이 2011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으로 시설 장비 유지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과 학부모 지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과 사립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단위사업으로 부서 기본 운영과 일반행정 관리, 학교운영 협력은 증감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의 경우 부서 기본 운영과 학교운영 협력은 2013년 세출금액이 201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의 경우 일반행정 관리와 학교운영 협력이 2010년 대비 2013년 세출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일반운영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 간 비교해보면, 모든 연

도에서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학교 일반운영비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이 3배 가까이 높으며, 평균차이 검증결과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사업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평균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이 사립이 국·공립보다 모든 연도에서 높을 뿐만 아니라 2011년과 2013년에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84>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학교 일반운영	1,351.76	1,095.15	1,352.64	1,005.32	1,529.63	1,273.01	1,593.01	1,383.86	
국공립	부서 기본 운영	288.07	360.37	262.24	306.35	290.36	420.38	275.89	440.29
	시설 장비 유지	813.70	770.11	827.24	690.32	978.49	831.23	1,003.28	875.95
	일반행정 관리	240.75	437.36	255.90	509.46	253.03	417.59	305.36	605.70
	학교운영 협력	9.23	14.54	5.20	4.60	4.61	4.08	4.73	4.61
	학부모 지원	0.00	0.00	2.06	3.12	3.14	3.89	3.76	4.26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400.70	1,269.69	235.86	495.19	252.33	403.85	149.68	221.45	
학교 일반운영	501.48	237.82	485.91	274.75	508.36	243.96	565.95	259.01	
사립	부서 기본 운영	80.07	67.85	81.20	75.43	77.57	41.99	91.55	52.45
	시설 장비 유지	257.15	154.40	294.42	245.56	312.28	175.67	367.50	208.43
	일반행정 관리	160.74	182.27	104.44	119.82	113.13	118.32	101.47	94.52
	학교운영 협력	3.51	5.75	4.32	6.23	3.55	5.31	3.19	5.97
	학부모 지원	0.00	0.00	1.53	2.01	1.83	1.64	2.24	2.21
학교시설 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925.13	1,321.27	1,008.48	1,244.30	629.49	782.19	761.92	1,167.35	
<i>t</i> 학교 일반운영	4.85***		5.25***		5.06***		4.69***		
<i>t</i> 학교시설 확충	-1.51		-2.68*		-2.03		-2.33*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8]은 2013년 기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일반운영 세출금액에서 단위사업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것이다. 단위사업의 비중순서는 국·공립과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사업은 시설 장비 유지로 국·공립은 63%, 사립은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관리의 비중이 크며 국·공립은 19.2%, 사립은 17.9%이다.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위사업은 부서 기본 운영으로 국·공립은 17.3%, 사립은 1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 협력은 국·공립이 0.6%, 사립이 0.3%로 나타났고, 학부모 지원은 국·공립이 0.4%, 사립이 0.2%로 나타났다.



[그림 28] 2013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 학교 일반운영 및 학교시설 확충 단위사업비 비율

바) 학교 재무활동/이월금/불용액/보조금 반환 확정금액

<표 83>은 학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과 예비비, 이월금, 불용액, 보조금반환확정금액의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반환금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 재무활동에서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 규모는 국·공립보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반환금이 약간씩 증가하였지만 2013년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5천원 수준이고 1만원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반하여, 사립의 경우 2011년에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이 8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보조금반환확정금액에서도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 반환 금액은 국·공립의 경우 2012년에 1만8천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1만원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립의 경우는 1만원 미만 수준에서 초과하여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에 학생 1인당 평균 58만원에서 2011년도 81만원, 2012년도에 41만원, 2013년도에 25만원으로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이고, 불용액을 발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보다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2010년에 149만원, 2011년에 190만원, 2012년에 206만원, 2013년에 8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85>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학교 재무활동 세출금액 및 이월금, 불용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학교 재무활동	0.19	1.26	4.01	12.62	4.64	16.39	5.43	18.71
	반환금	0.19	1.26	4.01	12.62	4.64	16.39	5.43	18.7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립	학교 재무활동	4.66	20.82	78.90	326.97	2.14	6.20	3.98	9.95
	반환금	4.66	20.82	78.90	326.97	2.14	6.20	3.98	9.95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t</i>	학교 재무활동	-0.96		-1.02		0.66		0.33	
국공립	이월금	1,341.26	6,172.48	775.46	3,051.31	641.54	2,015.24	426.23	1,190.56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1,299.48	6,175.86	563.98	1,801.56	573.41	1,844.63	388.64	1,187.83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41.77	116.36	211.48	1,278.91	68.13	192.77	37.59	86.35
	불용액	581.87	710.83	807.74	2,016.29	410.24	488.57	245.56	214.67
사립	보조금반환확정금액	3.37	14.48	2.51	9.44	18.10	81.04	4.90	14.76
	이월금	233.42	426.80	198.89	359.84	367.30	725.60	1,577.82	5,427.30
	다음년도계속이월금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금액	159.97	409.07	135.89	275.97	338.91	711.97	1,334.74	5,445.12
	다음년도사고이월금액	73.45	184.91	63.00	266.49	28.39	92.56	243.08	666.54
<i>t</i>	불용액	1,491.84	2,119.14	1,896.03	5,457.49	2,055.76	6,336.21	870.99	1,752.62
	보조금반환확정금액	0.06	0.25	7.95	30.02	2.30	5.84	0.38	1.72
	이월금	0.8		0.84		0.59		-0.94	
<i>t</i>	불용액	-1.87		-0.86		-1.16		-1.59	
	보조금반환확정금액	1.5		-0.79		0.87		1.98	

*** $p < .001$, ** $p < .01$, * $p < .05$

3) 성질별 세출결산 비교

<표 84>는 성질별 세출결산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분석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에서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9%에서 13.5%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2%에서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유형에 따른 성질별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세출총액	9,720.85	(100.00)	10,741.41	(100.00)	12,662.08	(100.00)	11,817.51	(100.00)	
인건비	964.24	(9.92)	1,163.86	(10.84)	1,575.26	(12.44)	1,599.23	(13.53)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8,756.61	(100.00)	9,577.55	(100.00)	11,086.82	(100.00)	10,218.28	(100.00)	
국·공립	운영비	5,590.96	(63.85)	6,417.18	(67.00)	8,230.69	(74.24)	8,198.29	(80.23)
	자산취득비	1,241.68	(14.18)	1,569.09	(16.38)	1,780.03	(16.06)	1,330.99	(13.03)
	예비비및기타	0.84	(0.01)	8.09	(0.08)	24.32	(0.22)	17.20	(0.17)
	이월금	1,341.26	(15.32)	775.46	(8.10)	641.54	(5.79)	426.23	(4.17)
	불용액	581.87	(6.64)	807.74	(8.43)	410.24	(3.70)	245.56	(2.40)
세출총액	11,047.66	(100.00)	12,817.18	(100.00)	13,750.43	(100.00)	14,181.54	(100.00)	
인건비	4,010.34	(36.30)	4,646.28	(36.25)	5,245.60	(38.15)	5,534.49	(39.03)	
세출총액(인건비 제외)	7,037.32	(100.00)	8,170.91	(100.00)	8,504.84	(100.00)	8,647.05	(100.00)	
사립	운영비	3,830.67	(54.43)	4,585.59	(56.12)	5,133.54	(60.36)	5,091.48	(58.88)
	자산취득비	1,214.44	(17.26)	1,370.58	(16.77)	899.14	(10.57)	957.98	(11.08)
	예비비및기타	266.95	(3.79)	119.82	(1.47)	49.10	(0.58)	148.79	(1.72)
	이월금	233.42	(3.32)	198.89	(2.43)	367.30	(4.32)	1,577.82	(18.25)
	불용액	1,491.84	(21.20)	1,896.03	(23.20)	2,055.76	(24.17)	870.99	(10.07)

따라서 <표 84>에서는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세출결산 총액에서 나머지 성질비목별 세출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1,022만원이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865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설립유형별로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에서 성질비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전체의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취득비가 13%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0.2%이고,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이며, 불용액의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또한 운영비가 58.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취득비가 11.1%를 차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금의 비율은 18.3%이고, 불용액의 규모는 10.1%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 인건비

<표 85>은 인건비의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금액을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인건비에서 정규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인건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교직원보수에 포함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타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정된

인건비 원가통계비목으로 분리되어 포함되었다. 연도별로 국·공립과 사립 모두 인건비의 세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기타직 보수가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2012년도부터 감소하였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인 보수와 기타직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고,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인건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인건비	964.24	780.07	1,163.86	860.79	1,575.26	748.53	1,599.23	799.07	
국공립	보수	16.24	48.82	0.47	2.66	0.00	0.00	0.00	0.00
	기간제근로자보수	453.38	585.76	662.85	732.66	695.39	689.39	695.69	764.09
	기타직보수	367.68	451.37	314.63	305.85	730.10	664.35	771.47	641.85
	학교운영지원비수당	126.95	202.29	185.91	281.06	149.76	104.35	132.07	48.76
인건비	4,010.34	2,283.57	4,646.28	2,436.43	5,245.60	2,472.63	5,534.49	2,458.58	
사립	보수	3,135.44	1,611.51	3,638.27	2,126.55	3,915.62	1,908.37	4,162.68	2,031.26
	기간제근로자보수	276.06	403.50	418.28	473.48	534.74	619.39	484.70	629.18
	기타직보수	546.26	948.09	537.61	395.66	737.28	832.41	824.09	843.07
	학교운영지원비수당	52.58	25.44	52.12	23.17	57.95	31.97	63.02	35.76

나) 운영비

<표 86>은 설립유형별 연도별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를 분석한 것이다. 학생 1인당 운영비 중 학교운영비의 비율이 97% 이상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와 학교운영비의 연도별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모두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는 국·공립인 경우 설립유형이 사립인 학교보다 학생 1인당 평균 세출총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의 규모도 사립보다 국·공립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국·공립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규모가 사립의 1.5배였고 2013년에는 1.6배로 나타난다. 2013년 기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는 820만원, 학교운영비는 812만원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평균 운영비가 509만원이고, 학교운영비는 506만원으로 설립유형 간 운영비의 차이는 311만원, 학교운영비의 차이는 306만원 차이가 나며, 평균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운영비	5,590.96	3,474.57	6,417.18	3,314.16	8,230.69	3,917.37	8,198.29	3,420.01
	업무추진비	133.76	264.13	124.96	207.14	90.68	79.74	80.03	57.87
	학교운영비	5,457.20	3,377.37	6,292.22	3,225.19	8,140.00	3,853.07	8,118.26	3,382.68
	교육운영비	1,728.53	2,155.73	1,441.99	966.92	3,031.97	2,366.39	2,863.78	1,789.47
	법정부담금	93.13	90.62	134.94	141.33	89.27	66.17	101.69	84.53
	일반운영비	3,635.54	2,237.93	4,715.29	2,475.63	5,018.76	1,915.69	5,152.79	1,935.31
사립	운영비	3,830.67	2,199.71	4,585.59	3,125.27	5,133.54	2,980.43	5,091.48	2,439.33
	업무추진비	85.67	117.72	193.09	524.28	53.79	116.58	29.07	21.44
	학교운영비	3,745.00	2,112.36	4,392.51	2,672.92	5,079.75	2,946.89	5,062.40	2,439.38
	교육운영비	694.58	464.75	857.10	603.94	1,281.58	911.78	1,418.87	827.43
	법정부담금	299.39	193.98	353.93	238.54	323.72	151.20	345.13	149.15
	일반운영비	2,751.04	1,942.93	3,181.48	2,380.05	3,474.45	2,632.29	3,298.40	2,235.16
t	운영비	2.43*		2.08*		3.13**		4.12***	

*** $p < .001$, ** $p < .01$, * $p < .05$

학교운영비의 세부성질비목별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운영비는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연도별 추이에서 증감의 변화가 있으며,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286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142만원으로 국·공립학교가 사립보다 학생 1인당 평균 144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일반운영비는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학생 1인당 평균 515만원으로 나타났고,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일반운영비는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학생 1인당 평균 330만원으로 나타나, 국·공립학교가 사립보다 평균 185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기타직과 계약직법정부담금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은 정규직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이 포함되어있어 국·공립보다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다) 자산취득비

<표 87>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연도별 설립유형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의 현황과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총액은 계속해서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

하였으며, 세목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시설비는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비품구입비는 증가해오다가 201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총액은 2012년에 감소했다가 2013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세목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시설비는 계속해서 감소해오다가 2013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품구입비는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였다. 이러한 증감의 변화로 2013년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시설비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시설비와 비품구입비는 2010년 대비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산취득비 규모를 보면, 2013년 기준 국·공립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133만원이고, 이 중 비품구입비가 106만원으로 79.4%, 시설비가 27만원으로 20.2%에 해당한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가 96만원이고, 이 중 비품구입비가 14만원으로 15%, 시설비가 81만원으로 84.9%에 해당하였다. 연도별 국·공립과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 모든 연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89>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자산취득비	1,241.68	1,684.57	1,569.09	2,672.45	1,780.03	3,304.30	1,330.99	2,254.15
	시설비	463.25	1,327.01	529.88	1,814.61	433.20	867.77	269.08	294.26
	비품구입비	775.32	1,074.95	1,039.16	1,245.12	1,325.50	2,534.23	1,056.81	2,189.52
	적립금	0.09	0.62	0.05	0.34	21.33	77.15	5.10	12.83
	기타자산취득비	3.02	17.59	0.00	0.00	0.00	0.00	0.00	0.00
사립	자산취득비	1,214.44	1,740.16	1,370.58	1,329.38	899.14	928.80	957.98	1,180.81
	시설비	1,029.22	1,587.21	989.65	1,240.68	619.24	761.80	812.33	1,156.40
	비품구입비	182.16	190.83	371.05	545.12	271.32	365.29	143.75	152.93
	적립금	0.00	0.00	7.93	35.48	8.57	25.89	1.90	6.51
	기타자산취득비	3.06	11.42	1.94	5.87	0.00	0.00	0.00	0.00
<i>t</i>	자산취득비	0.06		0.31		1.17		0.69	

*** $p < .001$, ** $p < .01$, * $p < .05$

라) 예비비 및 기타/이월금/불용액

<표 88>은 예비비와 반환금, 전출금, 이월금, 불용액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반환금과 불용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평균 반환금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1만원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에 학생 1인당 평균 7만8천원 수준이었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은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

우 2010년 58만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8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 41만원, 2013년에 25만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다른 설립유형에 비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불용액이 2010년 149만원이었고, 2011년에는 190만원, 2012년에는 206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87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학생 1인당 평균 87만원이라는 불용액 규모는 적은 규모가 아니며, 학교 회계의 예산측정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액의 산정과,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 90>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예비비 및 기타, 이월금, 불용액 세출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	예비비 및 기타	0.84	4.01	8.09	25.92	24.32	129.26	17.20	76.48
	반환금	0.78	4.00	4.19	12.59	5.73	19.08	5.43	18.71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0.06	0.39	3.90	22.87	18.59	118.03	11.77	63.88
	이월금	1,341.26	6,172.48	775.46	3,051.31	641.54	2,015.24	426.23	1,190.56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	1,299.48	6,175.86	563.98	1,801.56	573.41	1,844.63	388.64	1,187.83
	다음년도사고이월	41.77	116.36	211.48	1,278.91	68.13	192.77	37.59	86.35
	불용액	581.87	710.83	807.74	2,016.29	410.24	488.57	245.56	214.67
	사립	예비비 및 기타	266.95	1,049.05	119.82	365.25	49.10	200.21	148.79
반환금		5.60	20.94	78.90	326.97	2.14	6.20	3.98	9.95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출금		261.35	1,050.31	40.92	182.39	46.96	200.09	144.81	403.82
이월금		233.42	426.80	198.89	359.84	367.30	725.60	1,577.82	5,427.30
다음년도계속비이월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다음년도명시이월		159.97	409.07	135.89	275.97	338.91	711.97	1,334.74	5,445.12
다음년도사고이월		73.45	184.91	63.00	266.49	28.39	92.56	243.08	666.54
불용액		1,491.84	2,119.14	1,896.03	5,457.49	2,055.76	6,336.21	870.99	1,752.62
t		예비비 및 기타	-1.13		-1.37		-0.59		-1.44
	이월금	0.8		0.84		0.59		-0.94	
	불용액	-1.87		-0.86		-1.16		-1.59	

*** $p < .001$, ** $p < .01$, * $p < .05$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재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3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정규교직원의 보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액 비교에서는 사립학교의 세입·세출결산자료에서 교직원의 보수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총액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규모에 따른 재정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 재정항목별 금액을 학생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활용자료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자료와 학교회계 자료인 에듀파인 자료를 에듀데이터 서비스시스템(EDSS)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자료와 학교특성 정보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전체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모두 수집하지 않고, EDSS에서 총화표집에 의해 제공하는 에듀파인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의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립 일반고등학교 간에 학생당 세입 규모를 먼저 비교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약간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을 내용 별로 구분했을 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규모를 설립구분별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한편, 학생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비교해 본 결과, 역시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는 국·공립학교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사립학교는 2011년 이후 감소하며 양자의 차이 역시 2013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사립학교간 회계 시스템의 차이로 사립학교의 자체수입에는 학부모가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포함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이것이 시교육청 세입에 계상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전수입도 공립학교는 교직원 인건비가 제외된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성되지만, 사립학교는 교직원인건비가 포함된 재정결함보조금과 목적사업비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목적사업비 역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수선, 건축시설지원비 등을 교육청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의 총액보다 매우 낮게 산출된다.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관련 지출 역시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복지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립학교는 학교가 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에듀파인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이전수입의 전체 규모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세출결산의 사업별, 성질별 비교 역시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인적자원 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별 항목과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성질별 항목에서 연구결과를 그대로 공·사립학교간 실질적 차이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학생당 세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 국·공립 일반고등학교는 457만원, 사립 일반고등학교는 464만원 수준으로 약 7만원의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는 국·공립학교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사립학교는 2011년 이후 감소해 오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 세출총액에는 교육청이 주로 세출을 직접 집행하는 공립학교의 인적자원 운용, 학생복지, 학교시설 확충 등의 정책사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사립학교보다 국·공립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당 세출결산 총액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441만원인데 비해 사립학교는 4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규직 교직원의 인건비는 물론 기간제나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 일체의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교육활동 수행만을 위한 기본 정책사업의 교육비 규모 면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 학생당 세출비용을 비교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은 국·공립학교가 173만원이고 사립학교가 197만원으로 나타났고, 학교시설 확충에서도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30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항목의 공립학교 비용에는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로 사립학교의 관련 세출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자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국·공립학교가 학생당 평균 15만원 더 많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비롯한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7만원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무업무 운영, 생활지도 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도 3만원, 학교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학교 일반운영비도 27만원 가량을 각각 국·공립학교가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돼 결국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교육활동이나 학교 경상운영 면에서 더 많은 비용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간의 학생당 세입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고의 결과와는 달리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 보다 훨씬 더 높아 국·공립학교는 621만원, 사립학교는 537만원 수준으로 약 84만원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사립학교는 2012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부침을 보여 2010년에 3만원에 불과하였던 차이가 2013년도에는 84만원까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이나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공립학교의 학생당 평균 세입규모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사실은 사립특성화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당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는 623만원, 사립학교는 542만원 수준으로 세입 면에서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학생당 세출의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도 국·공립학교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해 왔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20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3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당 세출결산 총액 차이가 2010년에는 사립학교가 국·공립보다 18만원 가량 더 많았으나, 2011년부터는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를 추월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평균차이가 18만원, 2012년에는 54만원, 2013년에는 81만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2년까지는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가 평균차이가 커지면서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청이 직접 공립학교의 학생복지와 시설 확충을 위한 상당한 세출을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재론 더 크게 벌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사업 단위의 세출을 분석할 경우의 공·사립 특성화학교 간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졌다. 인적자원 운용비를 제외한 학생당 세출 총액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606만원이고 사립학교는 48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교직원의 보수 및 기간제나 계약직 교직원, 행정 대체인력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단위학교의 전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기본 정책사업들의 학생당 교육비 규모가 국·공립이 사립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의 세출이나 학교시설 확충의 세출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출항목별 비용을 비교해 보면, 정규 교육과정 운영 등에 투입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면에서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학생당 평균 59만원이 더 많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38만원 가량 더 많았으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27만원, 학교 일반운영비는 32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일반고등학교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국·공립이 사립보다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나 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공·사립 자율고등학교 간에 학생당 세입 규모를 먼저 비교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이것은 자율형 사립고들이 공립학교들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학부모부담 수입을 보유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당 평균 금액으로 산출하였을 때에도, 사립학교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율고등학교의 학생당 평균 세출총액 비교에서도, 국·공립자율고등학교는 2013년 기준 393만원, 사립자율고등학교는 592만원 수준으로 약 19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당 세출총액의 차이가 어떠한 정책사업에서 나타나는지 항목별로 세출비용을 비교해 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비용이 국·공립학교가 157만원이며 사립학교가 265만원으

로 사립학교가 학생당 평균 108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복지비 지출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의 회계운용 시스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당 평균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결과와는 달리, 사립 자율고등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209만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형사립고교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활동이나 진로체험 활동, 특기활동 등의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 일반운영에서도 사립 자율학교가 학생당 평균 3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시설 확충 역시 학교가 직접 세출을 집행하는 사립학교가 학생당 평균 35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교육비에 해당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국·공립학교가 학생당 평균 52만원, 사립학교가 47만원으로 나타나 국·공립이 5만원 정도 더 많고, 교육활동 지원에서도 국·공립학교가 학생당 평균 23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공·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간에 학생당 세입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2013년 기준 국·공립학교는 1,180만원, 사립학교는 955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 < .05$). 학생당 세출 규모에서도 국·공립학교는 1,182만원, 사립학교는 977만원 수준으로 약 205만원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정책사업 단위에서 인적자원 운용 항목을 제외한 학생당 세출결산 총액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2013년 기준 1,155만원 이고, 사립학교는 898만원으로 역시 국·공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취득비의 경우 일반고등학교 등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세출결산 총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되는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격차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 비품구입비를 사립학교보다 약 8배나 많이 지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 위주의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와는 달리 고가의 다양한 실험실습장비를 필요로 하는 과학고등학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 공은배(1993). 중등사학재정 분석 및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남순(1989). 한국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주(1999). 사립중등학교의 학교재정 평가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8(1), 113-165
- 김병주(2010). 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93-120.
- 김영출(1995).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배분의 학교간 격차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4(2), 367-383.
- 김정란(2006).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법정부담금 전입금 현황 분석. 부산광역시의회.
- 남수경(200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16(1), 31-56.
- 반상진(2001). 교육재정의 공평성.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 서울: 하우동설. 449-456.
- 반상진(2010). 지방교육행정기능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35-60.
- 송기창, 강경석, 김병주, 조석훈(1997).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재정지원제도 개선 연구.
- 송기창(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29-164.
- 신현석(2001). 한국 사학정책의 쟁점과 대안 그리고 선택 II: 중등 사학정책의 쟁점분석을 중심으로.
- 엄문영, 오범호, 윤홍주(2013). 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113-138.
- 우명숙(2007).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비 차이도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6(2), 125-151.
- 우명숙(2007).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재정 형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263-284.
- 우명숙(2013). 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55-83.
- 윤홍주(2004). 단위학교의 적정 교수학습비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3(1), 25-45.
- 윤홍주(2005). 초등학교 학교회계의 공평성 분석: 강원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교

- 육연구, 18(1), 109-132.
- 이혜진, 한유경(2006).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75-102.
- 정동욱, 홍지영, 지윤경, 이호준(2011).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 간 교육자원 배분의 형평성 비교분석: 전국 공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9(4), 275-295.
- 정동욱, 이호준, 조성경, 이현국, 정승환(2013). 학교 책무성 정책과 교육재정 지원의 적정성: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35-54.
- 주철안(1997). 부산 중등 사학의 재정실태와 발전방향. 지방교육경영, 2(2), 155-173.
- 차양은(2001). 지방교육재정배분의 공평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0(1), 209-238.
- 최준렬(2013).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적절성 개념과 측정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1-33.
- 홍지영, 정동욱(2012).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단위학교 적정 교육비의 산출 분석: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1(4), 1-26.
- 국가기록원>주제별 검색>주제유형별검색>정책/제도>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64>